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조성호

Keita Suga·문승현·정주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Keita Suga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1차장
	문승현	University of Georgia 박사과정
	정주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16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71-3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16>

발|간|사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조금씩 출생성비 불균형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약 30년간 지속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 자체를 하지 않는 국가이므로 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미혼화 및 비혼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경제적 및 주거 요인, 가치관적인 요인에서 찾아왔지만, 혹시 30여 년간 지속된 성비 불균형도 미혼화 및 비혼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이 연구의 시작점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자체가 재생산 연령대 남녀에게 불리한 구조여서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출생성비 불균형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보고서의 결과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조성호 부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일본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Suga, Keita 제1실장, 문승현 박사과정(University of Georgia), 정주성 연구원이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하며 완성하였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한양대학교의 유삼현 교수, 원내의 신윤정 연구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출생성비 불균형 발생 원인	17
제2절 출생성비 불균형의 인구사회학적 영향	27
제3절 결혼성비 불균형 지표 및 생애 미혼율 장래 추계	33
제4절 출생성비 불균형의 국외 사례	42
제3장 성비 불균형 현황과 진단	61
제1절 성비 불균형 현황	63
제2절 성비 불균형과 혼인 관련 지표	74
제3절 생애 미혼율의 장래 추계	110
제4장 미혼인구의 정책적 욕구	119
제1절 지방 미혼인구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122
제2절 지방 미혼인구에 대한 결혼 지원 정책	132
제3절 지방의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인식	144

제5장 결론	149
참고문헌	161
부 록1 가상 결합 후 미혼자 및 비율	170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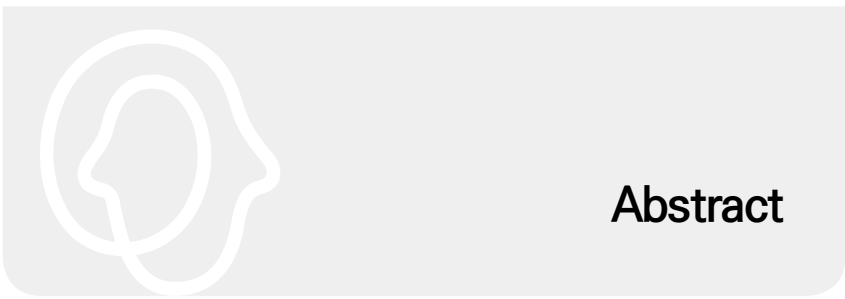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3-1〉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76~2015년	64
〈표 3-2〉 지역별 출생성비 추이: 1990~2020년	66
〈표 3-3〉 지역 및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추이: 1990~2000년	67
〈표 3-4〉 지역 및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추이: 2005~2015년	68
〈표 3-5〉 지역 및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추이: 2020년	69
〈표 3-6〉 미혼인구 비율 추이: 1990~2020년	71
〈표 3-7〉 지역별 초혼 연령 추이(남성): 1990~2020년	72
〈표 3-8〉 지역별 초혼 연령 추이(여성): 1990~2020년	73
〈표 3-9〉 1970~2000년 코호트별 총인구 성비의 시계열 추이: 1980~2020년	76
〈표 3-10〉 1970~2000년 코호트별 미혼인구 성비의 시계열 추이: 1985~2020년	79
〈표 3-11〉 1970~2000년 코호트별 미혼인구 및 미혼율: 2020년	82
〈표 3-12〉 미혼인구의 가상 결합 지표: 1985~2020년	85
〈표 3-13〉 한국의 2021년 S 지표	89
〈표 3-14〉 지역별 동일 연령대 출생성비와 성별 초혼 비율: 2000~2020년	95
〈표 3-15〉 광역시 단위 지역별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	100
〈표 3-16〉 도 단위 지역별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	101
〈표 3-17〉 전체 지역 성비와 성별 초혼 비율: 2000~2020년	102
〈표 3-18〉 지역별 연령 차이를 고려한 출생성비와 성별 초혼 비율: 2000~2020년	104
〈표 3-19〉 연령 차이를 고려한 광역시 단위 지역별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	108
〈표 3-22〉 연령 차이를 고려한 도 단위 지역별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	109
〈표 3-21〉 연령 차이를 고려한 전체 지역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	110
〈표 4-1〉 인터뷰 대상자 개요	122
〈부표 1〉 한국의 연령별 가상 결합 후 미혼자 및 비율: 1985~2020년	173
〈부표 2〉 일본의 연령별 가상 결합 후 미혼자 및 비율: 1985~2020년	175

그림 목차

[그림 1-1] 우리나라의 출생성비 추이: 1970~2021년	9
[그림 2-1] 중국의 출생성비 추이: 1960~2020년	43
[그림 2-2] 각국의 출생성비 추이: 1960~2020년	57
[그림 3-1] 한국의 지역별 S 지표: 1991~2021년	86
[그림 3-2]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S 지표: 1991~2021년	88
[그림 3-3] 일본의 지역별 S 지표(1): 1975~2021년	90
[그림 3-4] 일본의 지역별 S 지표(2): 1975~2021년	91
[그림 3-5] 일본의 지역별 S 지표(3): 1975~2021년	92
[그림 3-6] 미혼지수(k_t)의 추이: 남성	111
[그림 3-7] 미혼지수(k_t)의 추이: 여성	112
[그림 3-8] 연령별 미혼율 추이: 남성	113
[그림 3-9] 연령별 미혼율 추이: 여성	113
[그림 3-10] 50세 미혼율 추이: 남성	115
[그림 3-11] 50세 미혼율 추이: 여성	115
[그림 3-12] 지역별 50세 미혼율 추이: 남성	116
[그림 3-13] 지역별 50세 미혼율 추이: 여성	117



Abstract

Marriage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Project Head: Cho, Sungho

Korea's sex ratio at birth remained higher than the natural sex ratio for about 30 years, from the early 1980s to around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impact of the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which has persisted for over 30 years, on the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sex ratio imbalance and marriage.

Our analysis found that the sex ratio imbalance persisted even after adulthood for cohorts born in and after the mid-1980s, when the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w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sex ratio imbalance in the 1970s cohort was also high, but the imbalance between the number of unmarried men and women grew larger for the cohorts born in and after the 1980s. The calculation of Schoen's (1983) index suggests that the marriage sex ratio in Korea, having had no imbalance until the early 1990s, began worsening after the mid-2000s, with, in 2021, unmarried men outnumbering unmarried women by 19.6%. While Seoul had no major problems in terms of the sex demographic structure, in non-Seoul re-

Co-Researchers: Suga, Keita · Moon, Seunghyun · Jung, Joo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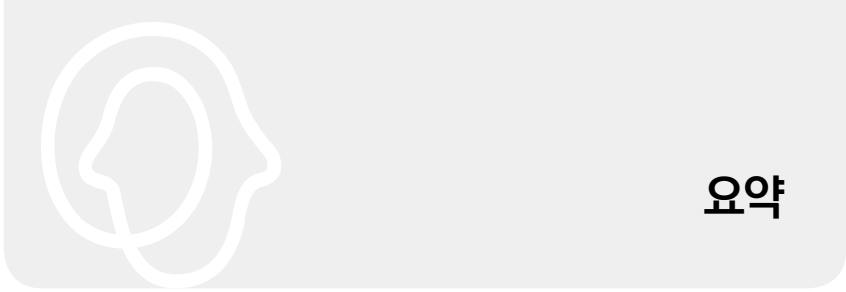
2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gions, especially in non-urban provinces, marriageable men far outnumbered marriageable women.

Our time-series analysis reveal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mbalance in the marriage sex ratio and marriage. This effect appeared around 2015, earlier in provincial areas than in metropolitan areas, mainly among people in their 30s. This is to say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ex ratio and marriage for those born in and after the period when the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began to occur.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Kore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needs to be approached not only in economic terms but also in terms of young people's transition to marriage.

Keyword : Sex Ratio at Birth, Marriage, Unmarried Popula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1970년대부터 조금씩 자연성비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1980년 초반부터 2007년 정도까지 약 30년 동안 자연성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출생성비 불균형은 이들이 재생산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 결혼 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혼화 및 비혼화의 증가는 미혼 남녀들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사회경제적 및 주거 특성에 편중되어 분석되어 왔으나, 이처럼 출생성비 불균형에 의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영향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약 30년 이상 지속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현재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과 이러한 성비 불균형과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출생성비 불균형은 강한 남아선호사상, 가족계획정책, 초음파 등을 이용한 성 선택적 출산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출생성비 불균형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영향이 해당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재생산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 성비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간헐적으로 출생성비 불균형이 나타난 1970년대 코호트에서는 성인기 이후에 성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출생성비 불

4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1980년대 중반 이후 코호트부터는 성인기 이후에도 성비 불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구 성비에 서도 불균형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1970년대 코호트가 1980년대 코호트보다 성비 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미혼인구수는 1980년대 이후 코호트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인구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최근 코호트의 미혼화 및 비혼화가 이전 코호트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만일 이들이 모두 1:1로 결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게 되는 수준을 측정하는 인구 지표를 산출하였다. 지표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일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방법으로 산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수치가 일본보다 약 2배 크고, 미혼인구수는 총인구가 우리보다 약 2.5배 많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결혼 시장의 성별 인구구조가 일본보다 심각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Schoen(1983)의 S 지표는 성비와 연령별 결혼 구조를 고려한 지표로, 상기 지표보다 현실이 더 반영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 산출 결과, 199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결혼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미혼 남성이 여성보다 19.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성별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반면에, 지방은 남성이 결혼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도 지역들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혼 성비 구조의 불균형과 결혼 간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보다 이러한 효과가 빨리 나타났고,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주로 30

대 초반에서 나타났다. 이로써 생각할 때, 출생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에게 성비와 결혼 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연령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는 30대 후반에서 주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절대적인 남성의 수보다 결혼할 만한 남성의 수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앞으로 미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고, 특히 2050년경 서울 여성의 미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의 경제적인 의미만 강조되었으나, 청년들의 결혼 이행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방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인구통계학 측면에서 초혼 연령의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용어 : 출생성비, 결혼, 미혼인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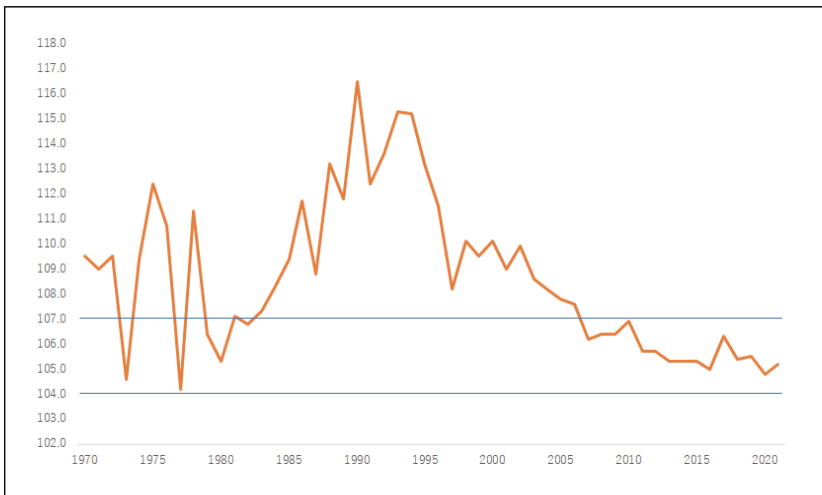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출생성비는 1970년대부터 자연성비¹⁾보다 높은 수준이 간헐적으로 나타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더욱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자연성비의 범위 안으로 수렴하였다.

[그림 1-1] 우리나라의 출생성비 추이: 1970~2021년



주: 실선은 자연성비 범위(104~107)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연도별 출생성비.

1)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의미하며, 자연성비는 104~107명의 범위를 의미함.

출생성비가 높다는 것은 남성 수 과잉(males surplus) 또는 여성 수 부족(females surfeit) 현상을 의미하며, 이것은 이들이 재생산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 결혼 시장(marriage market)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970년부터 산발적으로 시작되어 2007년까지 30년 이상 출생성비는 자연성비를 넘어서는 수준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인구는 모멘텀(momentum)이 존재하므로 상당 기간 결혼 시장에서의 성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남녀의 결합(matching)은 1:1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직관적으로 성비가 균형이 되어야 완전 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비가 1:1 균형이라 하더라도 남녀 간의 결합에는 연령, 성격, 외모 등 서로 간의 선호(preference)가 존재하므로 완전 결합은 달성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한 자연성비 자체가 여아 수보다 남아 수가 4~7명 많은 수준이므로 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재생산 연령대에 접어들었을 때 자연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남성 수 과잉 및 여성 수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결혼 시장에서 어느 한쪽 성별의 수가 크거나 작게 되는 현상을 결혼 성비 불균형(marriage squeeze) 현상이라 하며, 국외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성비 불균형 및 그의 영향에 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남녀의 성비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고(성낙일 외, 2012; Das Gupta & Li, 1999; Schacht & Kramer, 2016),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비 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성비 불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혼인구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30대 초반 남성의 미혼율은 1990년 13.9%에서 2020년 65.9%, 여성은 동 기

간 5.3%에서 46.0%로 증가하였다. 또한, 동 기간 4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은 0.6%에서 9.8%로 증가한 반면, 남성의 미혼율은 0.8%에서 20.5%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²⁾. 2020년의 40대 후반 인구는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해지기 시작한 시기인 1970년 전반에 태어난 인구로, 이로 인하여 남성 수 과잉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미혼화 및 비혼화의 증가는 출생성비 불균형 등의 인구구조 측면에서 파악해야 함에도 그동안 미혼 남녀들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사회경제적 및 주거 특성에 편중되어 분석되어 온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 미혼인구가 직면하고 있는 결혼 시장의 인구학적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미혼 남녀들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이에 관한 연구가 단순히 연령에 따른 분석에 그치고 있어 출생 코호트에 따른 특징에 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 생애 미혼인구(50세 이상 미혼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 고령화율(28.8%, 2020년)과 생애 미혼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남성: 25.7%, 여성: 16.4%, 2020년), 부모 돌봄이 비혼 자녀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은숙, 2017).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비 불균형 현황과 성비 불균형이 결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미혼화 및 비혼화 현상과 결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비 불균형에 따른 생애 미혼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의 결혼 성비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는

2) kosis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필자 산출.

지표를 검토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 결혼 시장(marriage market)에서의 성비 수준을 진단하며, 이와 관련된 지표(생애 미혼율)의 추세를 전망(projection)해 보려 한다. 그리고 성비 불균형과 결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성비 불균형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현상(미혼·비혼화 현상, 결혼 상대 부족 현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 간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출생성비 불균형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다. 출생성비 불균형은 출산 시 아들, 딸 중 어느 한 쪽이 편향되어 태어나는 것에 의해 발생하고, 부모가 특정 성별을 선호하게 되는 가치관이 제일 큰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나타난 사회이므로 왜 남아선호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파악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출생성비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의 성비 구조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존 문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성비 불균형 지표 중 Schoen(1983)의 S 지표의 산출 방법을 검토하고, 50세 미혼율인 생애 미혼율을 전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이 결국 중국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므로 현재 중국의 남아선

호사상 및 출생성비 불균형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 이외의 출생성비 불균형이 발생한 국가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성비 불균형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의 수준, 지역의 출생성비, 미혼인구 및 초혼 연령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성비 관련 가치관과 성비 불균형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출생성비가 불균형인 상황에서 태어난 이들이 재생산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도 이러한 불균형적인 성비가 유지되는 경우, 결혼 시장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먼저 이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코호트별 남녀 성비의 변화를 전체 인구, 미혼인구로 나누어 분석한다. 만일 결혼 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남녀 간의 결합에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잔여(residual)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잔여의 크기에 따라 현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남녀가 가상으로 결합할 경우에 남게 되는 미혼인구의 크기를 도출해 보려 한다.

그러나 상기 분석들은 각각 성비 불균형과 남녀 간의 결합을 별도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 지표가 Schoen(1983)의 S 지표로, S 지표는 미혼인구의 성비와 연령별 결혼 구조를 고려하여 도출한다. 다만, S 지표의 경우는 지표를 산출한다 해도 한 국가의 수치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일본의 지표를 함께 산출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려 한다.

일본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

계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혼 인구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특히 2020년 일본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28.3%, 여성은 17.8%로 나타나(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23),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미혼 인구의 증가 및 남녀 간의 결합에 있어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오랜 기간 발생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한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들을 통해 남녀 미혼인구의 성비 불균형과 인구의 잔여 수 등이 산출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비와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을 것이므로 둘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결혼에는 일정한 연령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 연령 성비와 연령 차이를 고려한 성비로 분석하여 성비와 결혼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볼 것이다.

제3장의 마지막은 앞서 살펴본 남녀의 결합으로 남게 되는 잔여로서의 미혼인구의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 장래 추계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미혼인구의 정책적 욕구에 대해 1:1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려 한다. 특히 심층면접조사는 제3장에서 분석된 미혼인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혼인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및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파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분석을 정리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출생성비 불균형 발생 원인

제2절 출생성비 불균형의 인구사회학적 영향

제3절 결혼성비 불균형 지표 및 생애 미혼율 장래 추계

제4절 출생성비 불균형의 국외 사례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출생성비 불균형 발생 원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적인 출생성비는 인구학적으로 여아 100명 당 남아가 104~107명의 범위에 있으면 정상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 40년 전에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시작되어 30여 년간 이어졌다. 이렇게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성비 불균형은 남아가 많고 여아가 적거나, 남아가 적고 여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래 남아가 많게 태어나는 것이 출생 시의 자연적인 성비이므로 자연적으로 남아가 많은 출생성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자연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출생성비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고, 남아가 많이 태어나거나 여아가 적게 태어나게 하는 요인이 출생성비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Guilmoto(2009)에 따르면, 젠더 편향적 성 선택(Gender-biased Sex Selection) 발생에는 세 가지 선제조건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① 남아선호사상(son preference), ②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자녀의 성(sex) 선택 욕구(수요) 및 필요성 증가, ③ 자녀의 성(sex)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공급이 그것이다.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목격된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선제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며, UN 인구기금 또한 이 세 가지의 요인을 분석의 틀로 하여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UNFPA 2018a, UNFPA 2018b).

우리나라에도 상기 조건의 적용이 가능하며, 그 중에서 남아선호는 삼국시대 이전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동부여의 왕 해부루는 아들을 낳기 위해 산과 강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 북방 민족에 속하는 부여는 가부장권이 일찍부터 발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11, pp.41).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를 선호하게 된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상속제는 남아선호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역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남아선호사상

가. 상속제도

상속제도를 재산상속과 장례 및 제사 상속으로 나누어 보면, 고려시대에는 둘 모두 자녀균분상속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손이 없다면 형제자매, 조카 및 질녀 등에 상속되며, 부변전래(夫邊傳來) 및 처변전래(妻邊傳來) 노비는 각각 남편과 아내의 본가로 돌아가고, 친인척이 없으면 관에 속하게 되었다. 토지의 경우는 개인 소유의 토지와 국가로부터 지급된 토지가 있는데, 전자는 명확한 자녀균분상속이고, 후자는 적장자(嫡長子) 상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시대 가족제도에 적장자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자녀균분상속으로 볼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1994, pp.250-251).

장례 및 제사 또한 재산상속과 유사하게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딸이 있는 경우에는 외손이 관장할 수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없는 경우에도 남

편 및 아내의 조카가 관련 절차를 수행하였다. 기제사에는 남녀 구별 없이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며, 장례에 필요한 경비 등은 공동으로 부담하였는데, 이는 자녀균분상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국사편찬위원회, 1994, pp.253).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특별히 아들을 낳으려는 유인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 중기(17세기 중반~18세기 중반)를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상속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자녀 모두가 균등하게 상속되는 형태였다면,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는 장남이 우대되고, 남녀를 차별하는 차등 상속의 형태가 주된 상속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제사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균등하게 제사를 모시는 윤회봉사(輪回奉祀)에서 장자봉사(長子奉祀)의 형태로 굳어지게 된다(국사편찬위원회, 1994, pp.262). 상속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혼인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 혼인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 혼인제도

고려시대에는 혼인 후 남편과 처가 오랜 기간 처방(妻方)에서 생활했는데, 처방에 거주하는 기간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대략 20년 이상 생활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를 서류 부가혼(婿留婦家婚) 또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라고 한다. 즉, 20년 이상 처방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친가보다는 외가 쪽 친족들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국사편찬위원회, 1994, pp.248). 그러나 조선 초기의 개혁가들은 고려의 몰락이 인간 본성의 타락과 건강하지 않은 풍속 때문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것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중국의 ‘주자가례’에서 제시한 혼례절차를 조선에 적용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혼례는 신부를 신랑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례를 치르고 시집에서 생활하는 친영(親迎)제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pp.137~138).

그러나 고려시대의 서류부가혼 및 남귀여가혼의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15세기 조선 초기의 혼례는 3일 동안 잔치를 벌이며 치르는 방식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혼례를 치르고, 처방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식이었으며, 예식이 끝나면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지만, 다시 처방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방식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pp.139). 따라서 신부 측은 신혼 주거와 혼례음식 등의 혼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서류부가혼 및 남귀여가혼의 풍습이 조선 초기에도 이어져 왔다는 것은 유교적 가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적계주의(嫡系主義)와 종법질서가 정착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사편찬위원회, 1994, pp.293).

다만, 3일간의 혼례는 신랑과 신부가 3일째 되는 날 상견을 하게 되고, 별도의 의식 없이 동침한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식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비난하였고, 이후 신랑·신부가 하루에 의식을 치르는 방식으로 혼례가 끝나는 것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반친영(半親迎)제라 하였으나, 혼례와 생활을 모두 처방에서 하였으므로 여전히 서류부가혼 및 남귀여가혼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 및 유학자들이 친영제를 강조했음에도 이렇게 서류부가혼 및 남귀여가혼의 전통이 유지된 이유는 신랑 측의 경제적 이득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친영제를 하게 되면 혼례 준비뿐만 아니라 신혼 주거지 마련 및 생활비 등이 신랑 측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다. 신부 측에서도 갑작스럽게 혼수 등을 준비해야 하는 큰 압박과 함께 딸이 익숙지 않은 공간에서 살게 되는 것을 탐

탁지 않게 생각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pp.140~141).

그러나 서류부가혼 및 남귀여가혼의 풍습도 조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유교적 사상(종법 사상 등)에 의하여 중기 이후부터 친영제로 정착되어 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속 및 제사 등이 반드시 아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1998, pp.217-218).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딸에게 재산을 상속할 명분이 사라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는 딸과 사위 및 손자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외할아버지를 부양하고, 제사 또한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재산도 균등하게 분배했지만,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외가에서 생활하지 않고,³⁾ 제사 또한 아들이 지내야 하는 것으로 의식이 변해갔으므로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였고 조선 후기에 이르면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 즉 적장자 상속이 지배적이 되어갔다(국사편찬위원회, 1998, pp.225).

다. 가계 계승

아들이 중요해졌다는 것은 곧 여성이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도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여성 본인이 가문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11, pp.43).

조선의 가계 계승자는 적어도 5대 위의 고조부모에서부터 시작된 문중(門中)을 대표하는 자(아들)였고, 이 중에 아들이 있으면 가계를 계승할 수

3) 고려시대에 신랑이 처방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대략 20년 정도였으나, 18세기 조선에 이르러 되면 그 기간이 1~2년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pp.108).

있었다. 게다가 계승은 주로 제사 승계였으며, 이것도 양반지배층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김상용, 2004).⁴⁾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이에(家) 제도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면서 이러한 계승 관계는 2대 이내로 매우 축소되었고, 제사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산 및 구성원 등을 관장하는 권한의 계승으로 변질되었으며, 양반층 이외에 모든 평민들에게도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양현아, 2010).

일본의 이에 제도는 혈연관계를 기본으로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가업을 잇는 경영체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의 가부장은 가업·가산 및 이에의 구성원을 통솔하는 등의 강력한 가독권(家督權)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를 잇는 혈연이 없을 경우에는 비혈연자가 이에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사위가 양자가 되는 서양자(婿養子) 제도도 있었다. 이에는 하나의 호적에 동일한 씨(氏)로 등록되고, 분가에 의해 확대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확대에 따라 동족(同族) 등과 같은 친족이 형성되었다(진필수, 2013, pp.229-230). 또한, 이에는 핵가족이라는 형태에 직계가족제도의 원리가 통합된 기묘한 형태로, 이는 일왕을 기조로 하는 가족 모형을 가진 가족국가 형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제도는 많아도 3대 정도로 구성되며 이에를 계승하는 장자 이외의 형제자매는 분가를 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양현아, 2010, pp.303).

이렇듯 일본의 이에 제도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도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계승이라는 측면을 일본의 이에 제도와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제도는 일본의 이에 제도와도 다르게 매우 한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이에 제도가 적장자 중심이었다고는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의 안과 밖에서 호주를

4) 이수건(2003)에 의하면, 당시의 인구구성은 양반 3%, 양인 57%, 천인 40%로 나타나(김상용, 2004에서 재인용), 제사승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선정할 수 있는 유연성, 예를 들어, 서양자를 들이거나 계승자가 무능력 및 불손함 등을 이유로 계승 지위를 박탈할 수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호주 계승이 적장자에게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계승 지위 박탈(폐적)을 금지하였다(양현아, 1999, pp.225-230). 즉,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제사 계승에 있어서 적장자 계승이 호주 계승으로 한정되고 왜곡되어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일본의 이에 제도하에서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경우, 연장자가 ‘여호주(女戶主)’가 되고 데릴사위(서양자)를 들인 경우에는 아내가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하루키 이쿠미, 2010), 조선에서도 후기까지 수양자 등의 이름으로 동성(同姓)뿐만 아니라 이성(異姓)의 양자를 들여 제사를 맡기는 관행이 있었으나, 조선총독부는 남계 혈족 남자만을 양자로 삼는 경우만 인정하였다(최재석, 1980; 이정선,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것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 이식된 일본의 이에 제도는 일본보다 매우 협소하고 경직된 제도로 남아 가계 계승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하나의 호적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소규모(핵) 가족이 ‘계승되어야 할 계통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여성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해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양현아, 1999, pp.230-232).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의 상속은 제사, 재산, 호주 상속의 측면에서 문중이라는 큰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작은 단위의 가족(핵가족) 규모로 축소되어, 이후 핵가족이 지배적인 시대에 들어와서도 각각의 가족들이 대를 잇는다는 명분하에 각 가정에서도 아들을 낳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남아선호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계획정책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가. 가족계획정책

앞서 Guilimoto(2009)가 제시한 세 가지 선제조건 중 두 번째 요건이었던 성 선택의 욕구 및 필요성의 증가에 비춰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정책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출산 욕구가 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정책은 시기에 따라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962~1971년까지의 기간은 인구증가억제정책인 가족계획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기반을 다진 시기이며 일정 정도 성과를 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72~1981년까지의 기간은 이전 시기에 구축된 사업 기반을 기초로 하여 경제발전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982~1988년까지의 기간은 이전보다 출산율 등의 지표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족계획정책을 한층 더 강력하게 시행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가 가족계획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넷째, 1989~1995년까지의 기간은 가족계획정책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이미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 미만으로 감소하였는데, 가족계획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1994년 카이로 인구 국제 회의를 계기로 1961년부터 시작되어 약 30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정책은 1995년에 폐지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그러나 가족계획정책의 결과물로서 사람들의 출산 욕구가 억제되었는지 출산 욕구가 억제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족계획정책이 이를 도운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시혜의 대중화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이전과 유사하게 출산함에도 이들의 희망 자녀 수보다 많이 출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67). 이에 따라 사람들이 자녀를 이전보다 덜 낳으려는 욕구가 생겨났고, 동시에 국가적으로 추진된 가족계획정책이 이러한 욕구를 지원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나.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남아선호사상은 그 자체로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만을 낳으려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비로소 불균형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0년대 후반에는 첫 자녀가 아들일 경우보다 딸일 경우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았는데(박재빈·조남훈, 1984; Park, 1983), 이는 첫째가 딸일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해 추가 출산을 할 것이고, 추가 출산한 결과가 딸일 경우, 또다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출산하여 자녀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무작정 출산하는 것은 아니고, 1970년대 초반의 여성은 최대 6명의 자녀를 가질 때까지 출산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합계출산율 5.0대보다 1명을 더 낳는 수준에서 출산을 포기한다고 볼 수 있다(이성용, 2003).

그러나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한 출산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아들을 낳기 위해 무한정 출산을 지

속한다고 한다면 출생성비는 자연성비로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운수·최은선·차경준, 2008). 따라서 출생성비가 자연성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인위적인 수단으로 출산 행동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며, 태아 성 감별이 활발히 이루어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출생성비는 장기간 자연성비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김일현, 1990; 전효숙·서홍관, 2003).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의 결과에서는 임신 중 태아의 성을 검사해 본 경우가 1,308건 있었고, 이 중 아들이 709건, 딸이 598건으로 판명되었는데, 아들의 3.2%, 딸의 17.4%가 인공임신중절 시술로 임신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1995, pp.161).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건은 전체적인 출산 수준이 낮아져야 한 것이다. 즉, 강한 남아선호사상과 함께 소자녀관의 확산이 병행되어야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쉽다(김태현, 1993, Gu, B. & Roy K, 1995; Guilmoto, 2009). 예를 들어, 자녀를 여섯 명 가지려는 경우, 세 번째 및 네 번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도 이후에도 낳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녀를 두 명만 가지려고 할 경우, 첫 번째 자녀가 딸이면 앞으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태아의 성 감별을 통해 아들이면 낳는 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우에 출생성비 불균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강한 남아선호와 다자녀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출생아 수의 증가를 발생시킴에도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지만, 1980년대 이후 소자녀관이 정착되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한정된 자녀 수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려는 욕구로 말미암아 태아의 성 감별을 통한 출산이 확대되면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조남훈·서문희, 1994, pp.41).

제2절 출생성비 불균형의 인구사회학적 영향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인구의 성비 구조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① 재생산 연령대 남녀의 성비 불균형, ② 결혼 시장에서의 협상력 변화, ③ 결혼 비용 상승 등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재생산 연령대 남녀의 성비 불균형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녀 간의 결혼은 일부일처제, 즉 1:1 결합(monogamy)으로 이루어지므로 남녀의 수가 동일하고, 동일 나이에 결혼한다면 완전 결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결합에는 서로 간의 선호(preference), 취향(taste) 등이 존재하고, 동일 나이에서만 결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완전 결합은 달성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성비 자체로는 여아보다 남아가 많으므로 이러한 비율이 재생산 연령대에 이를 때까지 유지된다면, 결혼 성비의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고, 결합 수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Aker(1967)는 미국에서 1960년대 전후부터의 초혼 연령 상승 및 미혼율 증가가 나타난 이유를 결혼 성비 불균형으로 봤고,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을 대학 진학, 군입대,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소득 격차, 전쟁, 이주, 피임약과 IUCD의 도입으로 임신에 의한 갑작스러운 결혼 감소 등에서 찾았다. 기본적으로 결혼 성비 불균형은 결국 남성과 여성의 총인구수의 절대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관습으로 인하여 불균형이 발생한다.

1960년대 전후의 여성들은 두 살 많은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들이 출생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는 베이비 붐이 한창이었다. 이 시기 중 1946년 7월부터 1947년 6월 사이에는 190만 명의 여아가 태어났고, 1944년 7월부터 1945년 6월 사이에 태어난 남아는 150만 명에 불과하여, 산술적으로 보면 40만 명의 여성이 남편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베이비 붐 코호트 전체 여성의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여성들은 적당한 나이의 남성을 찾기 위해 결혼을 미룰 수 있고, 또는 나이가 적은 남자와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남녀로 짝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출생성비가 불균형인 상태에서 태어난 이들 중 몇몇은 남자아이들끼리 짝을 지었다. 남자들끼리 짝을 지은 아이 중에서 여자 짝을 갖고 싶은 남자 아이들은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큰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겠으나 이러한 남녀 부조화가 인격 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조남훈·서문희, 1994, pp.103). 또한, 당시의 출생성비 불균형이 앞으로 초래할 결혼 성비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1990년 당시 5~9세 남자아이들이 20년 후 현재 1~5세 여자아이 중에서 신붓감을 고른다고 가정하면 결혼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들의 예측으로 2010년의 신랑감과 신붓감의 성비는 129 수준으로 약 23%의 남성이 신부 부족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조남훈·서문희, 1994).

UNFPA APRO(2012)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에서 향후 2세대 이상에서 재생산 연령대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결혼 시뮬레이션의 결과 또한 양국 모두에서 2030년 이후에는 결혼하려는 미혼 남성의 수가 미혼 여성의 수보다 50~60% 정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Guilmoto(2012)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05~2100년의 출생성비 불균형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이 2020년도에 자연성비 정도로 돌아간다고 강하게 가정할 지라도, 50세 남성의 15%가 2055년까지 배우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의 경우, 2030년까지 3천만 명의 청년 남성들이 비자발적 미혼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처럼 결혼이 불가능한 초과 남성⁵⁾의 수로 인해 결혼 성비 불균형의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문제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과 인도의 연구들에 따르면 결혼 당시 남성과 여성의 연령 격차(age gap)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자신보다 사회적 계층이 높은 남성과의 결혼을 추구하는 현상(marry up)도 발생하고 있다(Kaur 2013; Kaur et. al. 2016). 결혼 당시 연령 격차 현상은 남성이 자신의 또래뿐만 아니라 더 어린 여성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혼 성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여성이 상위 계층과의 결혼을 추구하는 현상은 여성이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과의 결혼을 선호함으로써 결혼 성비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Das Gupta, Ebenstein & Sharygin, 2010) 또한, 여성들이 미래에 더 전망 있는 남성들과의 결혼을 선호하고, 필요에 따라 더 부유한 지역으로의 이동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저학력 남성들의 미혼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여성과 빈곤한 남성들이 결혼 성비 불균형에 의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유를 설명한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성비의 왜곡으로 인해 남성들이 지역 내 여성들과의 결혼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

5) 중국에서는 이들을 “bare-branches(헐벗은 나뭇가지)”로 지칭함.

제 수준이 낮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신부를 수입(importation)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UNFPA APRO 2012). 따라서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향후 중국의 미혼남성이 미얀마나 베트남 등의 이웃 국가에서 배우자를 찾는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모두 각각 6천 6백만 명과 4천 3백만 명의 거대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신부 공급이 미혼남성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UNFPA APRO 2012).

2. 결혼 시장의 협상력 변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로 가격이 결정되는 기제를 설명한다. 소위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 결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결혼 시장에서의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것이고,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결혼의 가격(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결혼의 가격(비용)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결혼 비용을 비롯하여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의 수고 및 노력, 상대방에 대한 행동 등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uttentag & Secord(1983)는 남녀의 성비가 서로의 협상력(dyadic power or bargaining powe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일 상대 성별에 비하여 작은 규모의 성별은 매우 다양한 상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해 덜 의존적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상대를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 성별에 비하여 큰 규모라면, 상대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상대방에 더욱 의존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학 관계가

성별 역할을 규정짓는 정도는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 즉 정치, 경제, 법률적 구조 및 사회적 관습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구조를 결혼 시장에 적용하면, 남성의 수가 적은 사회의 경우, 남성은 자신이 여러 여성들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당 여성과의 관계에 헌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매우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할 것이고 이내 헤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들이 결혼 시장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한, 여성들은 결혼을 주저하게 될 것이고, 전반적인 결혼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반면, 남성이 많은 결혼 시장에서는 결혼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더욱 책임감 있고 자상하게 행동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Angrist, 2002; Guttentag & Secord, 1983; Pedersen, 1991; Pollet & Nettle, 2008; 준 카르본·나오미 칸, 2016).

South & Trent(1988)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가진 압도적인 구조적 힘과 여성의 공급 부족이 높은 결혼율과 출산율, 그리고 낮은 이혼율과 사생아율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높은 성비는 여성의 역할을 제한 및 제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의 문해력과 노동시장 참여 수준은 낮은 성비 사회의 여성에 비해 낮고, 자살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여성의 상대적 공급 부족은 여성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보편적인 남아선호하에서도 결국 여성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 시장에서 가치를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신 또한 가치가 있는 일이므로, 딸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Edlund, 1999, pp.1095-1096).

3. 결혼 비용 상승

재생산 연령대 남녀의 성비 불균형은 실제 결혼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즉, 높은 성비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경쟁자보다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낮은 성비의 사회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인도에서는 결혼 시 신부 집안에서 신랑 집안으로 일정 정도의 부(wealth)가 이전되는 지참금(dowry) 문화가 결혼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참금은 주로 장신구, 비싼 옷들 및 기타 귀중품과 함께 신부 자체를 선물로 준다는 개념으로, 고대부터 이어진 힌두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액수의 크기는 양가 가족 간에 증매자를 통한 협상으로 결정되며, 신랑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랑의 지위가 높으면 더 많은 지참금을 요구하며, 신부 가족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참금은 전통적으로 자발적인 선물이었으나, 현대로 오면서 강요 및 강탈에 가까운 형태로 변질되어 오고 있으며, 지참금으로 인한 사건(신부를 화형하거나 자살을 교사하는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백좌흠, 2014, pp.141-142). 이렇다 보니 딸을 낳지 않고 아들을 낳는 것이 부부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 인도에서는 ‘결정하십시오! 지금 수백 루피를 쓰면 나중에 수백만 루피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라는 낙태 광고라든가(이은주, 2007, pp45), 실제 딸인 경우에 낙태하는 성 선택적 낙태도 매우 성행하고 있다(Bhalotra, Chakravarty & Gulesci, 2020).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참금을 동반하는 결혼은 1930년부터 1975년까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금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plunkar & Weaver, 2023), 현재도 지참금 결혼이 유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참금은 신랑 및 신부의 개인적 특성, 예를 들어, 교육 수준, 키(height) 등의 요인보다 부모가 소유한 토지(재산)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이외에 재생산 연령대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지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ao, 1993). 딸의 입장에서는 지참금을 유산 상속을 먼저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결혼 후 신부는 지참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유산으로서의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정채성, 2009, pp.36).

우리나라는 인도와 같이 결혼 시 지참금을 주고받는 제도가 없지만, 예로부터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고, 신부가 가전·가구 등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그러한 관습이 존재한다. 인도에서 결혼 성비 불균형이 지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성비의 불균형이 신랑 신부의 결혼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결혼 성비 불균형 지표 및 생애 미혼율 장래 추계

1. 결혼 성비 불균형 지표

결혼 성비 불균형 지표와 관련하여 Aker(1967)의 연구는 가장 초기의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인구 조사의 결함(deficiency)⁶⁾으로 인하

6) 당시 국립 보건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는 미국의 총 결혼 건수를 발표했지만, 연령 등의 특성은 결혼 등록 지역(Marriage Registration Area)에 서만 작성되어, 해당 지역의 결혼 패턴은 국가 전체로 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이 있었음. 또한, 인구 조사국(Current Population Survey)은 현재 인구 조사에서 결혼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지만, 샘플링 변동성(variability)으로 인해 연도 간에 불일치가 있다는 결함이 존재하였음(Aker, 1967, p.909).

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1959~1964년의 재생산 연령대 남녀 인구 비율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까지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먼저 해당 기간의 성별 및 연령별 미혼 비율과 연평균 초혼율(annual first marriage rates)을 추정하였고, 성별 및 연령별 미혼인구에 앞서 도출된 초혼율과 재혼율⁷⁾을 곱하여 신랑(groom), 신부(brid)의 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앞서 도출된 초혼율과 미혼율을 실제 수치와 비교하여 적절성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결혼 성비 불균형 수치를 보면, 1950년에 104명였으나, 1965년에는 91명으로 감소하여 해당 연도의 여성 100명 중 9명은 남편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결혼 성비는 이후 198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5명에 도달하나, 90년대 중반에 93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00년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100명 이하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Musham(1974)은 특정 결혼 연령 조합 (x, y)에 있어서 남성의 미혼 인구와 앞으로 결혼 예정이 있는 인구로 나눈 값이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여성의 수치와 같은 경우를 일치 조건(consistency condition)으로 하여 이것을 만족하지 않을 때에 결혼 성비 불균형 상황에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2-1)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U_{xt} \frac{m_{xy0}}{U_{x0}} = V_{xt} \frac{m_{xy0}}{V_{y0}} \quad (2-1)$$

여기에서 U는 미혼 인구, x는 x세 남성, y는 y세 여성, m은 혼인 건수, t는 연도를 나타낸다. 상기 식의 수치 결과와 모달 등고선(modile con-

7) 1960년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혼율.

tour lines)을 이용하여 호주의 남성 초과 지역과 여성 초과 지역을 표시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재생산 연령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Schoen(1983)은 인구 통계학에서 오랫동안 논의의 중심이었던 양성 문제(two-sex problem)로 인하여 결혼 관련 지표의 정의 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x세에 y세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수가 y세에 x세의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Musham(1974)이 도출한 (2-1)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Schoen(1983)은 이를 조금 변형시켜 (2-2)식과 같이 유도하였다.

$${}^m W(x_n, y_n) + {}^f W(x_n, y_n) = {}^m w(x_n, y_n) + {}^f w(x_n, y_n) \quad (2-2)$$

여기에서 ${}^m W$ 와 ${}^f W$ 는 각각 x에서 x+n세의 남성, y세에서 y+n세 여성 간에 관찰된 혼인율(marriage rate)을 나타내고, ${}^m w$ 와 ${}^f w$ 는 특정 연령대의 혼인율을 나타낸다. 즉, (2-2)식은 전체 연령 범위에서의 혼인율의 합이 특정 연령대의 혼인율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w 와 W 가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의미상으로 Musham(1974)의 (2-1)식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비율로 계산한다는 점과 비율의 도출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Schoen(1983)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산식을 도출하였다.

$$S = \frac{{}^m l_0^w - {}^f l_0^w}{{}^m f l_0^w}, \quad R = \frac{{}^m l_0^w + {}^f l_0^w}{2 {}^m f l_0^w}, \quad Q = \frac{2 {}^m f l_0^w - ({}^m l_0^w + {}^f l_0^w)}{{}^m l_0^w + {}^f l_0^w} \quad (2-3)$$

여기에서 ${}^{mf}l_0^w$ 는 총 결혼 건수, ${}^ml_0^w$ 는 남성의 결혼 건수, ${}^fl_0^w$ 는 여성의 결혼 건수를 나타내며, S 지표는 남성의 결혼 건수에서 여성의 결혼 건수를 차감한 것을 총 결혼 건수로 나눈 값으로, 만일 (2-2)식을 만족한다면 S 지표는 0이 되어 결혼 성비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S 값이 양(+)의 값이면 여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 음(-)의 값이면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R 지표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 건수를 총 결혼 건수의 2배로 나눈 값으로, 연령 및 성별 구성이 성별 간 불균형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 건수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Q 지표는 결혼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lost) 결혼 건수를 나타내며, R 지표보다 Q 지표가 더욱 이해하기 쉬운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S 지표만을 산출하도록 한다.

지표 산출을 위해서 식(2-3)은 식(2-4)와 같이 변환할 수 있다. 여기에서 γ 는 여성의 연령별 초혼 생명표상에 나타난 생애 미혼율, β 는 남성의 연령별 초혼 생명표 상에 나타난 생애 미혼율, x세 남성과 y세 여성의 초혼 건수는 $c(x, y)$, x세의 연앙 미혼 남성 인구를 mp_x , y세 연앙 미혼 여성인구를 fp_y 로 하면, 생애 미혼율은 여성이 식(2-5), 남성은 식(2-6)으로 표현할 수 있다.

$$S = \frac{\gamma - \beta}{1 - \sqrt{\gamma \cdot \beta}} \quad (2-4)$$

$$\gamma = \exp\left(-\sum_{y=15}^w {}^fW(\cdot, y)\right) = \exp\left(-\sum_{y=15}^w \frac{\sum_{x=15}^w c(x, y)}{{}^fp_y}\right) \quad (2-5)$$

$$\beta = \exp\left(-\sum_{y=15}^w \int W(x, y)\right) = \exp\left(-\sum_{x=15}^w \frac{\sum_{y=15}^w c(x, y)}{m p_x}\right) \quad (2-6)$$

여성의 재생산 연령 상한을 보통 49세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omega=49$ 라고 하면, S 지표의 분모 $(1 - \sqrt{\gamma \cdot \beta})$ 는 결혼 성비의 불균형이 없는 경우의 50세 기혼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남녀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1-\beta$ 는 남성의 초혼 생명표 상에 나타난 50세 기혼율, $1-\gamma$ 는 여성의 초혼 생명표상에 나타난 50세 기혼율을 측정한다. 따라서 남성의 50세 기혼율이 여성보다 작은 $1-\beta < 1-\gamma$ 일 때 $S < 0$ 이 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 < 0$ 은 미혼남성에게 결혼 성비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S (< 0)$ 의 음수 값이 클수록 남성의 결혼 성비에서 불균형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S > 0$ 이면 미혼여성에게 결혼 성비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고 $S (> 0)$ 의 크기는 여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 크기를 측정한다.

S 지표의 산출에는 ① 미혼 남녀의 연령별 연앙인구(초혼율 ${}^f W(\cdot, y)$ 및 ${}^m W(x, \cdot)$ 의 분모), ② 초혼 부부의 만 15~49세 연령 조합별 역년별(1~12월의 1년간) 초혼 건수(초혼율 ${}^f W(\cdot, y)$ 및 ${}^m W(x, \cdot)$ 의 분자)가 필요하다. S 지표는 초혼 생명표를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지표를 산출하는 역년에 15~49세 연령의 미혼자 수와 초혼 건수가 있어야 하고, 15~49세의 모든 연령의 미혼자 수와 초혼 건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우선 분모인 미혼인구는 인구센서스 조사 실시 시점(일본은 10월 1일, 한국은 11월 1일)의 만 연령별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인구센서스 간의 매년 연앙(7월 1일) 시점의 미혼인구 조사 시 만 연령의 출생월별의 출생 코호트별로 추계(내삽)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여성)의 경우를 예로 들면, t-5년 10월 1일 인구센서스에서의 y-5세 미혼 인구와 t년 10월 1일 인구센서스에서의 y세 미혼인구 사이에는 식(2-7)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⁸⁾

$${}^fP_y^t = P_{y-5}^{t-5} - \sum_{\tau=t-5.10}^{t.9} [M(\tau, \tau-y) + D(\tau, \tau-y)] + \Delta \quad (2-7)$$

단, ${}^fP_{y-5}^{t-5}$ 는 t-5년 10월 인구센서스의 y-5세 미혼 인구, ${}^fP_y^t$ 는 t년 10월 인구센서스의 y세 미혼 인구, $M(\tau, \tau-y)$ 는 월별(τ) 출생 코호트(t-5년 10월 1일에 y-5세)의 초혼 신고 수, $D(\tau, \tau-y)$ 는 해당 출생 코호트의 월별 연령별 미혼 사망 수, Δ 는 해당 출생 코호트의 t-5년 10월 1일부터 t년 9월 30일의 미혼자 전입 초과 수(센서스 간 순이동)을 나타낸다. 미혼 연앙 인구 추계가 필요한 시점은 t-4년 7월 1일, t-3년 7월 1일, ..., t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먼저 식(2-7)에서 t-5년 10월부터 t년 9월의 미혼 전입 초과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각 추계 기간에 대응하는 출생 코호트별로 초혼 신고 수와 미혼 사망 수를 이용하여 연앙 현재 미혼 인구를 산출하였다(식(2-7-1)~식(2-7-5)).

8) 식(3-4) $M(\tau, \tau-y)$ 및 $D(\tau, \tau-y)$ 는 신고 월별, 부부 출생 월별 인구 동태 통계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집계한 수치이며, 혼인 신고 시의 만 월령별 집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대상 코호트는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에 만 20세라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생과 같이 12개월의 출생 월 코호트로 구성되어, t-5년 10월부터 t년 9월의 각 월에 있어서의 만 월령도 변화하지만(다만, 월별 레시스 집계가 필요) 간략한 표기를 이용하였음. 단, 한국의 인구 동태 통계에서는 부부의 출생 연월을 직접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 연월일과 결혼 연월일 현재의 결혼 연령(소수점 이하에 생일부터 결혼일까지의 경과 일수 포함)에서 역산한 출생 연월일의 분포를 이용하였음(최대 약 2개월의 범위가 역산되지만, 이 기간의 출생 연월일 분포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f P_y^{t-4.7.1} = P_{y-5}^{t-5.10.1} - \sum_{\tau=t-5.10}^{t-4.6} [M(\tau, \tau-y) + D(\tau, \tau-y)] + \frac{9}{60} \hat{\Delta} \quad (2-7-1)$$

$${}^f P_y^{t-3.7.1} = P_{y-5}^{t-5.10.1} - \sum_{\tau=t-5.10}^{t-3.6} [M(\tau, \tau-y) + D(\tau, \tau-y)] + \frac{21}{60} \hat{\Delta} \quad (2-7-2)$$

$${}^f P_y^{t-2.7.1} = P_{y-5}^{t-5.10.1} - \sum_{\tau=t-5.10}^{t-2.6} [M(\tau, \tau-y) + D(\tau, \tau-y)] + \frac{33}{60} \hat{\Delta} \quad (2-7-3)$$

$${}^f P_y^{t-1.7.1} = P_{y-5}^{t-5.10.1} - \sum_{\tau=t-5.10}^{t-1.6} [M(\tau, \tau-y) + D(\tau, \tau-y)] + \frac{45}{60} \hat{\Delta} \quad (2-7-4)$$

$${}^f P_y^{t.7.1} = P_{y-5}^{t-5.10.1} - \sum_{\tau=t-5.10}^{t.6} [M(\tau, \tau-y) + D(\tau, \tau-y)] + \frac{57}{60} \hat{\Delta} \quad (2-7-5)$$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10월 1일 현재 만 연령별 출생 코호트별 미혼 인구가 추계되기 때문에, 연앙(7월 1일) 시점의 만 연령은 x-1세 9개월(이 된 직후)에서 만 x세 8개월(이 끝나기 직전)인 연령 구분으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는 11월 1일 현재 만 연령별로 미혼 인구가 추계되기 때문에, 연앙(7월 1일) 시점의 만 연령은 x-1세 8개월(이 된 직후)에서 만 x세 7개월(이 끝나기 직전)로 구분된다. S 지표의 분자인 만 연령별 초혼 건수의 연령 구분은 S 지표 산출의 분모 인구와 동일해야 하므로, 분모와 동일한 연령 구분으로 부부의 만 연령별로 역년(calendar year)의 초혼 건수를 집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9년 이전 출생 연월별 초혼 수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미혼 연앙 인구 추계는 불가능하며, 또한 분자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출생연도(1~12월 출생) 코호트별 신고 시 만 연령별 초혼 건수이다. 여기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 인구센서스에 따른 11월 1일 현재 만 연령의 미혼 인구의 연령을 출생연도별로 재조합하여 초혼을 산출 시 분모로 이용하고, 분자인 초혼 건수는 분모에 맞추어 인구센서스를 끼워 넣는 5월부터 다음 해 4월에 대하여 집계한 것을 이용하

였다.⁹⁾ 한국의 1990년 초혼율은 분자인 1990년 인구 동태 통계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90년 인구센서스의 연령을 재조합한 인구를 분모로 삼고, 분자에는 1991년 1~12월 출생연도 코호트별 신고 시 만 연령별 초혼 건수를 이용하였다.

지역 구분은 한국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따른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1985년 시점의 영역¹⁰⁾을 기준으로 2020년 현재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 포함하였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동서남북과 홋카이도, 동북 지방 등의 9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동서남북 4개 지역 중 북쪽 지역은 홋카이도를 포함한 아오모리현 등의 지역, 남쪽은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 서쪽 지역은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을 포함한 지역, 남쪽은 나가사키현과 후쿠오카현 등의 큐슈 지방을 포함한다. 9개 지역은 홋카이도 지역,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동북지방,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포함한 관동지방, 아이치현, 아마나시현을 포함한 중부지방, 오사카부, 교토부를 포함한 킨

9) 초혼율의 분모가 t년 11월 1일 현재 만 연령별 인구이므로(만 x세에는 t+1년 1월 1일 현재 만 x세 2개월부터 x+1세 2개월 포함) (1) 출생일 분포는 동일하며, (2) 월령별 미혼율의 만 x세에 있어서의 $[x-0.5, x+0.5]$ 구간의 선형 변화를 가정하고, t년 11월 1일 시점의 연령별 미혼율을 출생연도(1~12월 출생)별로 재조합 함(11월 1일 현재 연령 x세의 미혼율을 $r(x)$, $[x, x+1]$ 세 인구의 미혼율을 $R(x)$ 로 적으면 $r(x) + R(x-1) + (R(x-1) + R(x))/2$ 이며, 이와 동시에 $r(x+0.5) = R(x)$, 1월 1일 현재 $[x, x+1]$ 세 인구의 미혼율은

$$R(x-1) \left(\sum_{m=10}^{11} (\gamma(x-1) + m/12) + \gamma(x-1 + (m+1)/12) \right) / 2 \dots$$

중앙 초혼율 분자는

t년 11월 1일이 정확히 연앙이 되는 t년 5월 1일부터 t+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의 초혼 수라고 하면, 분모와 동일한 연령 구분(만 연령)에 의해 분자 및 분모가 정합한 비율을 산출할 수 있음.

10) 따라서 지표 산출 지역은 대한민국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광역시), 대구직할시(광역시), 인천직할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특별자치도)임.

키지방, 히로시마현, 시마네현을 포함한 추고쿠·시코쿠 지방, 후쿠오카현,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규슈·오키나와 지방으로 분류하였다.

2. 생애 미혼율 장래 추계

생애 미혼율이란 50세의 미혼율로 정의되며, 이 연구에서는 50세 미혼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추계한다. 50세 미혼율의 장래 추계는 남녀 및 지역별로 1985년부터 2021년까지 각 세별 미혼율의 시계열 변화 패턴을 Lee-Carter 모델(Lee and Carter, 1992)로 추계한다. Lee-Carter 모델은 연령별 인구학적 비율의 시계열 변화 패턴 분석에 이용되는 국제표준 모델로, 국제연합이나 각국 정부 기관이 실시하는 공식 장래인구추계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남녀 각 세별 미혼율은 1985년 이후 5년마다 실시된 인구센서스 결과를 출생 연도별 미혼자 수로 재조합한¹¹⁾ 것과 Schoen(1983)의 S지표 산출을 위해 실시한 미혼 남녀의 각 세별 중앙 인구에 대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의 추계 결과를 이용하였다. 추계는 남녀 및 지역별로 1985년부터 5년마다 2010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년(17년)의 기간에 대하여 15세부터 54세(40구분)의 미혼율에 대하여 Lee-Carter 모델을 적용하였다. Lee-Carter 모델은 식(2-8)으로 나타난다.

11)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11월 1일 현재 만 연령별 미혼자 수를 생년별로 재조합하는 연령 재조합은 ① 출생 월 분포가 동일하다는 것, ② 연령 $[x - 0.5, x + 0.5)$ 구간의 월령(月齡)별 미혼율은 선형적 변화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했음.

$$\ln(d_x^t) = a_x + k_t b_x + \epsilon_x^t \quad (2-8)$$

여기서 $\ln(\cdot)$ 는 자연 로그 함수, a_x 는 표본 미혼율의 평균 연령 스케줄, ϵ_x^t 은 평균 0의 잔차, k_t 는 미혼 수준의 기간 변동을 나타내는 '미혼지수', b_x 는 사망 기간 변동이 각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이러한 파라미터는 표본 로그 미혼율의 평균으로부터 차이에 특이치 분해를 실시하고, 제1 특이치에 관련된 항으로부터 식(2-9)로 추정된다.

$$\begin{aligned} A &= UQV \\ b_x &= (V_{1,\cdot} \cdot 1_{x,1})^{-1} V_{1,\cdot} \\ k_t &= U_{\cdot,1} (1_{x,1} V_{1,\cdot})^{-1} q_1 \end{aligned} \quad (2-9)$$

단, 추정에 사용하는 연차 수를 T, 연령 계급수를 X로 했을 때, A는 $\ln(d_x^t) - a_x$ 를 t행 n열의 요소로 삼는 T×X의 행렬, U는 T×X의 좌측 특이 벡터로 이루어지는 행렬, V는 X×X의 우측 특이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 Q는 특이치를 대각 요소로 갖는 X×X의 특이 행렬이며, $V_{1,\cdot}$ 은 V의 1행째에 대응하는 X행 벡터, $U_{\cdot,1}$ 은 U의 1열째에 대응하는 T열 벡터, $1_{x,1}$ 은 X개의 1로 이루어진 X열 벡터이다.

제4절 출생성비 불균형의 국외 사례

우리나라의 출생성비 불균형을 발생시킨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남아선호사상은 과거 주나라 등의 현재 중국 지역에서 존재했었으므로 현재 중국의 남아선호사상 및 출생성비 불균형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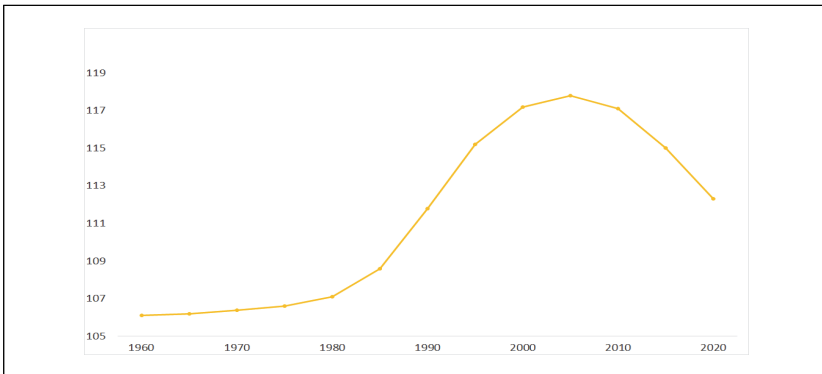
의 출생성비 불균형 및 남아선호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이외에 성비 불균형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려 한다.

1.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

가.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 현황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의 문제는 1980년대 초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는 110명을 초과하였고, 2004년에는 전례 없는 121명을 기록하기도 하였다(UNFPA, 2016).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제 파트너 및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출생성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개입 방안들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은 2004년에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1). 그러나 현재의 출생성비도 110명을 넘어 자연성비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2-1] 중국의 출생성비 추이: 1960~2020년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BRTH.MF?locations=CN&most_recent_value_desc=false)에서 필자 직접 작성.

중국 출생성비의 불균형의 특징은 출생순위(parity)와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첫째 자녀보다 둘째 자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셋째 자녀의 불균형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UNFPA, 2007). 그러나 2010년도 제6차 인구센서스에서는 첫째 자녀의 출생성비가 증가하였으나, 둘째 자녀의 출생성비가 감소하였고, 이후 셋째 자녀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i, Shang & Feldman, 2013). 첫째 자녀의 출생성비는 1982년 106.5명에서, 1990년과 2000년에는 각각 105.4명과 107.1명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113.7명까지 증가하였다(UNFPA 2016). 이러한 불균형은 모든 지방의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에서 나타났다.

2.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 원인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중국 사회 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남아선호사상 위에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아제한정책(한 자녀 정책)이 더해지면서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가치관적 측면(남아선호)

중국 전국시대의 유교학자 맹자(기원전 403-221 BC)는 가문의 상속자, 즉,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불효 중 하나라고 하였다(Lu, N., Jiang, N., Lou, V. W., Zeng, Y., & Liu, M., 2018; Matthews & Rosner, 1988; Zhao 1997, Matthews, 1995). 널리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 아래 발전한 가부장 사회이며, 가부

장제와 남아선호사상은 유교의 가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이다 (Burgess & Zhuang, 2002).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Arnold and Liu 1986)”라는 가치관은 가족, 지역 공동체, 사회, 중국 전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남성의 우월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Burgess & Zhuang, 2002).

이러한 가부장제로부터 생겨난 믿음 중 하나가 바로 아들을 통해서만 가문(family line)을 이을 수 있다는 사고이다. 중국 역사의 여러 왕조에 서도 오직 남성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며(Burgess & Zhuang, 2002), 다른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이름(성)을 통해 가문이 이어졌는데, 이러한 관습이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Xue et al., 2017), 따라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은 가족의 행복을 넘어 가문의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였다(Chen & Jordan, 2018; Ji, 2017). 반면, 중국의 여성들은 남편 성을 따르고, 자신의 성을 자손들에게 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문을 계승하여 잇는 역할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습 아래 거듭되어 내려온 아들에 대한 선호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urgess & Zhuang, 2002; Zuo, 2009).

중국은 농업 문명의 발달에 기반하여 세워진 국가이며, 20세기 중반이 되기 전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농경사회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에 비해 우월한 남성의 힘은 농경사회의 활동에서 언제나 남성이 중심이 되게 하였고, 아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Burgess & Zhuang, 2002, Jiang, Lou & Lu, 2018; Lin & Chen, 2018; Zuo, 2009).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산업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고 여성

들의 지위가 상승했음에도, 현재도 여성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남성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949년 공산정부가 실권을 잡은 후,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예를 들어, 혼인법에는 여성이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수차례의 문화운동 기간 동안 남성 가부장제는 다른 유교적 가치와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은 공적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받았으며, 민간 및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승진, 급여 등에서 남녀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분위기는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받친다”고 했던 마오쩌둥 주석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서의 남녀평등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여전히 남아와 여아 사이의 교육 격차가 존재하며(Wang et al., 2020) 동등한 교육 수준과 연령일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Chen, 2015; Cai & Cheng, 2014; Ministry of Health, 2013). 더욱이 남성과 다르게 여성들은 결혼, 가사, 자녀 양육 등에 의해 경력 측면에서 손실을 입으며(Hu & Peng, 2015; Lei, 2013; Li, Long, Essex., Sui & Gao, L., 2012), 과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은 여성보다 남성을 더 선호한다(Zhang, Yu & Zhang, 2021; Zhang & Lu, 2019; Zhang & Lu, 2020; Zhang & Jiang, 2019).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들 역시 중국 사회에서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모에 대한 노후 부양은 아들의 몫이라는 관념과 이를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사고 또한 남아선호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Burgess & Zhuang, 2002; Wang, 2005; Jia et al., 2014; Matthews, 2002; Chen & Jordan, 2018; Lu, 2018). 수천 년의 중국 역사 대부분

의 기간 동안 노인을 위한 사회 차원의 공식적 지원이 부재하였으며 (Burgess & Zhuang, 2002), 딸은 결혼 후에는 길러준 가족을 떠나 시댁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기에(Greenhalgh, 1992), 아들은 부모의 유일한 부양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더 많은 아들은 더 많은 복과 번영이다”, “아들을 낳아 노년에 보살핌을 받자”, “결혼한 딸은 쏘아진 물과 같다” 등의 표현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Burgess & Zhuang, 2002). 중국의 농촌지역에서는 현재도 노인에 대한 보험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그들의 자녀를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아들을 통해 부모를 부양한다는 전통적 개념이 유지되고 있다(Zhang et al., 2022).

나. 인구정책적 측면

Ding & Hesketh(2006)와 같은 학자들은 1979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출생성비 불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중국 처럼 남아선호사상이 뚜렷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자녀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부부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어떠한 벌금이나 비용도 기꺼이 지불하려 하였으며, 더불어 자녀의 성 선택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이를 이유로 한 낙태가 증가하였고, 그것이 혼한 현상이 되었다(익명의 중국 청와대 교수 인터뷰, 2021; Zhang et al., 2022에서 재인용).

2010년 중국의 제6차 인구센서스의 결과는 중국에서 심각한 고령화의 위기와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부부들을 대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15년에는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0년 제7차 인구

센서스의 결과, 여전히 인구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의 추세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부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세 자녀 정책을 공표하고, 이에 더해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 또한 연이어 발표하였다(Zhang, et al., 2022).

다. 의료적 측면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도에 수립되기 전까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마오쩌둥의 집권 시기(1949~1976)에 들어서는 중국 정부의 출산장려 기조 아래 인공임신중절은 금지되었다(Cao, 2015).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초과 인구는 중국의 발전에 해를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산아제한으로 인구정책의 기조가 급격히 바뀌면서, 앞서 언급한 한 자녀 정책의 기조하에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금지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Cao, 2015).

1979년부터 시행된 강력한 산아정책은 부부들로 하여금 하나의 아들이라도 얻기 위해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공임신중절 서비스가 산아 제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수단이 되었고(Eklund & Purewal, 2017),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는 성 감별 등의 의료 기술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1982년에 초음파 B(ultrasound B) 기술이 중국에 소개되어 급격히 퍼져나갔다.

당시 중국의 부부들은 아들을 갖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아들을 낳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Zhang et al., 2022). 초음파를 이

용하여 태아의 성별을 구분하고, 아들을 임신하기 전까지 딸을 낙태하는 일이 쉽고 빈번하게 발생하였다(Zeng et al., 1993; Zhang et al., 2022; 제나, 2017). 이로 인해 1982년 이전까지 106명 정도로 유지되었던 출생성비는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즉, 남아선호사상이 보편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 자녀 정책이 국가 기본정책으로 채택되고, 성 감별 및 인공 중절 등과 같은 기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출생성비가 급격히 불균형해진 것이다(Zeng et al., 1993; 제나, 2017).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지방정부와의 협력하에 성 감별 초음파 검사와 성 선택(sex selection)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을 “두 가지 불법행위”¹²⁾로 규정하였다(UNFPA, 2018a. Zhang et al., 2022). 그러나 최근까지도 성 선택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데, 출생성비가 112.1명을 기록했던 2017년에는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이 16.2%를 기록했고, 성 선택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은 11.0%에 달했다. 2019년 호주의 La Trobe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중국 여성들이 태아의 성 감별을 위해 호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딸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익명의 중국 청와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2021; Zhang et al., 202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Ebenstein & Leung(2010) 등의 학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강력한 남아선호사상 위에 중국 정부의 강제적 출생 제한 조치가 더해져 부모들이 출산에 있어 성별을 선택하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Guilmoto(2009) 및 UNFPA(2018a)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앞서 살펴본 강력한 남

12) “두 가지 불법행위”는 불법적인 태아의 성별 검사와 성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적 불법 낙태수술을 의미함.

아선호사상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상황에서, 출산 제한 조치와 같은 요인들은 자녀의 성 선택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이와 함께 자녀의 성(sex)을 선택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도입된 상황에서 젠더 편향적 성 선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3. 최근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 및 중국 정부의 대응

가. 여전히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

사실상 자녀 수 제한 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중국 사회 내에서 경제나 정책적인 요인들보다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문화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선호의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Zhang et al.(2022)은 중국 통계청, 국가보건위원회(the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사회부(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가 개발 및 개혁 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7차 인구센서스에 참여한 전국 31개 지방의 3,100명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평가(An Assessment of Male Preference in China)'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최초의 실증연구였다.

그 결과, 결혼한 딸은 더 이상 처가가 아닌 시가의 일원이라는 사고 방식과 아들이 부모의 노후를 보살피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 그리고 남아를 통해 가문의 대업과 가족의 사업을 이어야 한다는 사고가 중국 사

회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지역 변수는 남아선호사상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유교 및 가부장적 가치관이 중국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을 유지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국 사회 전반에 지속되고 있는 남성에 대한 선호는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을 이해할 때 정책적 요인과 더불어 유교의 영향 등 사회문화적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나. 자녀 양육비용 상승

중국 사회에 있어서 자녀 양육비용의 상승은 한 자녀 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첫째 자녀로 남아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이 증가할 때, 각 가정에서는 자녀의 수를 줄이고 소수의 자녀에게 자원을 집중하여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Becker & Lewis, 1973).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중국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더라도 여성들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대우는 남성에 비하여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Chen, 2015; Cai & Cheng, 2014; Ministry of Health, 2013), 결혼 후 가정생활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의 불이익도 경험하고 있다(Hu & Peng, 2015; Lei, 2013; Li et al., 2012). 이로 인하여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상황에서도 중국의 부모들은 여전히 적은 자녀 수를 선호하게 되며, 그 자녀가 아들이기를 바라게 된다고 볼 수 있다(UNFPA, 2018a).

다. 중국 정부의 대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젠더 편향적 성 선택과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대에 들어 출생아 수 제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일정 조건이 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2015년에는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0년 제7차 인구 센서스의 결과 여전히 인구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의 추세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부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세 자녀 정책을 공표하고, 이에 더해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 또한 연이어 발표하였다 (Zhang, et al., 2022).

더불어 2000년 이후로 ‘2+2+1’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 하에 성 감별 초음파 검사와 성 선택(sex selection)을 위한 낙태를 ‘두 가지 불법행위’로 규정하도록 법을 수정하고 있다. 왜곡된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은 2006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Communiqué of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와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인구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에 관한 결정 (Decision on Fully Enhancing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me and Comprehensively Addressing Population Issues)’을 공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해 국무원은 ‘소녀들을 아끼자(Care for Girls)’라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사회 내에서 딸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 자녀들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소녀들을 아끼자’ 정책은 ‘2+2+1’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Li, Shang & Feldman, 2013).

‘2+2+1’ 거버넌스 모델은 데이터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제12차 국가 가족계획 및 개발 5개년 계획(the 12th Five-Year Plan (2010-2015) for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Development)하에 2015년까지 출생성비 불균형을 115명까지 낮춘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 후, 국가 인구 및 가족계획 위원회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는 정부 부처가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협치 모델은 출생성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주목할 만한 진전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 첫째, 출생성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은 중국 정부 내의 여러 부처와 수준(상위 및 하위 기관) 사이에서 매우 파편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출생성비를 줄이기 위한 사회정책 관리는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협력을 요한다. 더욱이 해당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정책의 개선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Li, Shang & Feldman, 2013).

둘째, “소녀들을 아끼자” 협력 모델은 현존하는 법과 정책 그리고 지역에서의 집행(practices)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 집행에서의 핵심 동인인 성평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무관심하다. 예를 들어 성 차별적인 관습법과 규례들은 여성들의 자산 및 토지 상속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서의 남아 선호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Li 2015; Du, Li & Liang 2015).

셋째, “소녀들을 아끼자” 캠페인이 주로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들에 집중하는 데 비해 그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들의 해소에 대한 노력은 부재

한 상황이다(Li, Shang and Feldman, 2013). 예를 들어, 미혼 남성들의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남성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야기되는 여성들의 잠재적인 취약성 증가 등에 대한 대안도 관련 정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넷째로, 출생성비 불균형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IPDS, 2014). 가족계획부, 보건부, 공공 안전부, 교육부 등에서 관리하는 출생성비 불균형에 관한 행정 데이터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대규모 인구 이동에 대한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더하여 엄밀한 성과 평가 역시 보고된 출생성비 불균형 데이터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과 평가의 목표치를 맞추고자 불균형의 수준을 줄여서 보고한다거나, 그 외에도 다양한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출생성비 불균형의 수치를 추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수단들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리더십과 관리가 “소녀들을 아끼자” 캠페인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시민단체, 학계 사이의 협력을 이끌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Zheng, 2012).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 불균형의 해소는 주로 보건 및 가족 계획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여성 운동가 집단, 사회 서비스, 교육, 민사 관련 부처 등의 상위 부처 및 광범위한 섹터들과의 협력이 부족하였다. HIV/AIDS 관련 부처가 국무원(state council) 산하에 있는 것과 다르게,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는 여전히 보건 및 가족 계획 위원회(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의 산하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과 참여

를 이끌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Zheng, 2012). 더불어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 지역사회 참여자 등의 인식에 있어서도 남아에 대한 선호를 바꿀 필요가 있다(Li, 2007). “최상위 부처의 적절한 지원과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가 없으면 이러한 노력은 효과가 떨어질 것이며, 지속가능성도 낮을 것이다(Zheng, 2012)”.

긍정적인 점은 2014년 열린 제18차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제3차 전체 회의에서는 이전에 사용되던 “사회 관리(social management)”라는 용어 대신 “사회적 협치(social governanc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변화는 사회 분야와 공공 서비스 분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개입과 파트너십의 기회의 창을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 12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는 2016년 1월부터 모든 중국의 기혼 부부들이 두 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2013년도의 출산 정책 수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행동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을 완전히 따르는 방향으로의 큰 전환을 의미한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와 인구 및 가족계획 위원회(The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는 2013년 보건 및 가족계획 위원회(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NHFPC)로 합병되면서 가족 개발 및 보건 부처 내에서 출생성비 불균형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부의 신생아 실명 등록 시스템이 국가 정책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출생성비 불균형, 인구 성장 등 다양한 데이터의 실시간 확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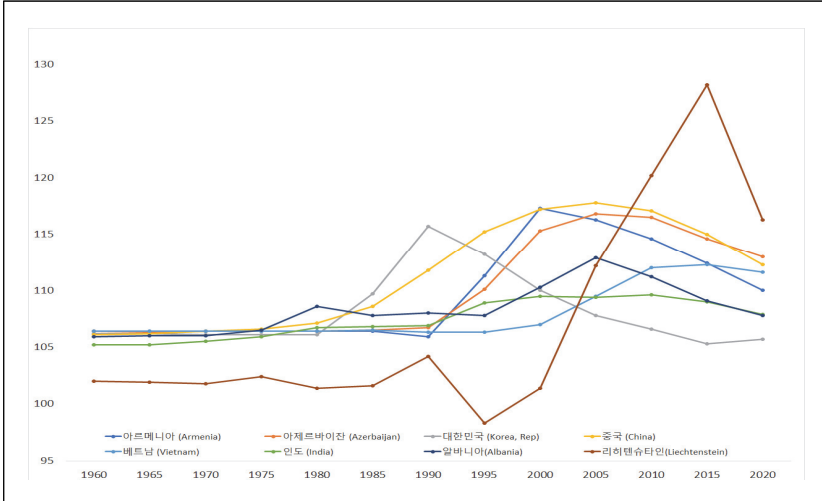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출생성비 불균형의 경향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성 편향적 성 선택을 막고,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IPDS 2014; Li, Shang and Feldman, 2013).

출생성비 불균형의 문제는 아동 개발 10개년 프로그램(Th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011-2020)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다뤄졌다. 사실상 2011년 이후부터 중국 정부는 심각한 출생성비 불균형의 해소를 국가 개발 전략에서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보건 및 가족 계획 위원회가 발표한 2016~2020 제13차 국가 가족계획 개발 계획(The 13th Five-Year National Family Planning Development Plan, 2016-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은 11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그 외 출생성비 불균형 발생 국가

이러한 출생성비 불균형은 비단 우리나라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지역 국가들에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uilmoto, 2009; UNFPA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Office, 2012).

[그림 2-2] 각국의 출생성비 추이: 1960~2020년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BRTH.MF?locations=CN&most_recent_value_desc=false)에서 필자 직접 작성.

이러한 출생성비의 불균형 경향은 시기에 따라 지리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데, 1980년대 아시아 국가들(한국, 중국, 인도)에서 시작된 현상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베트남 등의 국가로 이어지고 있다.

위의 [그림 2-2]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수집한 각국의 출생성비 자료에서 출생성비가 110명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연도별 출생성비의 변화를 추출하여 보여주고 있다. 위의 국가들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Guilmoto(2009)가 제시한 세 가지 선제조건들, 즉,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출산율의 감소, 성 선택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들 외에도 해당 국가들은 출생성비 불균형의 공통적 원인을 공유하는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 국가로서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에서의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유교의 남존여비,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로,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¹³⁾

다음 그룹은 과거 공산권 국가들로, 아르메니아(구 소비에트 연방), 아제르바이잔(구 소비에트 연방), 알바니아(구 유고슬라비아)가 뚜렷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보였다. 이 국가들에서는 이미 공산정권 시절부터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국가에서 보건 서비스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UNFPA, 2012, 2014; Guilмотo, 2013). 이에 더하여 사회문화적으로도 가부장제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닌 국가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공산권이 해체되면서, 기존의 국가기관과 사회서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새롭게 맞이한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혼란기를 겪었다(UNFPA, 2014; Guilмотo, 2013).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은 가장 핵심이 되는 집단이었고,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남성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어갔다. 이와 함께 경제 위기로 더 이상 다자녀 양육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미 공산권 시절부터 널리 보급되었던 태아의 성 감별 기술과 인공임신중절 기술을 이용한 성 선택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 지금까지도 아제르바이잔은 전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UNFPA, 2014).

한편, 인도는 타 그룹 국가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 남성만이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관습은 남아선호사상이 나타나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

13) 우리나라와 중국은 1980년대, 베트남은 2003년 이후라고 할 수 있음.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딸의 경우에는 결혼 시에 시댁으로 보내는 지참금의 부담이 매우 커서 부모들이 딸을 갖는 것을 원치 않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Tong, 2022). 이와 더불어 종교별로 남아에 대한 중요도를 다르게 여기는데, 시크교인(Sikhs)들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출생성비가 130명에 달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힌두교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11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들과 함께 1971년도에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고, 1980년대에 들어 초음파를 통한 성 감별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출생성비의 불균형 또한 확대되었다(Tong, 2022).

마지막 국가는 중앙유럽의 리히텐슈타인으로, 최근 들어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관심을 받는 나라이다. 다만, 리히텐슈타인은 인구 30만 명 정도의 국가로 앞서 살펴본 나라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 국가의 출생성비는 1990년대에 98명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며 130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의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여, 그 원인에 대해서는 UN 등에서의 체계적인 분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3장

성비 불균형 현황과 진단

제1절 성비 불균형 현황

제2절 성비 불균형과 혼인 관련 지표

제3절 생애 미혼율의 장래 추계



제3장 성비 불균형 현황과 진단

제1절 성비 불균형 현황

이 절에서는 성비 불균형을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인 남아선호사상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비 불균형 통계를 지역 및 출생순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남아선호사상

남아선호사상은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76년부터 15~49세 기혼여성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왔다. 아들의 필요성은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겠다’의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가 아들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이 두 항목을 합한 수치도 제시하였다.

남아선호사상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1976년은 71.2%로 대부분의 여성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1년에 다시 71.3%로 증가하였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60% 내외에서 변동하다가 2009년에 50% 밑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5년 34.5%로 1976년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남아선호사상 조사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것도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져 가는 하나의 신호(signal)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4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3-1〉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76~2015년

(단위: %)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낮다	좌측 두 항목 합계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 겠다	합계(명)	
1976년	60.5	10.7	71.2	28.4	0.3	100.0	(6,020)
1985년	43.1	20.2	63.3	35.5	1.2	100.0	(5,092)
1988년	33.9	19.2	53.1	46.5	0.4	100.0	(7,785)
1991년	40.6	30.7	71.3	28.0	0.8	100.0	(7,368)
1994년	28.8	33.0	61.8	37.6	0.5	100.0	(6,051)
1997년	27.6	33.9	61.5	37.7	0.8	100.0	(6,436)
2000년	18.0	42.8	60.8	38.2	1.0	100.0	(6,282)
2003년	16.3	40.0	56.3	43.0	0.7	100.0	(7,162)
2006년	11.0	39.4	50.4	48.9	0.7	100.0	(7,252)
2009년	9.1	40.2	49.3	50.7	0.1	100.0	(6,227)
2012년	8.8	33.4	42.2	57.3	0.4	100.0	(7,252)
2015년	5.7	28.8	34.5	65.2	0.4	100.0	(11,008)

자료: 오영희 외. (201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pp.166.

2. 지역 및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지역별 출생성비를 보면, 대체로 대구, 대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당해 평균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의 경우, 전국 평균 116.5명에 비하여 대구는 129.8명, 대전 122.7명, 경상북도 130.6명, 경상남도 124.7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5년에는 부산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산시의 감소 폭이 작아서 1990년에 출생성비가 매우 높았던 대구, 대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생성비 불균형은 소자녀관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3명의 자녀를 낳는 추세라면 둘째까지는 인위적인 조절을 하지 않

을 수 있지만, 셋째에서는 태아 성 감별을 하여 딸일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성비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1990년의 경우, 출생성비의 전국 평균이 116.5명이었지만, 첫째아의 성비는 108.5명으로 자연성비의 범위를 약간 벗어난 수준이고, 둘째아의 성비가 평균과 유사한 117.1명, 셋째아 이상의 성비는 193.7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앞서 평균이 높았던 대구의 셋째아 이상은 392.2명, 경상북도 294.4명, 경상남도 291.4명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셋째아 이상의 성비가 자연성비로 돌아오는 시기는 대략 2015년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지역들에서는 전국 평균 성비가 자연성비의 범위로 돌아온 2006년경보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태아 성 감별을 통한 자녀의 출산이 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자연 성비보다 높은 지역이 있는데, 이는 셋째 이상의 출생아수가 적어서 출생아 당 비중(weight)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표 3-2〉 지역별 출생성비 추이: 1990~2020년

(단위: 명)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국	116.5	113.2	110.1	107.8	106.9	105.3	104.8
서울특별시	113.3	110.8	108.9	106.6	106.6	104.3	105.4
부산광역시	118.4	117.1	112.6	107.2	106.8	106.7	106.6
대구광역시	129.8	116.8	113.3	110.7	108.6	106.9	105.0
인천광역시	111.9	112.5	108.5	106.7	106.7	107.3	106.2
광주광역시	113.3	107.5	109.7	109.7	108.3	106.9	100.4
대전광역시	122.7	114.4	107.1	107.5	106.6	107.7	109.7
울산광역시	-	-	112.6	113.4	108.5	106.3	99.1
세종특별자치시	-	-	-	-	-	109.9	101.9
경기도	111.3	111.4	109.4	106.7	106.3	104.7	104.0
강원도	113.0	112.3	110.7	107.7	106.4	101.9	102.0
충청북도	117.0	114.6	112.4	107.8	106.8	103.2	106.2
충청남도	116.6	111.4	109.9	106.1	106.5	106.6	106.9
전라북도	113.8	112.2	108.0	111.2	107.9	105.3	102.7
전라남도	114.1	111.5	109.2	105.2	107.0	105.3	104.6
경상북도	130.6	118.1	113.4	110.6	107.2	105.5	104.3
경상남도	124.7	119.1	112.7	109.9	107.6	105.1	106.2
제주특별자치도	118.8	112.0	105.0	113.1	107.4	108.6	11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3-3〉 지역 및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추이: 1990~2000년

(단위: 명)

	1990			1995			2000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108.5	117.1	193.7	105.7	111.7	180.3	106.2	107.4	143.6
서울특별시	108.3	113.1	199.6	105.6	109.4	183.1	107.2	106.4	137.2
부산광역시	108.4	120.6	260.7	107.4	115.2	251.4	106.5	109.8	175.2
대구광역시	109.2	141.0	392.2	104.0	118.1	264.7	104.8	111.3	190.7
인천광역시	108.1	112.6	164.0	105.3	112.0	185.0	105.6	106.5	135.4
광주광역시	107.7	113.4	147.5	103.7	103.2	141.1	106.7	103.9	140.7
대전광역시	106.7	123.2	296.9	107.5	111.4	186.1	100.8	106.6	141.4
울산광역시	-	-	-	-	-	-	102.7	111.3	179.0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경기도	107.7	110.5	165.5	105.5	109.0	180.3	106.8	106.7	136.9
강원도	109.8	109.2	143.2	106.1	111.1	151.0	104.2	110.9	139.9
충청북도	108.4	114.9	174.3	107.1	111.2	181.1	110.8	107.4	137.1
충청남도	105.6	115.1	173.6	106.1	106.5	155.3	106.8	103.7	146.3
전라북도	111.0	111.3	132.3	108.9	110.1	129.3	104.8	104.7	127.1
전라남도	108.2	113.1	136.1	105.6	111.0	129.8	103.8	106.4	129.3
경상북도	110.3	135.1	294.4	103.4	120.3	221.8	108.6	109.7	155.6
경상남도	109.5	128.6	291.4	105.3	118.8	251.0	105.8	110.0	162.0
제주특별자치도	114.4	113.2	153.5	108.2	105.7	144.6	97.8	103.5	127.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3-4〉 지역 및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추이: 2005~2015년

(단위: 명)

	2005			2010			2015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104.8	106.6	128.3	106.4	105.8	110.9	106.0	104.5
서울특별시	104.9	106.8	117.0	105.9	106.7	107.3	104.7	103.7	104.2
부산광역시	104.4	104.7	144.9	107.7	102.1	120.4	107.3	106.9	102.9
대구광역시	107.1	106.9	159.0	104.3	109.5	124.5	106.2	107.9	106.2
인천광역시	105.0	106.4	114.1	106.2	105.7	109.5	109.5	106.1	99.8
광주광역시	105.1	105.3	139.7	105.1	108.7	115.2	108.1	104.9	107.8
대전광역시	104.8	103.7	133.5	110.7	101.4	105.7	107.9	108.1	105.2
울산광역시	105.7	115.3	152.6	103.1	112.3	123.5	110.3	104.0	95.5
세종특별자치시	-	-	-	-	-	-	104.9	111.6	120.3
경기도	104.2	106.0	123.2	106.5	105.1	107.9	105.4	103.3	106.9
강원도	105.7	104.8	127.8	107.4	101.6	116.7	103.6	99.8	100.9
충청북도	103.7	103.7	139.3	108.4	103.8	109.3	101.2	105.7	102.7
충청남도	103.1	104.9	120.9	107.2	105.7	104.0	109.5	101.9	111.7
전라북도	108.3	110.9	119.3	105.4	111.3	107.0	105.5	103.8	108.9
전라남도	104.8	101.7	114.0	107.7	104.7	109.9	106.1	105.5	102.6
경상북도	104.1	111.3	142.1	106.5	105.1	116.1	107.2	104.5	101.6
경상남도	104.2	108.4	150.5	107.4	106.0	112.9	104.9	104.2	109.9
제주특별자치도	108.9	105.9	139.7	98.5	109.3	127.5	103.8	111.6	116.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3-5〉 지역 및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추이: 2020년

	2020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104.8	104.7	106.6
서울특별시	106.1	105.3	101.3
부산광역시	106.5	104.3	119.8
대구광역시	105.8	105.7	97.2
인천광역시	106.3	105.1	110.5
광주광역시	97.9	102.1	107.6
대전광역시	106.5	112.4	120.1
울산광역시	98.2	102.9	87.7
세종특별자치시	102.9	99.8	102.8
경기도	104.2	103.3	106.4
강원도	103.2	99.6	104.9
충청북도	104.5	106.7	114.3
충청남도	106.9	108.1	104.8
전라북도	102.2	101.6	108.0
전라남도	104.5	105.5	103.9
경상북도	103.8	103.9	110.2
경상남도	104.8	108.4	105.6
제주특별자치도	110.4	107.7	115.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단위: 명)

3. 미혼인구 및 초혼 연령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재생산 연령대 인구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남녀 간의 결합(결혼)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면 미혼으로 남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령별 미혼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의 남성은 대부분 30대 초가 되면 결혼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5년 정도 되면 이러한 경향은 남성이 30대 후반, 여성도 30대 후반으로 이동하며, 남성은 1990년의 30대 초반 미혼 비율(13.9%)보다 2020년 40대 후반의 미혼 비율(20.5%)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1990년 20대 후반의 비율과 2020년 30대 후반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이것은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되어 지속적으로 미혼인구가 증가해 온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녀 간의 결합(결혼)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미혼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연령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성비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므로, 만일 인구 이동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남녀 간의 결합 관점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녀 모두 1990년경에는 서울 및 광역시가 전국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도 지역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생애 주기 이벤트(대학 졸업, 취업, 결혼 등)에 따라 지역 이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2011).

〈표 3-6〉 미혼인구 비율 추이: 1990~2020년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성	전체	38.2	35.9	24.4	35.1	35.6	36.0
	15~19세	99.9	99.8	99.6	99.8	99.7	100.0
	20~24세	96.4	96.3	96.5	98.2	98.8	99.2
	25~29세	57.3	64.4	70.1	81.8	85.4	92.2
	30~34세	13.9	19.4	27.4	41.3	50.2	65.9
	35~39세	3.8	6.6	10.3	18.4	26.7	37.8
	40~44세	1.5	2.7	4.6	8.5	14.4	27.2
	45~49세	0.8	1.3	2.1	4.5	7.5	13.9
	생애 미혼율	0.6	1.0	1.6	3.4	5.8	10.9
	전체	27.8	25.7	19.5	25.4	25.8	26.7
여성	15~19세	99.5	99.2	99.2	99.6	99.6	99.9
	20~24세	80.5	83.3	88.7	93.7	96.0	98.0
	25~29세	22.1	29.6	39.7	59.1	69.3	77.3
	30~34세	5.3	6.7	10.5	19.0	29.1	37.5
	35~39세	2.4	3.3	4.1	7.6	12.6	19.2
	40~44세	1.1	1.9	2.4	3.6	6.2	11.3
	45~49세	0.6	1.0	1.6	2.4	3.3	6.4
	생애 미혼율	0.5	0.8	1.3	2.0	2.8	5.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3-7〉 지역별 초혼 연령 추이(남성): 1990~2020년

(단위: 평)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국	27.8	28.4	29.3	30.9	31.8	32.6	33.2
서울특별시	28.3	28.8	29.7	31.2	32.2	33.0	33.6
부산광역시	28.0	28.6	29.4	30.9	31.9	32.9	33.4
대구광역시	27.7	28.2	29.1	30.7	31.8	32.5	33.1
인천광역시	27.8	28.4	29.2	30.7	31.7	32.5	33.0
광주광역시	27.8	28.2	29.0	30.5	31.7	32.8	33.4
대전광역시	27.7	28.1	28.9	30.5	31.6	32.3	33.0
울산광역시	-	-	29.1	30.4	31.4	32.0	32.7
세종특별자치시	-	-	-	-	-	32.5	33.0
경기도	27.7	28.4	29.3	30.8	31.8	32.6	33.2
강원도	27.5	28.2	29.1	30.7	31.9	32.2	33.0
충청북도	27.2	27.8	28.7	30.3	31.5	32.2	32.6
충청남도	27.3	27.7	28.6	30.2	31.3	32.1	32.9
전라북도	27.5	28.1	28.8	30.8	31.8	32.6	33.5
전라남도	27.3	27.9	29.0	30.8	31.9	32.6	33.3
경상북도	27.3	27.9	28.8	30.5	31.5	32.3	33.0
경상남도	27.5	28.1	29.0	30.5	31.5	32.3	33.1
제주특별자치도	27.7	28.2	29.1	30.6	32.0	32.8	33.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3-8〉 지역별 초혼 연령 추이(여성): 1990~2020년

(단위: 평)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국	24.8	25.3	26.5	27.7	28.9	30.0	30.8
서울특별시	25.5	26.0	27.3	28.6	29.8	30.8	31.6
부산광역시	25.0	25.6	26.7	28.1	29.5	30.5	31.1
대구광역시	25.0	25.4	26.5	27.9	29.3	30.2	30.7
인천광역시	25.0	25.3	26.4	27.7	29.0	29.9	30.7
광주광역시	25.0	25.3	26.2	27.6	29.0	30.1	30.7
대전광역시	24.9	25.4	26.3	27.7	29.0	29.8	30.6
울산광역시	-	-	26.2	27.5	28.9	29.7	30.3
세종특별자치시	-	-	-	-	-	30.3	30.8
경기도	24.7	25.3	26.5	27.8	29.3	30.0	30.8
강원도	24.3	24.9	26.0	27.4	28.9	29.6	30.4
충청북도	24.2	24.6	25.7	27.1	28.5	29.5	30.2
충청남도	24.1	24.5	25.4	26.8	28.2	29.2	30.0
전라북도	24.4	24.8	25.7	27.2	28.5	29.4	30.5
전라남도	24.1	24.4	25.4	26.9	28.3	29.3	30.2
경상북도	24.3	24.8	25.9	27.3	28.6	29.5	30.4
경상남도	24.3	24.9	26.0	27.4	28.8	29.8	30.5
제주특별자치도	25.1	25.6	26.7	28.0	29.2	30.1	30.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제2절 성비 불균형과 혼인 관련 지표

이 절에서는 출생성비와 재생산 연령대 성비와의 관계, 성비와 혼인 간의 관계 및 재생산 연령대의 성비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를 산출하고,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비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를 분석해 본다. 성비와 혼인 간의 관계는 지역의 재생산 연령대 성비와 혼인 건수를 중심으로 둘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재생산 연령대의 성비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는 연령 차이만을 반영하여 남녀 간의 결합(결혼)의 결과에 따른 잔여로서의 미혼인구수 총합 및 비율, 그리고 앞서 검토한 S 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의 결혼 성비 불균형에 따른 결혼 시장의 인구구조의 불균형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하는 비율은 인구학적으로 50세의 미혼율인 생애 미혼율로 측정되므로, 생애 미혼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 추계해 보려 한다.

1. 코호트별 성비 불균형

가. 총인구의 코호트별 성비 불균형

이 연구에서는 출생 당시의 성비 불균형이 재생산 연령대에도 유지되는 경우 결혼 시장에서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생애 주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코호트별 성비의 시계열 추이를 도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코호트별 남녀 성비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았다. 코호트는 1970년부

터 2000년까지 도출하였다.¹⁴⁾

성비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코호트의 경우, 출생 시의 성비가 109.5명이었으나, 25세 무렵(1995) 이후부터는 성비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출생성비 중에서도 가장 불균형이 심했던 1975년생의 출생성비는 112.4명이었으나 15세 무렵(1990년) 이후부터는 자연성비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중반 코호트 이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코호트는 이전 코호트와 다르게 출생 당시의 성비 불균형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90년 코호트는 출생성비가 116.5명이었으나 25세 무렵(2015년)의 성비가 111.8명으로, 출생성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자연성비를 넘어서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성/연령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1970년대 이후로 KOSIS의 '행정구역/성/연령/교육정도별 인구' 자료이지만, 이는 6세 이상부터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0세부터 성/연령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고 있지만, 통일성을 위하여 2000년 이후에도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였음.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1970년 코호트는 198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10세로 처음 나타나게 됨.

15) 1974년과 1975년 코호트의 1995년 성비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조사 결과의 오류라고 생각되며, 타 코호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979·1980년 코호트의 2000년 성비, 1984·1985년 코호트의 2005년 성비, 1989·1990·1991년 코호트의 2010년 성비)

〈표 3-9〉 1970~2000년 코호트별 총인구 성비의 시계열 추이: 1980~2020년

(단위: 명)

코호트	출생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970	109.5	107.3	106.0	108.6	100.5	101.7	101.1	100.9	102.6	101.8
1971	109.0	107.1	107.1	101.9	101.9	101.1	101.2	101.5	103.5	102.7
1972	109.5	106.9	106.5	104.2	103.0	100.5	101.2	101.4	105.0	104.0
1973	104.6	106.4	105.8	103.4	107.0	99.8	100.5	99.6	101.6	100.7
1974	109.4	107.2	107.2	105.5	115.3	101.7	101.9	102.0	103.8	103.1
1975	112.4	-	106.9	104.6	115.7	101.4	101.1	100.8	102.6	102.0
1976	110.7	-	107.9	106.4	107.4	104.6	102.4	102.7	105.0	103.9
1977	104.2	-	106.7	106.0	105.1	106.5	102.0	102.1	103.1	102.6
1978	111.3	-	107.0	105.0	105.2	110.4	101.7	102.0	104.3	103.9
1979	106.4	-	107.0	106.2	106.1	118.7	102.8	101.8	103.4	103.0
1980	105.3	-	-	106.6	105.6	115.8	103.3	101.7	103.4	103.1
1981	107.1	-	-	106.5	105.7	106.9	105.4	103.1	106.1	105.5
1982	106.8	-	-	106.3	105.9	106.2	106.9	102.4	104.3	103.9
1983	107.3	-	-	107.0	105.7	107.2	108.9	103.1	105.0	104.5
1984	108.3	-	-	108.2	107.1	109.3	113.9	104.9	106.0	105.3
1985	109.4	-	-	-	108.3	109.3	115.4	106.5	107.1	106.5
1986	111.7	-	-	-	109.7	110.6	109.9	108.5	108.2	107.4
1987	108.8	-	-	-	107.8	108.3	106.7	109.5	106.5	105.8
1988	113.2	-	-	-	111.0	111.6	110.7	112.9	109.0	108.4

코호트	출생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989	111.8	-	-	-	112.6	112.6	112.7	118.1	111.5	110.8
1990	116.5	-	-	-	-	114.0	111.6	119.0	111.8	111.3
1991	112.4	-	-	-	-	112.5	110.7	113.6	110.8	110.8
1992	113.6	-	-	-	-	112.9	111.6	112.3	112.4	111.6
1993	115.3	-	-	-	-	114.2	112.8	113.4	116.5	113.6
1994	115.2	-	-	-	-	115.1	113.6	114.4	118.4	114.4
1995	113.2	-	-	-	-	-	112.4	112.6	115.4	113.1
1996	111.5	-	-	-	-	-	110.7	110.8	111.9	111.6
1997	108.2	-	-	-	-	-	107.9	107.8	108.1	108.3
1998	110.1	-	-	-	-	-	109.2	108.3	108.9	109.3
1999	109.5	-	-	-	-	-	108.9	109.3	109.7	110.1
2000	110.1	-	-	-	-	-	-	108.8	109.2	109.2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1985~2020년 '행정구역/성/연령/교육정도별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도출.

나. 미혼인구의 코호트별 성비 불균형

앞서 총인구의 코호트별 성비 불균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코호트부터 불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미혼인구의 성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만일 결혼이 모든 인구에서 동일 연령에서만 발생한다면, 각 코호트의 성비 비율은 불변하겠지만, 결혼은 서로 다른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코호트별 미혼인구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혼인구의 코호트별 성비 불균형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만, 혼인상태별 통계가 1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970년 코호트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되는 연도는 1985년 조사이다.¹⁶⁾ 따라서 198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미혼인구의 코호트별 성비 불균형 추이를 보면, 1970년 코호트의 경우, 25세 무렵(199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 229.8명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의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1980년대 코호트로 갈수록 이전 코호트보다 성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1990년생이 30세(2020년)가 되었을 때는 144.6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견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성비 불균형이 완화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적 숫자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 다만, 2000년은 각 세/혼인상태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함.

〈표 3-10〉 1970~2000년 코호트별 미혼인구 성비의 시계열 추이: 1985~2020년

코호트	1985	1990	1995	2005	2010	2015	2020
1970	106.0	112.5	164.2	236.3	228.4	215.1	229.8
1971	-	103.4	139.8	234.7	225.7	210.1	230.8
1972	-	104.7	126.0	230.0	219.1	210.5	216.9
1973	-	103.5	120.5	222.8	215.4	203.4	212.5
1974	-	105.6	123.1	217.2	213.4	199.9	211.1
1975	-	104.6	119.9	203.2	204.5	201.0	207.2
1976	-	-	109.3	186.1	199.6	187.8	202.3
1977	-	-	105.9	164.0	191.1	181.5	195.9
1978	-	-	105.5	144.7	181.1	182.8	191.5
1979	-	-	106.2	129.8	170.7	172.8	187.0
1980	-	-	105.6	120.1	158.9	171.3	181.0
1981	-	-	-	115.5	148.3	167.8	177.9
1982	-	-	-	113.3	134.6	163.8	168.9
1983	-	-	-	113.0	125.8	159.5	168.8
1984	-	-	-	116.5	120.1	150.7	168.1
1985	-	-	-	117.0	116.4	148.2	169.8
1986	-	-	-	110.7	115.2	142.7	167.3
1987	-	-	-	107.0	113.8	132.2	159.7
1988	-	-	-	110.8	115.8	126.5	160.2

(단위: 명)

코호트	1985	1990	1995	2005	2010	2015	2020
1989	-	-	-	112.7	119.9	123.2	154.7
1990	-	-	-	111.6	120.0	118.2	144.6
1991	-	-	-	-	114.1	109.4	137.4
1992	-	-	-	-	112.4	110.0	130.0
1993	-	-	-	-	113.5	115.3	125.9
1994	-	-	-	-	114.4	127.4	124.5
1995	-	-	-	-	112.6	121.6	119.5
1996	-	-	-	-	-	113.9	115.3
1997	-	-	-	-	-	108.7	111.8
1998	-	-	-	-	-	108.6	110.7
1999	-	-	-	-	-	108.6	109.7
2000	-	-	-	-	-	108.4	107.5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1985~2020년 '행정구역/성/연령/교육정도별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도출.

다. 코호트별 미혼인구 및 미혼율

2020년을 기준으로 코호트별 미혼인구를 보면, 1970년에는 남성 7만여 명, 여성 3만여 명으로 총합이 10만여 명이었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 코호트는 총 44만여 명으로 나타났다.¹⁷⁾ 즉, 코호트 성비 측면에서는 1970년대 코호트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수는 비교적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성비는 이전보다 작아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시점에서 1970년 코호트 미혼율(50세)은 남성이 16.4%, 여성 7.2%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의 코호트로 갈수록 미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 코호트는 2020년에 40세로 남성 미혼율은 30.4%, 여성은 17.3%이고, 1985년 코호트는 동년 35세로 남성이 46.5%, 여성이 29.1%로 남성의 경우 절반 정도가 미혼인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남성의 초혼 연령은 33.2세로 나타나고 있으나(통계청, 2021), 2020년에 33세인 1987년 코호트를 보면, 58.3%가 미혼이므로, 이 초혼 연령은 현실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성 58.3%가 초혼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만일 이들이 결혼한다 해도 33세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혼율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혼 연령보다 잠재적인 초혼 연령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미혼율은 남녀 모두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1970년 코호트는 50세, 1990년 코호트는 30세이므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1970년 코호트가 35세였던 2005년인 경우, 미혼인구의 총합이 14만여 명으로 2020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82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3-11〉 1970~2000년 코호트별 미혼인구 및 미혼율: 2020년

(단위: 명, %)

코호트	미혼인구		미혼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70	72,018	31,335	16.4	7.2
1971	80,078	34,699	17.5	7.8
1972	83,664	38,570	19.4	9.3
1973	86,539	40,726	20.4	9.7
1974	93,282	44,196	22.0	10.7
1975	90,803	43,827	23.6	11.6
1976	87,803	43,401	23.9	12.3
1977	96,077	49,043	25.8	13.5
1978	97,274	50,793	26.9	14.6
1979	111,443	59,585	28.4	15.6
1980	125,861	69,531	30.4	17.3
1981	132,948	74,729	32.5	19.3
1982	138,039	81,717	34.1	21.0
1983	139,741	82,762	37.6	23.3
1984	136,583	81,250	40.7	25.5
1985	149,268	87,906	46.5	29.1
1986	163,979	97,996	51.9	33.3
1987	179,464	112,378	58.3	38.6
1988	203,230	126,898	65.8	44.5
1989	232,814	150,468	73.0	52.3
1990	261,903	181,154	79.7	61.3
1991	289,685	210,874	84.0	67.7
1992	329,935	253,876	89.5	76.9
1993	338,969	269,222	92.0	83.0
1994	356,041	285,979	96.5	88.6
1995	357,433	299,153	98.5	93.3
1996	344,367	298,773	96.5	93.5
1997	336,329	300,697	98.5	95.4
1998	331,340	299,222	100.0	99.1
1999	319,139	290,818	100.0	100.0
2000	325,426	302,737	100.0	100.0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행정구역/성/연령/교육정도별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도출.

2. 미혼인구의 가상 결합 지표

앞서 살펴본 코호트별 성비는 단지 동일 연령에서의 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남녀 간의 결합(결혼)은 동일 연령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남녀 간의 결합을 고려할 때는 연령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코호트별 성비 자체가 결혼 시장에서의 성비를 대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령차를 반영한 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분석한 미혼인구 및 미혼율은 결혼하지 않은 현재 상황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미혼인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남녀의 인구가 동일하고, 남녀 간의 결합(결혼)이 모든 남녀에게서 이루어진다면,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미혼인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녀의 인구가 동일하지 않고, 남녀 간의 결합이 모두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미혼인구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인구구조하에서 남녀 간의 결합(결혼)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현재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혼인구의 가상 결합을 시도하였다. 앞서 초혼 연령 통계에서는 남녀 간의 결혼 연령 차이가 약 3세로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남녀 간의 결합 연령 차이를 3년으로 가정하고, 남게 되는 인구를 산출해 보았다. 이를 가상 결합(Assumption Coupling) 지수라 하고, 식으로 표현하면 식(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C = \frac{\sum_{n=20}^{49} (X_n - Y_{n-3})}{\sum_{n=20}^{49} (X_n)} \quad (3-1)$$

여기에서 X_n 은 n세의 남성 미혼인구, Y_n 은 n세의 여성 미혼인구이지만, n-3이므로 3세 밑의 미혼 여성을 의미한다. 이들의 인구수를 연령별로 49세까지 차감하여 총합을 산출한 후, 20~49세의 남성 인구수의 합으로 나눈 수치이다¹⁸⁾. 따라서 이 지표가 양(+)인 경우는 남성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인 경우는 여성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한 수치를 보면, 한국의 경우, 1985년부터 1990년은 남성보다 여성의 인구가 더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남성이 더 많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없었던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은 이미 1985년부터 남성이 더 많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성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급격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남성 미혼인구가 여성 미혼인구보다 매우 많은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의 결혼 연령 차이를 감안하여 1:1 결합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성 미혼인구가 매우 많이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의 부표에 연령별 및 총합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 우리나라 순 미혼 남성¹⁹⁾은 1,226,823명, 일본은 1,352,717명이다. 일본의 미혼인구의 합이 우리의 약 2배임에도 순 미혼 남성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미혼 인구가 남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8) 남성을 기준으로 20세를 가정하였으므로 여성은 17~47세임.

19) $\sum_{n=20}^{n=49} X_n - Y_{n-3}$

〈표 3-12〉 미혼인구의 가상 결합 지표: 1985~2020년

(단위: %)

연도	한국	일본
1985	-3.2	1.2
1990	-1.9	1.0
1995	0.9	2.4
2000	-	4.2
2005	4.5	3.3
2010	5.4	3.9
2015	8.0	4.5
2020	11.2	6.3

주: 한국의 2000년 자료는 KOSIS에 공개되지 않아 제외함.

자료: 한국-KOSIS 성별·연령별·배우관계별 인구통계(각 연도), 일본-국세조사 성별·연령별·배우관계별 인구통계(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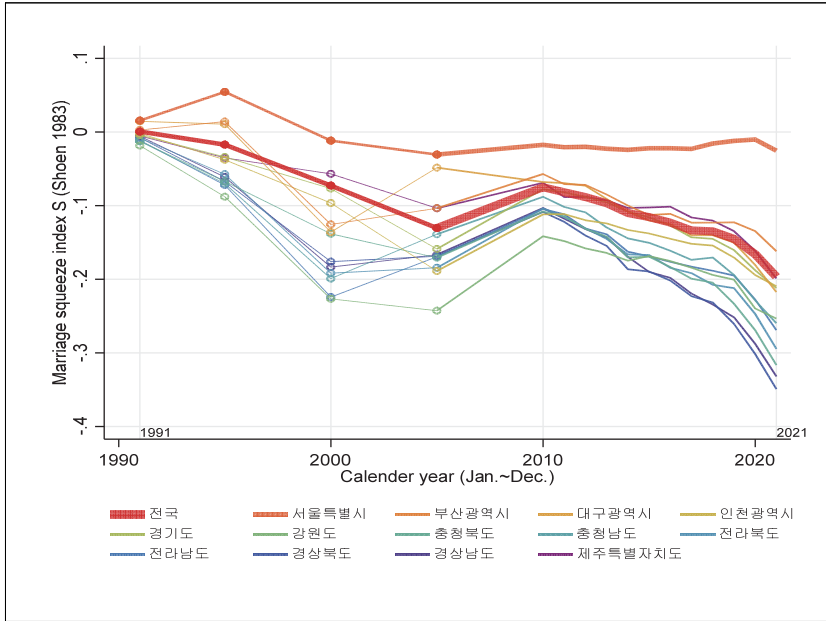
3. Schoen(1983)의 S 지표

앞서 코호트별 성비 불균형 분석과 남녀 간의 가상 결합 지표를 도출했지만, 이는 성비 불균형과 결합을 별도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choen(1983)의 S 지표는 앞서 도출 방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미혼인구의 성비와 연령별 결혼 구조가 고려되어 있으므로 상기 2개의 분석이 종합적으로 구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S 지표 산출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1991년에는 결혼 성비 불균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략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성의 약 10% 이상이 결혼하기 불리한 구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91년에는 거의 0에 가까웠으나 2005년에는 -0.13으로 감소하여 비율적으로는 약 13.0%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미혼인구의 성비와 결혼 패턴을 고려했을 때, 남성의 미혼인구가 여성의

미혼인구보다 약 13%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2010년 전후로 S 지표 수치가 약간 개선되었으나(2010년: -7.5), 2010년에서 2021년에 걸쳐 다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그림 3-1] 한국의 지역별 S 지표: 1991~2021년



주: 광주광역시(직할시(1986~))를 전라남도에 포함, 대전광역시(직할시(1989~))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를 충청남도에 포함, 울산광역시(1995~)를 경상남도에 포함.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그러나 한국의 S 지표에서 특징적인 점은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의 결혼 성비가 매우 균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2005년 이후는 그 이전에 비하여 결혼 성비 불균형이 개선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결혼 성비 불균형은 서울시와 그 이외 지역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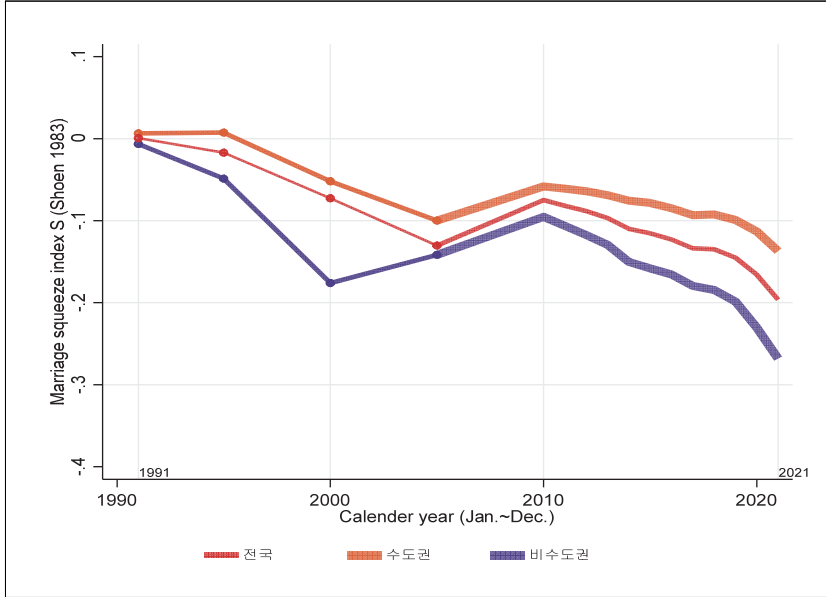
으로 나타났는데, 4개의 시를 9개의 도 지역과 비교하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이 크지 않았으나,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은 1990년대부터 2000년경에 걸쳐 악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더욱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 S 지표 수치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체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13개 시도 간의 격차(최대-최소)는 2000년대 전반 및 201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 격차를 보면, 1991년 3.4%p, 2000년 21.5%p, 2010년 12.4%p, 2021년 32.4%p로 2010년에 격차가 조금 완화되었으나, 2021년에 매우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도 지역에서의 변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에서 2021년에 걸쳐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은 더욱 악화되어 경상남도 -24.1%p, 경상남도 -22.9%p, 충청북도 -20.9%p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시도별 분석에 추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S 지표를 산출하였다.²⁰⁾ 산출 결과,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결혼 성비 불균형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로 보면, 비수도권의 S 지표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악화하다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의 결혼 성비 불균형은 거의 없지만, 인근 인천과 경기의 지표 악화가 수도권 전체의 지표 수준을 낮추었다고 볼 수 있다.

20) 지방소멸과 관련한 지표를 더욱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비도시 간의 지표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을 분석함.

[그림 3-2]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S 지표: 1991~2021년



주: 광주광역시(직할시(1986~))를 전라남도에 포함, 대전광역시(직할시(1989~))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를 충청남도에 포함, 울산광역시(1995~)를 경상남도에 포함.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2021년의 S 지표를 상세히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미혼 남성이 여성보다 19.6%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서울에서는 미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성비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로 이 지역들은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한국의 2021년 S 지표

지역	S 지표
전국	-0.196
서울특별시	-0.025
부산광역시	-0.162
대구광역시	-0.217
인천광역시	-0.210
경기도	-0.212
강원도	-0.253
충청북도	-0.317
충청남도	-0.260
전라북도	-0.295
전라남도	-0.269
경상북도	-0.349
경상남도	-0.332
제주특별자치도	-0.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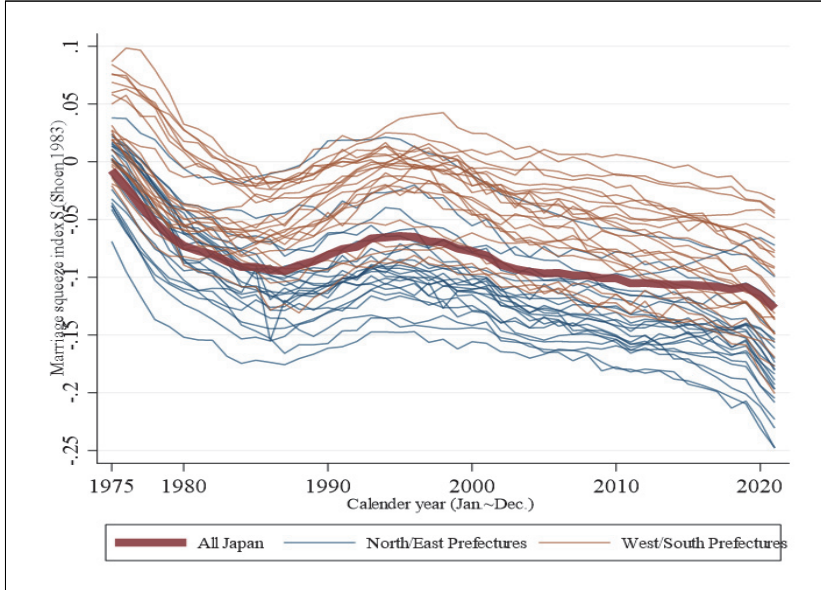
주: 광주광역시(직할시(1986~))를 전라남도에 포함, 대전광역시(직할시(1989~))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를 충청남도에 포함, 울산광역시(1995~)를 경상남도에 포함.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일본의 S 지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은 1975년에는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10%의 남성이 결혼에 불리한 구조로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1975년: -0.7 → 1987년: -9.4). 이후 1990년대에는 수치가 약간 축소된 경향이 있었으나(1995년 -6.4), 2003년부터 2019년에 걸쳐 -9.3에서 -11.0으로 악화되었다.

일본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은 1975년부터 2021년의 47년간 약 12%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지역의 시계열적 패턴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도도부현별로 본 격차(최대-최소)는 약 16~22%p로 분포하여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은 서남쪽보다, 동북쪽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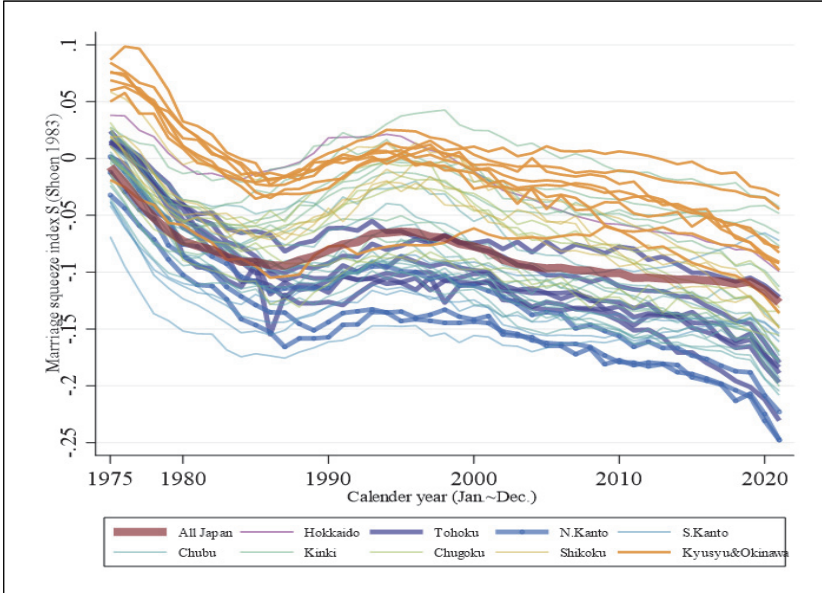
[그림 3-3] 일본의 지역별 S 지표(1): 1975~2021년



자료: 일본 국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지역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일본의 가장 남부에 있는 큐슈·오키나와 지역에서는 1980년대 전반까지 여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 현상이 있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큐슈·오키나와 지역 내의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 현상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동북쪽 지역 중, 북관동지방은 1980년대 후반 이래,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그 양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4] 일본의 지역별 S 지표(2): 1975~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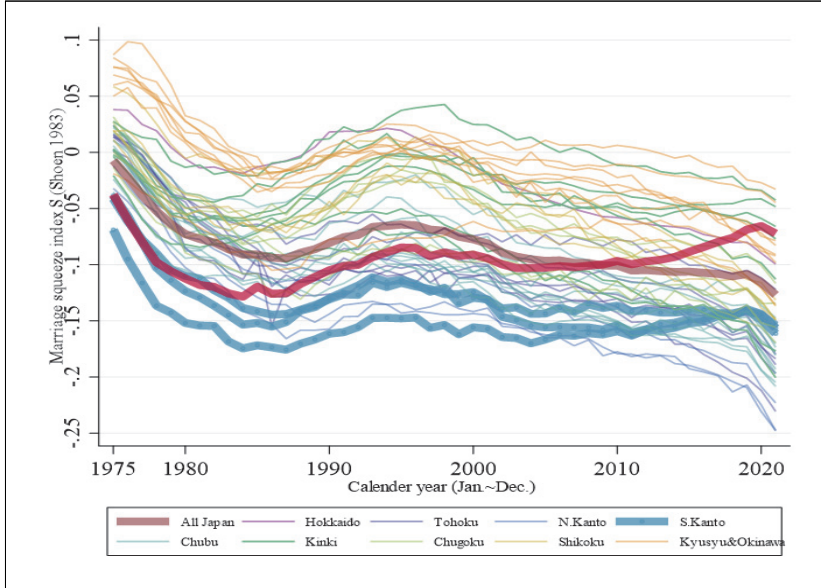


자료: 일본 국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결혼 성비 불균형은 대체로 1980년대 전반까지 큐슈 지방과 그 이외의 도도부현으로 양분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및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 수준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도도부현의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 도쿄를 포함하는 남관동 지방의 남성 결혼 성비 불균형은 1980년대까지 일본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관동 지방 중 수도 도쿄 남성의 결혼 성비 불균형 현상을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984년 -12.8%→2020년 -6.6%),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에 현저하게 나타난 ‘귀농 귀촌’ 현상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5] 일본의 지역별 S 지표(3): 1975~2021년



자료: 일본 국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4. 지역의 결혼 적령기 미혼인구 성비와 결혼 간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미혼인구의 남녀 성비가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이 앞선 분석에서 도출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성비와 결혼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기에 이 소절에서는 성비와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성비와 결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²¹⁾

21) 당초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해 이산 시간 생존 분석을 기획했으나 여러 가지 자료 이용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할 수 없었음. 이산 시간 생존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분석 단위 기간 동안의 자료, 예를 들어, 분석 단위 1년의 기간을 30년으로 한다면 1년 단위로 30년간의 자료가 필요함. 또한, 지표 분석에서 지역별 분석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므로 지역별 자료가 필요함. 물론 성비 등의 자료는 지역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개인별 지역 변수임. 즉, 각 개인이 30년 동안 어느 지역에 거주하였는지의 정보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 물론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우리

특히 결혼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의 미혼인구 성비와 결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연령은 30대로 한정하였으며, 인구주택총조사의 2000~2020년의 총 5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혼 관련 자료는 인구동향조사의 초혼 건수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연령대 인구로 나누는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에 도입하였다(성별 초혼 건수/성별 인구의 수).

다만,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결혼의 특징으로 남녀(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평균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며, 이는 곧 동일 연령대의 성비보다는 연령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 연령대 성비를 고려한 분석과 연령 차이의 성비를 고려한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가. 동일 연령대 성비를 고려한 분석

지역별 성비를 살펴봄에 있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최근으로 올수록 30대 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과 30~34세 인구 집단의 성비 불균형이 35~39세 집단보다 더 크고 그 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출생 인구에서 성비의 불균형이 이전 세대보다 뚜렷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광역시와 도 지역을 비교해 보면, 도 지역에서의 성비 불균형이 광역시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비 불균형 수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국 30대(30~39세)의 성

나라에 개인을 30년 이상 추적한 자료는 없으며, 있다고 해도 패널 탈락(attrition) 및 새로운 패널 추가 문제로 인하여 안정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여러 차례의 연구진 회의 결과, 불안정한 자료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이 오히려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서 미혼인구 성비와 결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94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비는 106.7명이었으며, 광역시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95.2명, 서울특별시는 100.9명으로 불균형의 정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으나, 울산광역시(113.7명), 대전광역시(109.8명), 대구광역시(108.3명) 등에서는 성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국 30대 출생성비보다 높은 수준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충청남도(117.0명), 경상북도(114.5명), 충청북도(113.5명), 전라남도(111.0명) 등에서의 불균형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지역별 동일 연령대 출생성비와 성별 조혼 비율: 2000~2020년

(단위: 명)

행정 구역	연령(세)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국	30~34	102.1	3.9	1.3	101.2	4.7	2.1	102.0	6.0	3.9	105.6	6.3	5.1	108.7	4.8	4.3					
	35~39	102.3	0.7	0.2	100.9	1.2	0.3	101.0	1.9	0.7	103.8	2.2	1.1	105.1	1.9	1.2					
	30~39	102.2	2.3	0.8	101.0	2.9	1.2	101.5	3.9	2.2	104.7	4.2	3.0	106.7	3.2	2.6					
서울	30~34	107.8	4.8	1.9	105.5	5.3	2.8	100.9	6.5	4.7	101.6	7.0	5.9	100.2	5.4	4.9					
	35~39	99.3	0.9	0.4	102.2	1.4	0.5	102.0	2.3	0.9	101.6	2.7	1.5	101.5	2.5	1.6					
	30~39	103.6	3.0	1.1	104.0	3.5	1.7	101.5	4.4	2.8	101.6	4.9	3.8	100.9	3.9	3.3					
부산	30~34	98.7	4.1	1.4	99.6	4.7	2.4	100.2	6.2	4.5	104.4	6.3	5.7	106.3	4.7	4.5					
	35~39	94.3	0.7	0.2	95.2	1.1	0.4	97.9	1.9	0.8	104.0	2.3	1.3	103.6	1.9	1.3					
	30~39	96.4	2.4	0.8	97.3	2.9	1.4	99.0	4.0	2.6	104.2	4.3	3.5	104.8	3.2	2.7					
대구	30~34	99.8	3.7	1.1	96.1	4.4	1.9	97.3	6.0	3.9	102.8	6.3	5.2	116.1	4.4	4.2					
	35~39	97.6	0.5	0.2	95.8	0.9	0.3	94.3	1.7	0.6	99.8	2.1	1.1	102.1	1.8	1.0					
	30~39	98.6	2.1	0.6	95.9	2.6	1.1	95.7	3.7	2.1	101.2	4.1	3.0	108.3	3.0	2.4					
인천	30~34	97.2	3.6	1.1	100.6	4.0	1.8	104.4	5.2	3.4	105.7	5.8	4.4	108.8	4.0	3.7					
	35~39	102.8	0.6	0.2	97.6	1.1	0.3	101.7	1.7	0.6	105.6	2.0	0.9	106.2	1.7	1.0					
	30~39	100.1	2.0	0.6	99.1	2.5	1.0	103.0	3.4	1.9	105.6	3.9	2.6	107.3	2.7	2.2					

행정 구역	연령(세)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광주	30~34	101.5	3.9	1.1	98.2	4.3	1.9	98.2	5.3	3.4	103.7	5.8	4.8	106.7	4.5	4.1					
	35~39	100.0	0.6	0.2	97.7	0.9	0.2	97.0	1.7	0.5	100.3	2.2	1.0	103.1	2.0	1.0					
	30~39	100.8	2.3	0.6	97.9	2.6	1.1	97.6	3.5	1.9	101.9	4.0	2.8	104.7	3.1	2.3					
	30~34	98.4	3.5	1.1	98.6	4.5	1.9	98.5	5.7	3.5	104.5	6.2	5.0	116.1	4.6	4.0					
	35~39	99.5	0.6	0.2	97.4	0.9	0.2	98.9	1.7	0.6	99.7	2.0	1.0	104.6	1.7	1.1					
대전	30~39	98.9	2.0	0.6	98.0	2.7	1.1	98.7	3.6	2.0	102.0	4.1	2.9	109.8	3.1	2.4					
	30~34	96.9	3.3	0.7	97.3	4.5	1.5	108.2	6.0	3.3	112.4	6.3	4.5	120.2	4.8	4.0					
	35~39	106.4	0.4	0.1	96.7	0.9	0.2	97.7	1.7	0.5	109.4	2.0	0.8	108.8	1.5	0.8					
	30~39	101.6	1.8	0.4	97.0	2.6	0.8	102.5	3.8	1.8	110.9	4.1	2.6	113.7	3.0	2.2					
	30~34	-	-	-	-	-	-	-	-	-	91.2	7.9	4.1	95.7	6.6	4.3					
세종	35~39	-	-	-	-	-	-	-	-	-	97.6	2.3	0.8	94.8	2.0	1.0					
	30~39	-	-	-	-	-	-	-	-	-	94.6	4.8	2.3	95.2	4.0	2.4					
	30~34	97.5	3.9	1.1	98.1	4.5	1.8	99.9	5.8	3.4	104.6	6.2	4.6	108.6	4.7	4.0					
	35~39	105.7	0.7	0.2	100.4	1.0	0.3	100.1	1.8	0.6	102.1	2.1	1.0	105.2	1.8	1.1					
	30~39	101.6	2.2	0.7	99.3	2.7	1.0	100.0	3.7	1.9	103.3	4.0	2.7	106.7	3.1	2.4					
강원	30~34	107.1	3.5	1.2	104.5	3.9	1.7	103.9	5.0	3.1	111.3	5.3	4.2	117.2	4.1	3.6					
	35~39	102.5	0.9	0.3	106.7	1.2	0.3	103.9	1.7	0.6	103.5	1.9	0.9	107.4	1.7	1.0					
	30~39	104.7	2.2	0.7	105.6	2.5	1.0	103.9	3.2	1.7	107.1	3.5	2.4	111.7	2.8	2.2					

행정 구역	연령(세)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충북	30~34	104.1	3.3	1.1	102.8	3.7	1.6	105.6	5.0	2.9	110.0	5.6	4.2	118.8	4.4	3.6					
	35~39	105.7	0.6	0.2	102.5	1.0	0.2	102.9	1.6	0.5	107.1	1.9	0.9	109.2	1.6	0.9					
	30~39	104.9	1.9	0.6	102.6	2.4	0.9	104.2	3.2	1.6	108.5	3.7	2.5	113.5	2.9	2.1					
	30~34	107.7	3.3	1.0	108.4	4.0	1.4	113.7	5.1	2.7	117.6	5.4	3.9	119.8	4.1	3.3					
충남	35~39	107.7	0.7	0.2	108.6	1.1	0.2	109.2	1.7	0.4	113.6	1.9	0.8	114.7	1.6	0.7					
	30~39	107.7	1.9	0.6	108.5	2.6	0.8	111.3	3.3	1.5	115.5	3.6	2.3	117.0	2.7	1.9					
	30~34	104.3	3.5	1.0	99.9	4.4	1.9	101.5	5.8	3.4	108.2	5.6	4.3	109.4	4.2	3.8					
	35~39	102.7	0.7	0.2	102.0	1.3	0.2	101.2	1.9	0.5	105.9	2.1	0.9	104.7	1.8	0.9					
전북	30~39	103.5	2.1	0.6	100.9	2.8	1.1	101.4	3.7	1.9	107.0	3.8	2.5	106.8	2.9	2.2					
	30~34	109.1	3.5	1.0	102.7	4.3	1.5	104.8	5.9	3.2	110.8	5.8	4.5	110.9	4.4	3.9					
	35~39	107.3	0.8	0.2	108.2	1.3	0.2	106.1	2.0	0.5	109.7	2.1	0.8	111.1	1.8	1.0					
	30~39	108.2	2.2	0.6	105.6	2.7	0.8	105.5	3.7	1.7	110.2	3.9	2.6	111.0	2.9	2.2					
경북	30~34	105.0	3.4	0.9	102.4	4.4	1.6	107.7	5.6	3.3	111.3	5.8	4.6	121.2	4.2	3.6					
	35~39	105.9	0.6	0.2	104.2	1.1	0.2	104.1	1.8	0.5	109.0	2.0	1.0	109.4	1.6	0.9					
	30~39	105.5	2.0	0.5	103.3	2.7	0.9	105.8	3.6	1.8	110.1	3.9	2.7	114.5	2.8	2.0					
	30~34	100.7	3.4	0.9	100.8	4.3	1.6	106.2	5.8	3.3	110.1	6.0	4.3	113.6	4.4	3.7					
경남	35~39	103.2	0.6	0.2	102.8	1.0	0.2	102.7	1.8	0.5	107.2	2.0	0.8	106.9	1.5	0.9					
	30~39	101.9	1.9	0.5	101.9	2.6	0.9	104.3	3.6	1.8	108.6	3.9	2.5	109.7	2.8	2.0					

행정 구역	연령(세)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비	초혼 비율		성비	초혼 비율		성비	초혼 비율		성비	초혼 비율		성비	초혼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제주	30~34	105.2	3.9	1.5	99.4	4.6	2.3	102.7	5.6	3.8	103.9	6.0	4.7	104.1	4.8	3.9
	35~39	105.0	0.8	0.3	105.1	1.0	0.4	99.9	2.1	0.7	104.9	2.3	1.2	101.4	1.9	1.2
	30~39	105.1	2.4	0.9	102.3	2.7	1.3	101.2	3.7	2.0	104.5	4.1	2.8	102.5	3.2	2.3

주: 성비는 (남성인구/여성인구*100), 초혼 비율은 (성별 초혼 건수/성별 인구)로 산출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혼인 자료(각 연도).

다음으로는 성비의 불균형과 초혼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연령대별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30~34세 집단, 35~39세 집단, 30~39세 집단으로 나누고,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광역시, 도, 전체 지역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피어슨 상관분석은 표본의 수가 작고, 특히 상관계수가 커질수록 표본 상관계수 분포의 편향이 심해져 분석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분석에서 표본의 단위는 시도 지역이므로 상관계수 분석에 투입되는 표본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셔의 z 변환(Fisher's z -transformation)을 활용하였다. 피셔의 z 변환은 피어슨 표본 상관계수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변환하여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표본의 수가 작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Wicklin, 2017).²²⁾ 그러나 피셔의 z 변환으로 도출한 결과와 피어슨과의 유의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어슨 계수의 유의수준을 표기하였다. 상관계수의 경우, 계수가 양(+)의 관계이면 성비가 클수록,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을수록 해당 연령집단의 결혼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관계일 때는 성비가 클수록 결혼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피셔의 z 변환을 통한 피어슨 상관분석은 변환된 값을 통해 구한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을 제공하며, 상관계수의 유의성 또한 새롭게 제공함.

〈표 3-15〉 광역시 단위 지역별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30~34세					
남성 초혼 비율	0.91**	0.66	-0.01	-0.77*	-0.68†
여성 초혼 비율	0.85*	0.80*	-0.31	0.15	-0.54
35~39세					
남성 초혼 비율	-0.50	0.74†	0.54	-0.30	-0.57
여성 초혼 비율	-0.38	0.46	0.47	-0.13	-0.26
30~39세					
남성 초혼 비율	0.35	0.83*	0.15	-0.57	-0.82*
여성 초혼 비율	0.25	0.72†	-0.01	0.08	0.28

주: 1) ***:p<0.001, **:p<0.01, *:p<0.05, †:p<0.1.

2) 광역시 단위 지역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 포함되며, 세종은 2015년도부터 데이터가 제공됨.

3) 성비는 (남성인구/여성인구*100), 초혼 비율은 (성별 초혼 건수/성별 인구)로 산출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혼인 자료(각 연도)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먼저 광역시 지역들의 연령 집단별 성비와 초혼 비율²³⁾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0년과 2005년의 경우, 여러 연령집단에서 미혼인구 성비와 초혼 비율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인구의 성비 불균형과 초혼 비율이 함께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재생산 연령대 미혼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이라는 점과 결혼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5~2020년에 이르면 둘 간의 관계가 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30~34세 남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 전체 남성에서는 2020년에 유의하게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각 연령집단의 초혼 건수를 각 연령집단의 인구로 나눔.

〈표 3-16〉 도 단위 지역별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30~34세					
남성 초혼 비율	-0.42	-0.68*	-0.46	-0.71*	-0.76*
여성 초혼 비율	0.08	-0.67*	-0.70*	-0.79*	-0.84**
35~39세					
남성 초혼 비율	-0.16	0.41	-0.34	-0.35	-0.57
여성 초혼 비율	-0.40	-0.04	-0.75*	-0.52	-0.79*
30~39세					
남성 초혼 비율	0.15	-0.24	-0.41	-0.42	-0.86**
여성 초혼 비율	0.12	-0.56	-0.82*	-0.58	-0.80*

주: 1) ***:p<0.001, **:p<0.01, *:p<0.05, †:p<0.1.

2) 도 단위 지역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혼인 자료(각 연도)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다음으로 도 단위로 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 지역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성비와 초혼 간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2000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2005년의 30대 초반 남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010년으로 가면, 30대 초반과 후반 및 30대 전체 여성에게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2015년이 되면 2005년과 마찬가지로 30대 초반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2020년이 되면 30대 초반 남녀, 30대 후반 여성, 30대 전체 남녀에게서 음(-)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광역시와 시도 지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30대 초반, 중반, 전체 남성에게서 성비와 초혼 간의 관계가 음(-)으로 나타났고, 2020년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여성에게도 확대되어 30대 초반, 중반, 전체에서 남녀 모두 성비와 초혼이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전체 지역 성비와 성별 초혼 비율: 2000~202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30~34세					
남성 초혼/남성 인구	0.07	-0.18	-0.38	-0.83***	-0.71**
여성 초혼/여성 인구	0.31	-0.08	0.15*	-0.36	-0.67**
35~39세					
남성 초혼/남성 인구	-0.01	0.58*	0.09	-0.47†	-0.63**
여성 초혼/여성 인구	-0.23	-0.13	-0.35	-0.39	-0.55*
30~39세					
남성 초혼/남성 인구	-0.04	0.08	-0.38	-0.72**	-0.83***
여성 초혼/여성 인구	0.01	-0.19	-0.56*	-0.35	-0.63**

주: ***: p<0.001, **: p<0.01, *: p<0.05, †: p<0.1.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혼인 자료(각 연도)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나. 연령 차이 성비를 고려한 분석

앞서 분석한 결과는 동일 연령 집단의 성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혼인에서는 연령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금 더 현실적인 분석은 연령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Kim, 1997).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령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자료는 앞에서의 분석과 동일하지만, 남성 30~34세의 경우, 남녀 초혼 연령 차이를 고려하여 그보다 연령이 낮은 25~29세 여성과의 성비를 계산하였다.

동일 연령을 고려한 성비와 비교하여 연령의 차이를 고려한 지역별 성비를 살펴보면, 광역시에서는 전자에 비하여 후자의 성비가 낮은 경향이 있으나, 도 지역은 후자가 전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5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지역의 30대 초반의 성비가 급격히 높아지고, 5년 뒤인 2020년에는 30대 후반의 성비가 2015년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연령의 차이를 고

려하지 않은 경우는 도 지역 성비의 불균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의 차이를 고려하면, 30대 후반에서는 도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도 성비 불균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 불균형 수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국 30대(30~39세)의 성비는 111.7명이고, 광역시 중 서울(93.9명)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자연성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울산은 129.6명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광역시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지역별 연령 차이를 고려한 출생성비와 성별 조혼 비율: 2000~2020년

(단위: 명)

행정 구역	연령(세)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성비	조혼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국	30~34	101.4	3.9	7.7	113.6	4.7	7.7	107.5	6.0	8.2	128.3	6.3	7.3	98.2	4.8	4.5					
	35~39	104.6	0.7	1.3	101.4	1.2	2.1	112.6	1.9	3.9	109.8	2.2	5.1	126.8	1.9	4.3					
	30~39	103.0	2.3	4.5	107.2	2.9	4.7	110.1	3.9	6.0	118.1	4.2	6.1	111.7	3.2	4.4					
서울	30~34	89.8	4.8	7.9	100.9	5.3	7.0	93.7	6.5	7.0	113.6	7.0	6.4	85.6	5.4	3.7					
	35~39	95.3	0.9	1.9	90.5	1.4	2.8	100.6	2.3	4.7	94.7	2.7	5.9	103.6	2.5	4.9					
	30~39	92.3	3.0	5.2	95.8	3.5	4.9	97.0	4.4	5.9	103.6	4.9	6.1	93.9	3.9	4.3					
부산	30~34	91.9	4.1	8.5	98.5	4.7	7.3	98.1	6.2	8.2	121.7	6.3	6.9	92.0	4.7	4.2					
	35~39	104.1	0.7	1.4	99.1	1.1	2.4	106.0	1.9	4.5	107.8	2.3	5.7	125.8	1.9	4.5					
	30~39	97.8	2.4	5.1	98.8	2.9	4.9	102.0	4.0	6.4	114.2	4.3	6.3	107.7	3.2	4.3					
대구	30~34	95.2	3.7	8.0	105.0	4.4	7.6	101.6	6.0	8.2	126.5	6.3	7.5	98.0	4.4	4.4					
	35~39	102.8	0.5	1.1	101.0	0.9	1.9	110.8	1.7	3.9	110.9	2.1	5.2	129.3	1.8	4.2					
	30~39	98.9	2.1	4.6	102.9	2.6	4.6	106.3	3.7	6.0	117.9	4.1	6.2	112.3	3.0	4.3					
인천	30~34	108.6	3.6	6.9	116.9	4.0	7.0	107.7	5.2	7.3	126.1	5.8	6.8	94.6	4.0	4.1					
	35~39	110.8	0.6	1.1	104.9	1.1	1.8	115.4	1.7	3.4	110.6	2.0	4.4	127.9	1.7	3.7					
	30~39	109.8	2.0	3.8	110.4	2.5	4.2	111.6	3.4	5.3	117.7	3.9	5.5	110.1	2.7	3.9					

행정 구역	연령(세)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광주	30~34	94.3	3.9	7.7	102.6	4.3	7.0	100.8	5.3	7.3	125.4	5.8	6.5	86.8	4.5	4.3					
	35~39	98.8	0.6	1.1	98.6	0.9	1.9	107.4	1.7	3.4	110.1	2.2	4.8	132.5	2.0	4.1					
	30~39	96.5	2.3	4.5	100.5	2.6	4.4	104.1	3.5	5.3	117.0	4.0	5.6	107.3	3.1	4.2					
	30~34	96.9	3.5	7.5	107.1	4.5	7.5	102.7	5.7	7.9	122.9	6.2	7.3	96.3	4.6	4.4					
대전	35~39	103.1	0.6	1.1	98.5	0.9	1.9	110.4	1.7	3.5	107.6	2.0	5.0	125.2	1.7	4.0					
	30~39	100.0	2.0	4.3	102.7	2.7	4.6	106.7	3.6	5.7	114.6	4.1	6.0	109.4	3.1	4.2					
	30~34	114.3	3.3	6.0	121.1	4.5	7.8	123.4	6.0	9.1	149.2	6.3	8.2	116.0	4.8	5.4					
	35~39	107.5	0.4	0.7	109.7	0.9	1.5	114.7	1.7	3.3	116.2	2.0	4.5	143.6	1.5	4.0					
울산	30~39	110.6	1.8	3.1	114.8	2.6	4.3	118.7	3.8	6.0	130.4	4.1	6.1	129.6	3.0	4.7					
	30~34	-	-	-	-	-	-	-	-	-	91.2	7.9	7.9	95.7	6.6	6.8					
	35~39	-	-	-	-	-	-	-	-	-	97.6	2.3	4.1	94.8	2.0	4.3					
	30~39	-	-	-	-	-	-	-	-	-	94.6	4.8	5.5	95.2	4.0	5.4					
경기	30~34	110.4	3.9	7.0	124.2	4.5	7.4	114.1	5.8	7.8	131.4	6.2	7.2	101.3	4.7	4.5					
	35~39	106.8	0.7	1.1	103.1	1.0	1.8	116.2	1.8	3.4	113.6	2.1	4.6	130.6	1.8	4.0					
	30~39	108.5	2.2	3.9	112.4	2.7	4.2	115.2	3.7	5.4	121.5	4.0	5.8	115.5	3.1	4.3					
	30~34	111.1	3.5	7.4	127.0	3.9	7.4	121.8	5.0	8.4	136.6	5.3	7.3	108.8	4.1	4.6					
강원	35~39	112.8	0.9	1.2	111.6	1.2	1.7	125.2	1.7	3.1	120.1	1.9	4.2	136.3	1.7	3.6					
	30~39	112.0	2.2	4.2	118.5	2.5	4.3	123.6	3.2	5.5	127.5	3.5	5.6	122.0	2.8	4.1					

행정 구역	연령(세)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성비	최혼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충북	30~34	106.8	3.3	7.2	118.6	3.7	7.9	112.5	5.0	8.3	135.1	5.6	7.6	110.0	4.4	5.0					
	35~39	109.9	0.6	1.1	109.1	1.0	1.6	118.6	1.6	2.9	114.8	1.9	4.2	136.2	1.6	3.6					
	30~39	108.3	1.9	4.1	113.5	2.4	4.5	115.6	3.2	5.5	123.9	3.7	5.7	122.6	2.9	4.4					
	30~34	110.3	3.3	7.0	130.8	4.0	8.1	128.3	5.1	8.5	148.0	5.4	7.6	122.4	4.1	4.9					
충남	35~39	114.5	0.7	1.0	109.7	1.1	1.4	122.2	1.7	2.7	122.1	1.9	3.9	145.1	1.6	3.3					
	30~39	112.4	1.9	4.0	119.3	2.6	4.4	125.1	3.3	5.4	133.5	3.6	5.5	133.9	2.7	4.1					
	30~34	99.7	3.5	7.6	119.2	4.4	8.5	112.3	5.8	9.1	128.6	5.6	7.4	96.1	4.2	4.4					
	35~39	108.5	0.7	1.0	103.6	1.3	1.9	121.4	1.9	3.4	120.5	2.1	4.3	134.9	1.8	3.8					
전북	30~39	104.0	2.1	4.4	110.7	2.8	4.9	117.1	3.7	6.1	124.2	3.8	5.7	114.2	2.9	4.1					
	30~34	115.5	3.5	7.7	129.4	4.3	8.6	125.0	5.9	9.7	144.3	5.8	8.0	104.2	4.4	4.8					
	35~39	112.9	0.8	1.0	116.0	1.3	1.5	128.0	2.0	3.2	123.8	2.1	4.5	146.5	1.8	3.9					
	30~39	114.2	2.2	4.2	121.9	2.7	4.6	126.6	3.7	6.1	132.7	3.9	6.0	124.7	2.9	4.3					
경북	30~34	108.8	3.4	7.9	122.5	4.4	8.1	117.8	5.6	9.1	141.8	5.8	7.9	119.4	4.2	5.0					
	35~39	108.6	0.6	0.9	108.9	1.1	1.6	120.5	1.8	3.3	116.1	2.0	4.6	145.4	1.6	3.6					
	30~39	108.7	2.0	4.3	115.1	2.7	4.6	119.2	3.6	6.1	127.4	3.9	6.1	132.3	2.8	4.3					
	30~34	109.5	3.4	7.5	127.6	4.3	8.2	124.0	5.8	9.2	150.4	6.0	7.8	112.8	4.4	5.0					
경남	35~39	105.9	0.6	0.9	107.8	1.0	1.6	120.7	1.8	3.3	119.3	2.0	4.3	147.6	1.5	3.7					
	30~39	107.6	1.9	4.1	116.6	2.6	4.5	122.3	3.6	6.0	132.4	3.9	5.8	130.1	2.8	4.3					

행정 구역	연령(세)	2000		2005		2010		2015		2020	
		성비	초혼 비율 남성 여성	성비	초혼 비율 남성 여성	성비	초혼 비율 남성 여성	성비	초혼 비율 남성 여성	성비	초혼 비율 남성 여성
제주	30~34	105.4	3.9 9.1	127.9	4.6 7.9	113.9	5.6 8.8	139.1	6.0 7.5	93.1	4.8 4.8
	35~39	101.3	0.8 1.5	107.1	1.0 2.3	127.9	2.1 3.8	117.4	2.3 4.7	139.7	1.9 3.9
	30~39	103.4	2.4 5.3	116.2	2.7 4.8	121.2	3.7 6.1	126.7	4.1 5.9	115.1	3.2 4.3

주: 성비는 (남성인구/여성인구*100), 초혼 비율은 (성별 초혼 건수/성별 인구)로 산출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혼인 자료(각 연도)

성비 불균형과 초혼 비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시 지역의 경우 2010년, 2015년, 2020년에 30대 초반 여성에서 성비가 높을수록 인구 대비 초혼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간의 결혼 연령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통 남녀 간의 결혼 연령 차가 3년 정도이고, 크게 보면 남성의 30대 초반, 여성의 20대 후반이 평균 초혼 연령대이므로, 이 연령대의 경우는 여성보다 높은 연령의 남성 수가 많은 것이 여성의 혼인 가능성을 높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 후반 여성은 30대 초반 여성의 경향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연령대에 결혼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남자가 많다는 것과 결혼할 만한 (marriageable) 상대가 많다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19〉 연령 차이를 고려한 광역시 단위 지역별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²⁴⁾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30~34세					
남성 초혼 비율	-0.74 †	-0.52	-0.25	-0.30	-0.13
여성 초혼 비율	-0.94**	0.40	0.72 †	0.84*	0.93**
35~39세					
남성 초혼 비율	-0.64	-0.63	-0.84*	-0.89**	-0.88**
여성 초혼 비율	-0.68 †	-0.89**	-0.83*	-0.78*	-0.73 †
30~39세					
남성 초혼 비율	-0.82*	-0.68 †	-0.56	-0.71 †	-0.66
여성 초혼 비율	-0.92**	-0.83*	-0.16	-0.08	0.55

주: 1) ***: p<0.001, **: p<0.01, *: p<0.05, †: p<0.1

2) 광역시 지역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포함됨.

3) 성비는 (남성인구/여성인구*100), 초혼 비율은 (성별 초혼 건수/성별 인구)로 산출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혼인 자료(각 연도)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24) 해당 분석은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진행한 후 Fisher의 z 변환(transformation)을 통해 다시 한번 Pearson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후자를 통한 모든 분석의 유의성은 전자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음.

한편, 30대 후반 남성은 성비와 결혼 간의 관계가 음(-)으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남성들의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30대 초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한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유의수준이 낮은 결과이지만 2020년의 30대 초반 남성은 결혼과 음(-)의 관계에 있는 반면, 동 연령대의 여성은 광역시의 결과와 같이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연령 차이를 고려한 도 단위 지역별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30~34세					
남성 초혼 비율	-0.08	0.13	-0.11	-0.00	-0.63 †
여성 초혼 비율	-0.27	0.01	0.33	0.70*	0.64 †
35~39세					
남성 초혼 비율	0.18	0.38	0.63 †	-0.08	-0.47
여성 초혼 비율	-0.47	-0.51	0.24	-0.41	-0.38
30~39세					
남성 초혼 비율	-0.23	-0.13	0.06	-0.02	-0.75*
여성 초혼 비율	-0.66 †	-0.55	-0.07	-0.01	0.07

주: 1)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2) 광역시 지역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포함됨.

3) 성비는 (남성인구/여성인구*100), 초혼 비율은 (성별 초혼 건수/성별 인구)로 산출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혼인 자료(각 연도)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마지막으로 광역시와 시도 지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는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과 관계없이 결혼과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지만, 여성은 30대 초반에서는 양(+)의 관계, 30대 후반에서는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연령 차이를 고려한 전체 지역 성비와 초혼 간의 상관계수: 2000~202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30~34세					
남성 초혼 비율	-0.68**	-0.49†	-0.40	-0.48†	-0.47†
여성 초혼 비율	-0.51*	0.65**	0.74**	0.85***	0.83***
35~39세					
남성 초혼 비율	-0.02	-0.00	-0.11	-0.71**	-0.80***
여성 초혼 비율	-0.61*	-0.80***	-0.67**	-0.84***	-0.78***
30~39세					
남성 초혼 비율	-0.67**	-0.57*	-0.56*	-0.74**	-0.75**
여성 초혼 비율	-0.70**	-0.42	-0.01	-0.30	0.24

주: 1) ***:p<0.001, **:p<0.01, *:p<0.05, †:p<0.1

2) 성비는 (남성인구/여성인구*100), 초혼 비율은 (성별 초혼 건수/성별 인구)로 산출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혼인 자료(각 연도)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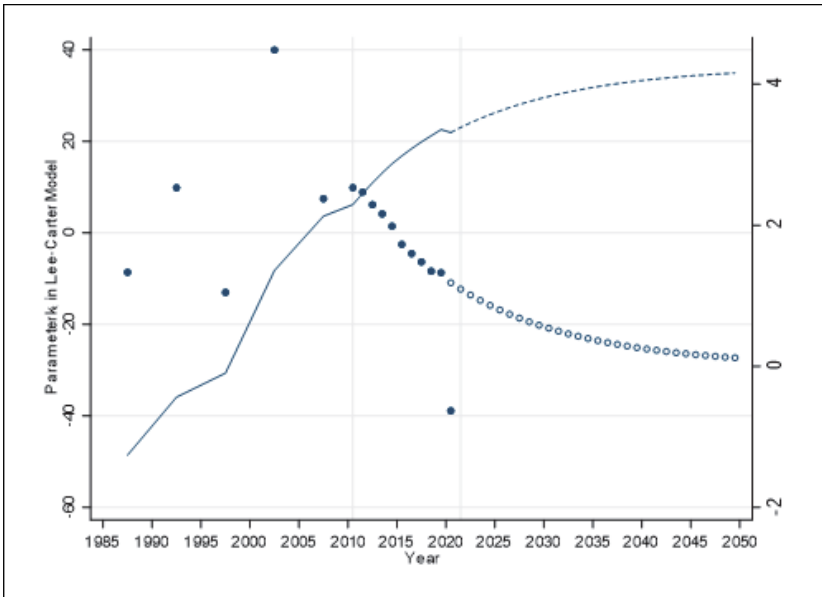
제3절 생애 미혼율의 장래 추계

이번 장에서는 주로 남녀 간의 결합(결혼)을 분석하였으나, 남녀의 결합(결혼)으로 남게 되는 잔여로서의 미혼인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50세의 미혼율을 생애 미혼율이라고 하며, 이들의 규모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미혼인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애 미혼율의 장래 추계는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ee-Carter 모델을 적용한다. 1985~2021년의 미혼율에 Lee-Carter 모델을 적용하여 추정된 미혼지수(k_t)의 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미혼지수가 198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혼율 상승은 가속화되었으나, 2005년부터 2010년 이후의 미혼율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그림 3-6). 따라서 앞으로 도 미혼율은 계속 상승하겠지만, 상승 속도는 로그 선형으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²⁵⁾

[그림 3-6] 미혼지수(k_t)의 추이: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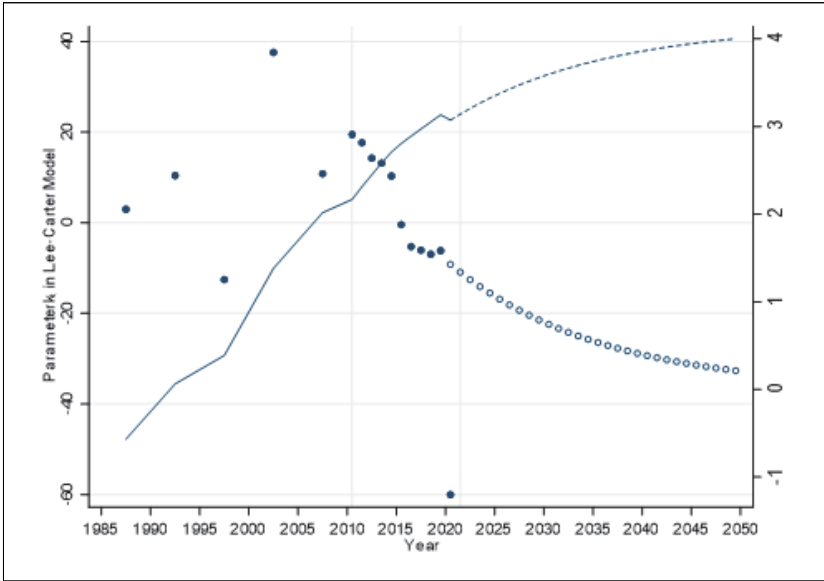


주: 1985~2021년은 실측치, 2022~2050년은 추정치(좌측 눈금), 동그라미는 k_t 의 1년간 평균 변화폭($k_t - k_{t-1}$, 우측 눈금)을 나타냄.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25) 다만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미혼지수는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돌발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장래 기간에 대한 보외(補外)법을 적용하였는데, 2005~2010년의 평균 변화, 2010~2011년 이후 2019~2020년까지 미혼지수 변화폭의 로그 선형 감소($\log(k_t - k_{t-1}) = a + bt$)가 2021~2022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함.

[그림 3-7] 미혼지수(k_t)의 추이: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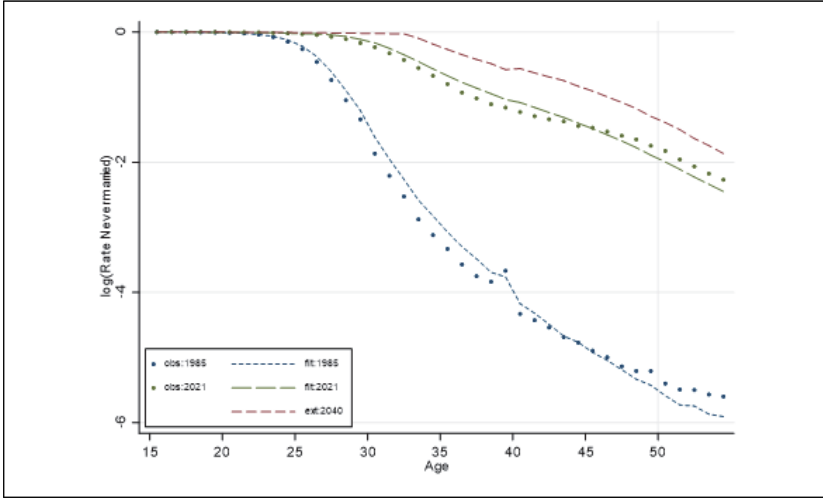


주: 1985~2021년은 실측치, 2022~2050년은 추정치(좌측 눈금), 동그라미는 k_t 의 1년간 평균 변화폭($k_t - k_{t-1}$, 우측 눈금)을 나타냄.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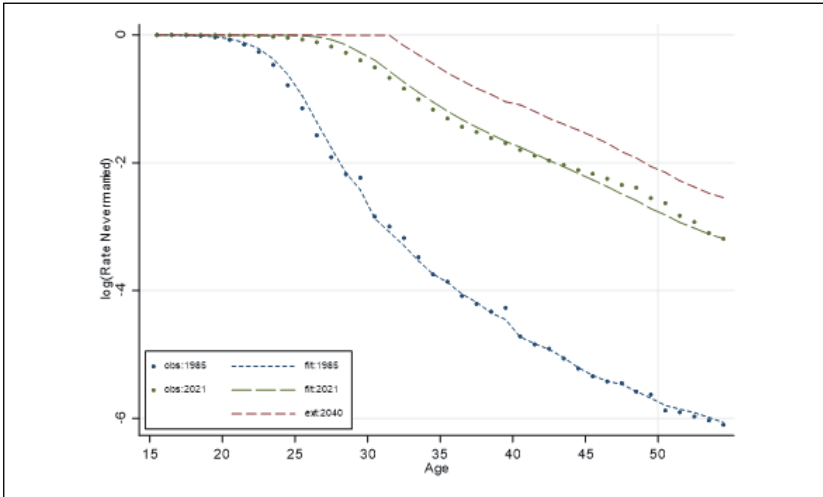
장래 미혼지수와 파라미터 추정치를 도입하고 Lee-Carter 모델을 이용하여 장래 미혼율을 남녀별 및 지역별로 예측하였다. 한국 전체의 남녀별 및 연령별 미혼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35세 미혼율은 1985년 4.6%에 불과했지만, 2021년 51.1%까지 상승했고, 최근의 변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2050년에 76.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8). 여성의 30세 미혼율은 1985년 2.0%에서 2021년 30.4%로 상승하였으나, 2050년에는 55.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9).

[그림 3-8] 연령별 미혼율 추이: 남성



주: 1985~2021년은 실측치, 2022~2050년은 추정치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그림 3-9] 연령별 미혼율 추이: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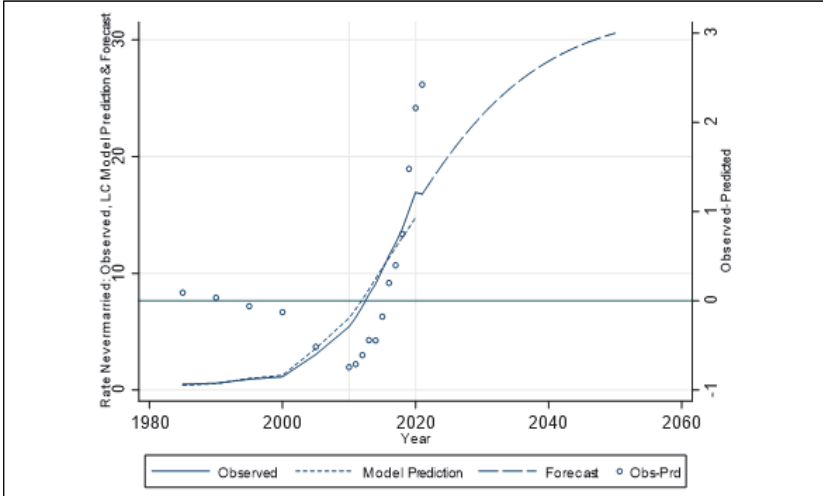
주: 1985~2021년은 실측치, 2022~2050년은 추정치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이렇게 추계된 연령별 미혼율 중 49세와 50세 평균을 이용해 50세 미혼율을 산출하였다. 50세 미혼율에 있어서 Lee-Carter 모델 예측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2010년 전후의 수치는 실적에 비해(남성은 최대 1%p, 여성은 최대 0.5%p 정도) 과대 예측된 반면, 2010년대 후반 이후 모델 예측치는 실적에 비해 과소 예측되었다. 이는 2010년대 후반 이후에 50세 미혼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패턴을 Lee-Carter 모델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한정적이므로 모델로 예측한 50세 미혼율의 장래 변화 패턴을 2021~2022년 이후의 장래 50세 미혼율 변화로 투영하였다.²⁶⁾ 2010년 이후 한국 전국의 남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남성 50세 미혼율은 1985년 0.5%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16.8%로 상승하였고, 앞으로 상승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 2050년에는 30.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10). 여성의 경우 1985년 0.3%에서 2021년 7.5%로 상승하였으며, 2050년 1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11). 즉, 앞으로 남성의 50세 미혼율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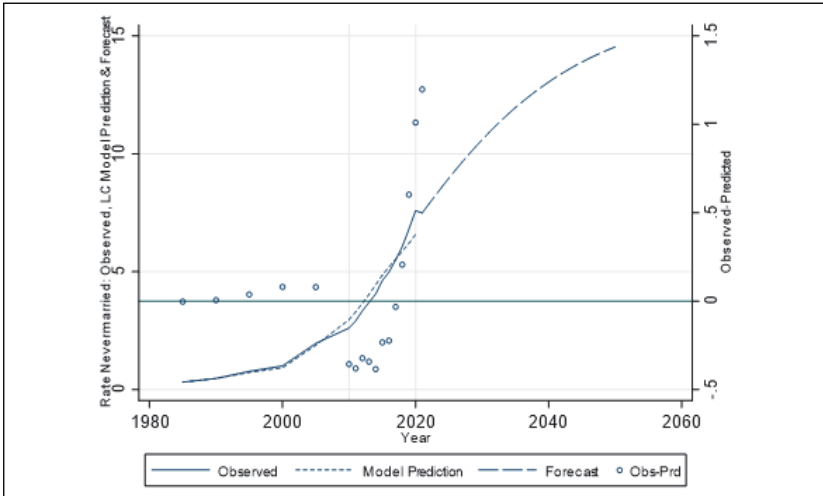
26) 구체적으로는 50세 미혼율에 대한 t 년 실적치를 S_t , 모델 예측치를 \hat{S}_t 로 써서 $\hat{S}_t \cdot (S_{2021}/\hat{S}_{2021})$ 를 최종 장래 추계치로 산출하였음.

[그림 3-10] 50세 미혼율 추이: 남성



주: 1985~2021년은 실측치, 2022~2050년은 추정치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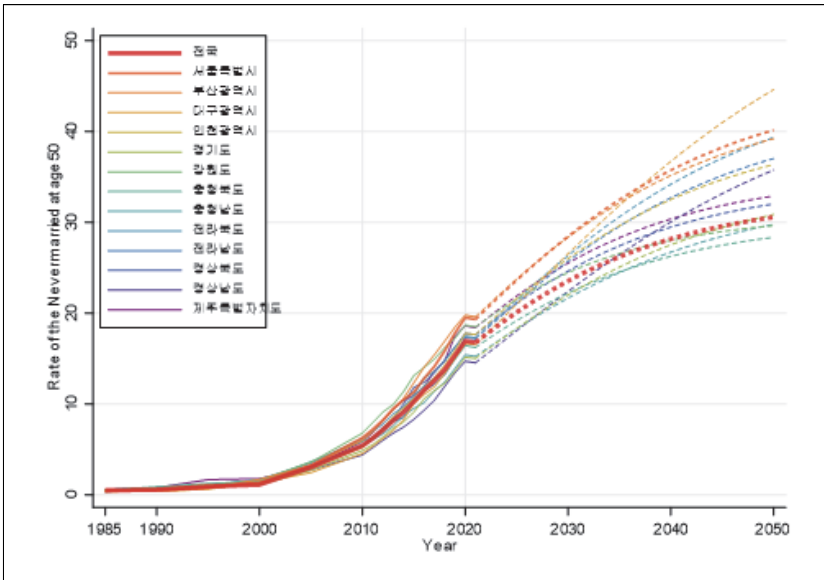
[그림 3-11] 50세 미혼율 추이: 여성



주: 1985~2021년은 실측치, 2022~2050년은 추정치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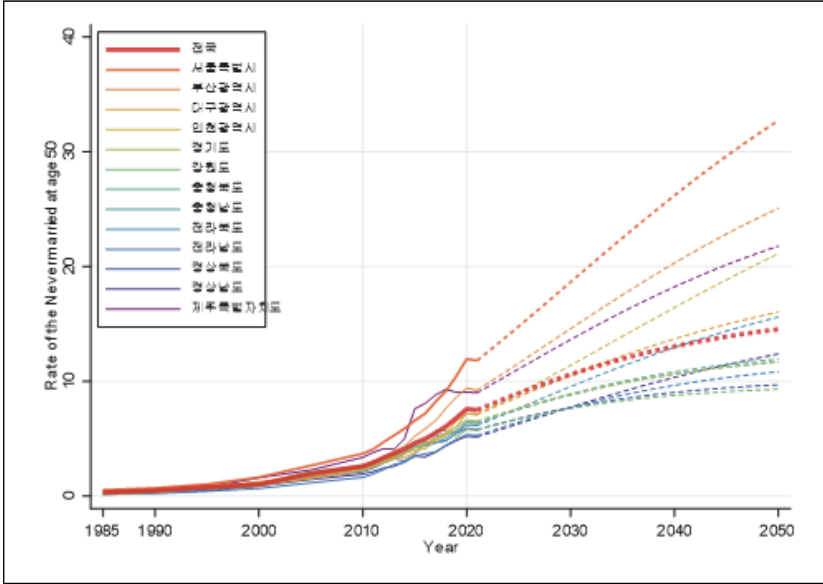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역별 50세 미혼율의 장래 추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50세 미혼율의 장래 전망 결과는 지역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2050년 50세 미혼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청북도로 28.4%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44.6%까지 상승할 것이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40.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12). 2050년 여성의 생애 미혼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9.3%인 반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는 32.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13).

[그림 3-12] 지역별 50세 미혼율 추이: 남성



주: 1985~2021년은 실측치, 2022~2050년은 추정치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그림 3-13] 지역별 50세 미혼율 추이: 여성



주: 1985~2021년은 실측치, 2022~2050년은 추정치
 자료: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관계별 미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산출.





제4장

미혼인구의 정책적 욕구

제1절 지방 미혼인구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제2절 지방 미혼인구에 대한 결혼 지원 정책

제3장 지방의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인식



제 4 장 미혼인구의 정책적 욕구

앞서 실증 분석에서는 지방 미혼인구(청년)가 직면하고 있는 결혼 시장이 인구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고, 이러한 구조적인 지역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이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 청년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 기타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청년들의 지역 유입·유출 정책 및 지방에서의 이성을 만나는 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적 욕구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 미혼인구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은 수도권 및 광역시(세종시 포함)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 성별, 연령을 안배하여 추출하였다. 지역은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이며, 특히 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인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능한 '군'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지역별로 남녀 한 명씩, 그리고 결혼이 주로 이루어지는 30대를 추출하였다. 단, 경상도는 출생성비 등에서 타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서 두 배의 인원으로 하였다. 인터뷰 형식은 기본적으로 1인 심층인터뷰로 하였고,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표 4-1〉 인터뷰 대상자 개요

No.	지역구분	거주지	성별	연령	거주기간	직업
1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남성	31	3년	의료보건 사무직
2		원주시 판부면	여성	31	4년	교직원
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남성	37	15년	공공기관 사무직
4		진천군 덕산읍	여성	33	4년	제조 사무직
5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성	32	25년	공무원
6		당진시 합덕읍	여성	35	3년	계약 사무직
7	경상북도	포항시 대송면	남성	39	18년	반도체 사무직
8		안동시 풍천면	남성	34	1년 2개월	공무원
9		경산시 하양읍	여성	36	9년	교직원
10		청도군 금천면	여성	34	3년	디자인 프리랜서
11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남성	34	3년	건설업
12		창원시 의창구	남성	31	30년	제조 사무직
13		창원시 대산면	여성	32	20년	제조 사무직
14		기장군 정관읍	여성	32	5년	건설 사무직
15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남성	32	7개월	조경 자영업
16		완주군 봉동읍	여성	35	5년	연구원
1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성	37	4년	사회복지사
18		화순군 화순읍	여성	38	25년	보건행정 사무직
19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남성	36	15년	농업
20		제주시 한경면	여성	39	5년	숙박업

자료: 조성호 외. (2022).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심층인터뷰 조사 자료.

제1절 지방 미혼인구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이 절에서는 지방 미혼인구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 보려 한다. 특히 결혼 및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교통,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1. 방해 요인

가. 일자리

일자리와 관련해서 남성은 지역에서 받는 임금과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대우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커리어 측면에서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있는데 굳이 조건도 좋지 않은 지방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의 임금이 타지역 대비 낮고 최저임금을 안 주는 곳도 많아요. 소위 폰대도 포항이나 대구, 경북에 많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포항 사람이라서 못 느꼈는데 타지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 텃새도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연애와 결혼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7/경북 포항시/남성/39세)

“여자친구가 경력 때문에 전라도에 내려오는 것을 꺼려해요. 보통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 본인이 왜 그런 것을 포기하고 지방에 내려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15/전북 완주군/남성/32세)

나. 주거

주거와 관련한 질문에 남성들은 지방에 거주할 곳이 없다는 것과 제주

도의 경우 수도권권의 주거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여성들은 지방에서 경험하는 주거의 어려움보다는 일반적인 주거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완주가 좋아서 왔는데 실제 거주할 곳이 없어요.”(#15/전북 완주군/남성/32세)

“제주도 집값은 수도권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문제가 있긴 하죠.”(#19/제주도 서귀포시/남성/36세)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까지 준비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그건 당연히 결혼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단칸방부터 시작하는 그런 세대였지만, 요즘은 집을 마련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여력이 안 되면 당사자들이나 집안에서도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쉽게 우울해지고 포기하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결혼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6/충남 당진시/여성/35세)

“주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주변 친구들도 전세자금 대출 과정이 복잡하고 저축한 돈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서 집 구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말했고요.”(#13/경남 창원시/여성/32세)

다. 문화·복지·교통

지방에서 결혼 및 출산을 한다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특히 생활적인 측면에서 놀고, 먹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복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중교통, 문화축제, 의료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이동이 어렵고, 문화축제 이외에는 즐길 거리가 없어서 데이트를 해도 갈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이 없으면 돌아다니기 힘들고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시내버스가 있긴 하지만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정류장을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1/강원도 원주시/남성/31세)

“지역 축제 및 문화회관 공연 이외 즐길 것이 없어요. 있어도 노인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라서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5/충남 홍성군/남성/32세)

“해남에 뭐가 있어야지 방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인프라가 부족해요. 병원이 있지만 돌팔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가서 치료를 받는 분도 계세요.”(#17/전남 해남군/남성/37세)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일찍 닫아서 데이트를 할 곳이 없어요.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열려 있고 분위기는 좋을 수 있지만 가격적인 면이나 맛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20/제주도 제주시/여성/39세)

라. 기타

그 이외에 고부 및 가치관 갈등 등이 결혼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다만, 이는 지방에서의 결혼·출산에 따른 어려움보다 일반적인 어려움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은 일반적인 결혼에서 겪는 어려움에 더하여 지방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과 결합을 하는 거다 보니깐 시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13/경남 창원시/여성/32세)

“가치관이 어긋나는 경우 결혼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요새는 개인주의가 많아지니깐 의견이 부딪힐 때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깐요.”(#14/부산시 기장군/여성/32세)

“집안 행사 등을 준비할 때 생기는 고부갈등을 생각하면 보수적인 문화가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해요.”(#19/제주도 서귀포시/남성/36세)

2. 정책 대안

가. 일자리

결혼 및 출산 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써 일자리 측면을 보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및 공장 유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방의 일자리가 제조업 등에 치중되어

있어 취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큰 기업이 와야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어요. 홍성도 국가 산단지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기업들이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포 쪽에는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고 종합병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양질의 일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이외 할 것이 없으니 다 천안이나 평택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곳도 좋은 곳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하려고 나간 거죠.”(#5/충남 홍성군/남성/32세)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고 복지 및 체제 같은 것이 좋기 때문에 주변 선생님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동력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 대비 기회가 적다고 생각해요. 제주 주변에는 하양읍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서로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으로 인해 특별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거나 일자리만 안정되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고 느껴요.”(#9/경북 경산시/여성/36세)

“기업 유치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포항 같은 경우 포스코 홀딩스나 2차 전지 쪽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안동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을 때 유입인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8/경북 안동시/남성/34세)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라도에도 공장이 있으면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할 텐데 그런 대기업이나 공장 단지가 없으니 청년들이 할 일이 없죠.”(#17/전남 해남군/남성/37세)

“일자리가 특정 업종에 치중되어 있어서 범위가 넓지 않아요. 급여도 높은 편이 아니라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14/부산시 기장군/여성/32세)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 사람들이고, 지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 같은 것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혜택을 지방에서 받으면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취직이 문제예요. 혁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직원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라서 청년들의 취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친구들도 대부분 서울로 가요.”(#2/강원도 원주시/여성/31세)

“큰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많아도 거기에 취업한 사람들은 서울에서 인프라를 계속 누려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인프라에 대해 불만족하는 분들도 많고,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4/충북 진천군/여성/33세)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게끔 취업 연계나 멘토링이 잘 됐으면 좋겠고, 청년활동지원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교육을 받으면 의무 저주를 하는 등의 조건들을 포함해서 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1/강원도 원주시/남성/31세)

이외에 최저임금제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과 연애 및 결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방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업체 단속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월세 내고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최저시급으로는 힘들거든요.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7/경북 포항시/남성/39세)

“주거지와 다양한 일자리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완주에는 협동조합도 많고, 군에서도 지원이 많았어요.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발전해 가는 모습도 보이고 성장률도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군수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한 성장이 다 멈췄고 일부 협동조합은 타 지자체로 쫓겨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깐 군이 이 지역에 왜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민도 많아지더라고요.”(#15/전북 완주군/남성/32세)

나. 주거

주거 측면에서는 대출 및 임대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버팀목 대출이나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8/경북 안동시/남성/34세)

“임대를 받든 구매를 하든 해야 하는데 어지간히 돈 모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살려고 왔다가 직장도 못 구하고 이래저래 해서 1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20/제주도 제주시/여성/39세)

다. 문화복지·교통

문화적인 측면에서 최근의 청년층은 SNS 등을 활발히 이용하므로 지역의 랜드마크 등이 있으면 지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 문화 체험 등에서 수도권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 양육 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오려면 지역 랜드마크가 하는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랜드마크도 중요한데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1/강원도 원주시/남성/31세)

“복지와 문화 같아요. 여기에도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문화체험 격차가 너무 커서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유치하면 청년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위해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세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해요. 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 환경만 보고 낯선 곳에 왔는데 그런 커뮤니티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더니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서 신선했고 유대감이 생겨서 좋았어요.”(#10/경북 청도군/여성/34세)

수도권은 병원, 마트 등이 주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만, 지방은 이러한 곳에 방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야 하고, 자기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 차가 있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외부에서의 유입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역 인프라가 정말 중요해요. 서울은 주변에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버스 타고 가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있고,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6/충남 당진시/여성/35세)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요.”(#8/경북 안동시/남성/34세)

“대형 쇼핑몰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취향이 모두 다른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있는 가족도 갈 수 있고 커플들도 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인프라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12/경남 창원시/남성/31세)

“문화생활이나 교육 등의 인프라가 전무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역 정착하기 힘든 것 같아요.”(#11/경남 진주시/남성/34세)

“사회 초년생의 경우 차량이 없기도 하고 구매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도 중요하고요.”(#6/충남 당진시/여성/35세)

“사회 초년생의 교통 부담을 완화해주면 좋겠습니다. 버스 노선이 부족해서 경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공용 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늘려주면 좋겠어요. 지역민 이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마음 편히 주차를 하고 놀러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12/경남 창원시/남성/31세)

제2절 지방 미혼인구에 대한 결혼 지원 정책

1. 결혼을 위한 이성과의 만남 현황

지방의 인구구조가 남성의 결혼에 불리하다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났고, 이는 남녀가 서로 이성을 만나기에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의 미혼인구가 이성을 만나기 위해 하고 있

는 활동과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지자체 사업 및 결혼정보회사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지방 미혼인구가 이성과 만나는 통로는 소개팅, 데이팅 앱, 동호회 등의 단체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개팅의 경우에는 거부감 없이 기회가 되면 만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소개팅을 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지만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는 편이라서 결혼한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팅을 받죠.”(#7/경북 포항시/남성/39세)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선을 본 적도 있고요. 어차피 옛날처럼 딱 만난다고 해서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니깐 일단 만나보고 괜찮으면 하는 거죠.”(#17/전남 해남군/남성/37세)

데이트앱도 이성을 만나는 하나의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데이트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에 앱을 통해 연애를 시작한 지인이 있지만 지역 내 이용자가 없는 경우 만남이 어렵다고 하였다.

“대학교 초반 때 소개팅 어플론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쓸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사람도 많았고 인식도 안 좋았는데, 요새는 어플로 만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14/부산시 기장군/여성/32세)

“앱을 이용해 보니 연결이 어렵고 돈을 쓰면 쓸수록 매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11/경남 진주시/남성/34세)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해봤지만, 요새 연애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딱히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걸로 지금까지 잘 연애하는 사람도 한 명 있어요.”(#5/충남 홍성군/남성/32세)

“데이트 어플도 대도시에서나 이용자가 많지, 이 지역에는 이용자가 없어서 지인을 통해 만나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8/경북 안동시/남성/34세)

그러나 여성 중에서는 데이트앱에 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가 생겼거나 모르는 상대방이기에 두렵다는 사례도 있었다.

“어플을 써본 경험이 있는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싫었고, 그런 경험이 쌓여서 남성 자체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것도 같았어요.”(#10/경북 청도군/여성/34세)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앱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무서워요.”(#4/충북 진천군/여성/33세)

이성과 만나기 위해 동호회 등의 단체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호회 수가 많지 않아서 찾기 어렵고 또래를 만나기 어렵다는 경우가 있었다.

“혁신도시에 동호회가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20~30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1/강원도 원주시/남성/31세)

“교제 상대를 만나려고 동호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동호회가 많지도 않고 회원 연령대가 높아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4/충북 진천군/여성/33세)

“젊은 동호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동호회를 찾기 위해서는 부산 전체를 뒤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14/부산시 기장군/여성/32세)

“해남은 땅은 크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좁아서 동호회 활동을 할 때 옆에 있는 강진에서 하죠. 그리고 동호회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바이올린 동호회를 광주에서 하다가 해남으로 왔을 때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문기사로 연락처를 겨우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동호회 주축이 옛날 분들이라서 SNS보다는 지인을 통해서 명함을 돌리는 편이에요.”(#17/전남 해남군/남성/37세)

또한, 본인이 알고 있는 모임은 분위기가상 들어갈 수 없고, 어딜 찾아봐도 이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회와 부녀회가 있는데, 먼저 부녀회는 결혼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의 모임이라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고, 청년회는 남자

분들이 90% 이상이고, 그중에도 부녀회 제신 분들의 남편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가 없어요. 싱글 남성들이 제주도에 있다고 하는데 다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 찾기 어플을 해봐도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커뮤니티 활동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지, 그런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20/제주도 제주시/여성/39세)

2. 결혼을 위한 이성과의 만남 지원

지방에서의 이성과의 만남이 어려우므로 이들의 만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남 프로그램이나 결혼정보회사 같은 수단에 대해 질문하여 의견을 들어보았다.

가. 지자체의 만남 지원 프로그램

먼저 지자체에서 만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혼 공무원을 차출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참가는 안 했지만 공공기관끼리 미팅을 하더라고요. 공문 보내서 결재 떨어지면 방송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잠깐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참가한 사람이 있었지만, 등 떠밀리듯이 차출돼서 나갔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나 인식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검증된 기관끼리 하는 거고 알음알음 하면 참석한 분이 누군지도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문제가 있는 남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남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1/강원도 원주시/남성/31세)

“*** 지역에서 ‘**로 씬 타러 갈래’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솔로다’처럼 공개를 하고 연애를 하겠다고 표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깐 과별로 2명 정도 차출해서 무조건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안 된 것 같아요.”(#5/충남 홍성군/남성/32세)

“주관이 어딘지는 모르겠고 아마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광주에 있는 공기업과 학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오작교’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9/경북 경산시/여성/36세)

“공공기관 내 맞선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문을 본 적이 있는데, 참가한 적이 없고 기관에서도 참가하신 분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골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기관 이벤트라서 참여를 유도하고 인원을 차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원하지 않았음에도 나가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18/전남 화순군/여성/38세)

“**에서도 ‘나는 솔로’랑 비슷한 것을 기획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군청 직원들을 차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밥 먹는 분위기였어요. 군청에서 젊은 사람들 연결을 해주려고 그런 행사나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서로 이어주려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17/전남 해남군/남성/37세)

이러한 만남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경우도 있었고, 데이트앱처럼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프로그램 포장 및 홍보를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남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4/충북 진천군/여성/33세)

“결혼정보회사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행사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결혼정보회사보다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6/충남 당진시/여성/35세)

“처음 들어봤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도 못 봤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19/제주도 서귀포시/남성/36세)

“들어본 적이나 그러한 노력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도 데이트

앱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응이 괜찮은 것 같
 거든요. 프로그램 포장을 잘하고 홍보도 잘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결혼해야 된다는 분위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 같
 아요.”(#11/경남 진주시/남성/34세)

그러나 지역적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이러한 공개된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이 좁기도 하고 인터넷 뉴스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친구가 공무원인데 사람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차출
 되었어요. 연말에 특히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7/경북 포항
 시/남성/39세)

만남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사업화를 하거나 지
 자체가 결혼정보회사 같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좋
 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자체 만남 프로그램을 인근 지자체와 묶어서 진
 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연애 목적보다는 친
 목 위주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발전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출산율을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
 적으로 사업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된다면 지자체에서 결
 혼정보회사 같은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혹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3/
 충북 청주시/남성/37세)

“교제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인근 지자체와 묶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인식 자체가 포항과 경주는 하나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고요. 요새는 남성이나 여성도 자차가 있고 20~30분 이동해서 만나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별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7/경북 포항시/남성/39세)

“만약 반려견 모임을 모아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갈 의향은 있지만 연애보다는 친목 위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공감대가 같아서 대화도 잘 되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괜찮은 분이 없는지 찾아볼 것 같아요.”(#10/경북 청도군/여성/34세)

그러나 개인의 만남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의 만남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보편적인 지원이 아니라서 세금 낭비인 것 같아요. 차라리 동호회와 같은 모임을 지원해주면 복지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2/강원도 원주시/여성/31세)

나. 결혼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고, 주변 지인이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여 결혼했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서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결혼정보회사는 널리 알려진 유명 결혼정보회사가 아닌 지역의 작은 결혼정보회사라고 하였다.

“결혼정보회사가 자기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준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없고 인식이 나쁘지 않다면 한 번 정도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17/전남 해남군/남성/37세)

“주변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실제 결혼했다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해 많이 부정적이었지만 그런 사례를 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좋은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을 더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18/전남 화순군/여성/38세)

“회사에 40대 정도의 차장님이 그걸 통해서 결혼하셨어요. 가입은 오래전에 하셨고 올해 3월에 만나서 6월에 결혼하셨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은근히 결혼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두*와 같은 너무 큰 회사에 가입하지 말고 작은 지역에서 만든 결혼정보회사는 내가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상대를 찾아서 결혼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커플들 중 이혼한 커플도 없고 지금까지 잘 살아서 이미지가 좋은 편이에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사람들은 정말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강제성도 없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켜주니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6/충남 당진시/여성/35세)

대규모의 결혼정보회사는 사람에 등급을 매겨서 매칭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례가 있었고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비용이 비싸서 그 돈으로 본인을 가꾸는 것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인이 해봤는데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등급과 돈으로 환산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는 사람을 너무 수치화하고 등급화 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어요.”(#10/경북 청도군/여성/34세)

“상담 중 등급을 매기고 비용을 안내받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팔려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만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정보 제시를 하는 정도로만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9/경북 경산시/여성/36세)

“아는 언니가 경험해봤는데 원하는 사람들을 매칭해주고 실패해도 소개팅처럼 계속 매칭을 해주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곳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 가입 비용으로 저를 가꾸면서 동호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사람 만나려고 돈을 쓰는 것이 아깝고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도 안 할 것 같아요.”(#2/강원도 원주시/여성/31세)

그러나 만일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적인 지원이 있다면 이용할 의향은 있고, 앱의 경우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결혼정보회사는 신원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앱보다는 신뢰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악용 사례가 나올 수도 있으니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결혼정보회사 비용을 일부 지원해준다면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비용이 부담스럽고 사람을 만나는 데 굳이 그런 비용까지 투자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18/전남 화순군/여성/38세)

“결혼정보업체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인데 지원해준다면 부담 없이 이용할 것 같아요.”(#5/충남 홍성군/남성/32세)

“결혼정보회사 지원이 있고 직업적 제약이 없다면 충분히 이용할 생각이 있어요. 앱의 경우 익명성이 있어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결혼정보회사는 상대의 정보를 가지고 매칭을 직접 해주는 것이어서 조금 더 신뢰가 있어요.”(#11/경남 진주시/남성/34세)

“결혼정보회사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매칭만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악용 사례가 나올 수도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19/제주도 서귀포시/남성/36세)

그러나 결혼정보회사 비용을 굳이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오히려 일시적인 남녀 만남 이벤트를 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악용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군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6/충남 당진시/여성/35세)

“서로의 목적이 있어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4/충북 진천군/여성/33세)

“결혼정보회사를 군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정보회사는 무조건적으로 짝짓기를 하기 위한 도구 같은 느낌이에요. 차라리 옛날 여의도 광장에 남녀 천 명씩을 모집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20/제주도 제주시/여성/39세)

제3절 지방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인식

1.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인식

최근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 및 귀촌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 주거 지원, 용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의견에 대해 들어보았다. 조사 결과,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신규 유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원주민 대상의 지역 혜택 및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귀농·귀촌 같은 혜택에 대해서는 지역이 없어지는 위기에서 지역 사람들과 융화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4/충북 진천군/여성/33세)

“청년들이 귀농했을 때 교육이나 필요한 지원을 해줘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귀농·귀촌 분야에서는 신규 유입된 분들도 지원을 받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고 연령대별로 지원하는 사업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2/강원도 원주시/여성/31세)

“귀농 대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입을 시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득 범위의 단계가 엄청나게 달라질 정도의 지원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그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1/강원도 원주시/남성/31세)

“귀농·귀촌인 대상의 정책과 관련해서 기존 계시던 분들은 예전부터 체득이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취지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9/경북 경산시/여성/36세)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부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이 원주민에 대한 역차별이고,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 범죄 등의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다. 또한, 역차별까지는 아니라도 원주민 청년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그러한 정책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관내 주민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판단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점제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청년 수가 늘거나 줄거나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창원 인구가 너무 많아져도 교통 문제라든지 최근 칼부림 사건과 같은 사건사고들 때문에 불편할 것 같고 반대로 인구가 줄어도 특례시 유지가 힘든 부분도 있으니깐요.”(#13/경남 창원시/여성/32세)

“이미 살고 있거나 신규로 왔을 때 지원해 주는 정책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나도 부산에서 자취를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조금 서운했던 것이 있어요.”(#14/부산시 기장군/여성/32세)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 대한 소소한 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8/경북 안동시/남성/34세)

2.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대안

지방의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나 전입 축하금 등의 소액 지원으로는 지방의 인구 감소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입 축하금을 주고 있는데 한시적인 정착이 아닐까, 실제 전입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흥성이 승격하기 위해 1만 명을 유입해야 하는데 결혼 축하금 등과 같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한시적인 지원보다 산단지역 지정처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올 것 같아요.”(#5/충남 홍성군/남성/32세)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액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11/경남 진주시/남성/34세)

“과학단지 근무자 대상으로 무이자 전세금과 매월 월세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거 받으신 분들 현재는 모두 타지로 가셨어요.”(#16/전북 완주군/여성/35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젊은 층도 확보하고 그 지역의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 원주민들에게는 당장 직접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득을 보게 되거든요.”(#19/제주도 서귀포시/남성/36세)

청년들을 유인하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원주민 청년을 포함하여 지역에 있는 미혼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주거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화순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 주거비 등의 지원 혜택이 있지만 화순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화순에서 결혼하면 결혼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 등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미혼인 청년들은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주거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있으려고 하고 안주하는 거지만 거주지가 없다고 하면 일찍이 타지로 나갔을 것 같아요. 주거비 지원 혜택 등이 있다면 기존 청년들이 조금 더 여기서 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18/전남 화순군/여성/38세)

“주거지원비 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혜택도 더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10/경북 청도군/여성/34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제 5 장 결론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197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자연성비를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198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자연성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이후 2007년경에 자연성비의 범위 안으로 돌아왔지만, 그때까지 약 30년 이상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이것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 재생산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결혼 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혼화 및 비혼화의 증가는 미혼 남녀들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사회경제적 및 주거 특성에 편중되어 분석되어 왔으나, 이처럼 출생성비 불균형에 의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영향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약 30년 이상 지속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현재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과 이러한 성비 불균형과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생성비 불균형은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속·혼인제도, 가문 계승 등에 따른 강한 남아선호사상, 출산을 제한하는 가족계획 정책, 그리고 성 선택적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도입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에 출생성비 불균형이 시작되어 2004년에는 121명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 112.3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40여 년 동안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며, 한 자녀 정책이라는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였고, 1980년대 초반부터 성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Guilimoto(2009)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후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을 타파하고자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였고, 성 선택적 출산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였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다. 중국은 남아선호사상이 현재도 여전히 남아 있고, 성 선택적 출산이 암암리에 행해져 오고 있어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Guilimoto(2009)의 요인 중 가족계획정책이 폐지되었고, 성 선택적 출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것이 출생성비 불균형이 완화된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출생성비 불균형이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이들이 '결혼 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결혼 성비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이 이 연구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먼저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재생산 연령대의 성비 불균형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코호트별 성비의 시계열 추이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는데, 1970년대 코호트는 대부분 10~20대 무렵에 자연성비로 되돌아오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코호트부터는 1970년대 코호트와 비교하여 약간의 성비 감소가 있었지만, 성인기 이후에도 자연성비를 크게 넘어서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선 가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코호트부터는 틀리지 않은 것임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결혼의 가능성이 미혼에게 있으므로 미혼인구의 성비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분석 결과, 미혼인구의 성비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있었던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미혼인구의 성비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2020년 기준 1990년 코호트의 성비는 144.6명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미혼인구의 경우는 성비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1970년 코호트의 미혼인구는 약 10만 명인 반면, 1990년 코호트는 약 44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코호트의 미혼화 및 비혼화가 이전 코호트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서로 다른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의 차이가 3세임을 감안하여 연령을 고려한 가상 결합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 지표는 3세 차이의 남녀가 모두 결혼하였을 때 남게 되는 잔여로서의 미혼인구 지표를 산출한 것으로, 남게 되는 숫자가 클수록 인구 구조적으로 결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 산출 결과 11.2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미혼화 및 비혼화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많으며, 출생성비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은 국가이지만 미혼화 및 비혼화가 매우 진행된 국가이므로 수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일본의 해당 지표를 산출한 결과는 6.3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미혼인구의 잔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미혼인구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약 120만 명, 일본이 130만 명으로, 일본의 총인구가 우리보다 약 2.5배 많은데도 미혼인구 수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결혼 시장의 성별 인구구조와 미혼화 및 비혼화의 진행이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앞서 이루어진 분석들은 성비 불균형과 결합을 별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했다. 그래서 성비와 연령별 결혼 구조가 반영

된 Schoen(1983)의 S 지표를 산출하였다. S 지표 산출 결과, 199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결혼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미혼 남성이 여성보다 19.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성별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반면에 지방은 남성이 결혼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도 지역들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에서도 나타났는데, 수도 도쿄는 타 지역에 비하여 남녀의 결혼 성비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도쿄가 서울보다 결혼 성비 불균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지역별 출생성비 불균형은 경상남·북도 및 대구 등에서 월등하게 크게 나타났고, 그 이외 지역의 출생성비도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결혼 성비가 매우 균형적이라는 결과는 재생산 연령대에 해당하는 이들이 대부분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출생 당시의 성비가 남성이 매우 많았던 구조에서 균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의 서울 이동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의 성비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혼 성비 구조의 불균형과 결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30대 초반 남성에게서 음(-)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 지역에서는 2010년대 들어서 30대 초반 남녀에게서 이미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30대 초반에서 성비 불균형이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에 30대 초반은 1990년 코호트와 그 이전 코호트이므로

출생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에게서 성비와 결혼 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동일 연령 성비를 고려할 경우의 결과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녀 간의 결혼에는 연령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광역시 지역에서는 30대 후반에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지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체 지역에서는 30대 후반에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초반 여성은 성비와 결혼 간의 관계가 양(+)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령대의 여성에게는 남성의 숫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결혼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 후반이 되면 남성의 수보다 결혼할 만한 남성의 수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미혼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는데, 앞으로 미혼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생애 미혼율(50세 시점에서의 미혼율)을 추계한 결과, 앞으로 남녀 모두 미혼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2050년 남성의 미혼율은 충청북도가 28.4%로 낮은 편이고, 대구 광역시가 44.6%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며, 강원도가 9.3%로 가장 낮고, 서울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균형발전이 그동안 경제적 의미에서 자원의 재분배 등에 초점을 맞춰 왔고, 지방 소멸 관점에서 단지 지방에 청년이 있어야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청년의 수도권 이동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의 미혼인구는 결혼 이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청년이 태어난 지역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취업하고 결혼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방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안고 있는 결혼 및 출산의 일반적인 문제점(경제적 문제 및 일·가정 양립 문제 등)에 더하여 지방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 귀농·귀촌 등과 청년 및 일자리·관광 등의 관계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 청년의 경우, 심층인터뷰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 원주민에 대한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지방의 일자리가 제조업 등에 치우쳐 있어서 취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의 부재가 여성의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및 주거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놀고, 먹고, 즐길 거리 등의 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청년 정책이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의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심층면접조사의 결과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의 만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있지만, 지역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성과의 만남 등의 기회가 비교적 풍부한 수도권에 비하여 이러한 기회가 부족한 지방의 청년들은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방 미혼인구의 만남 통로는 소개팅, 데이트앱, 동호회 등 단체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데이트앱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의 경우, 익명

의 상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고, 동호회 등은 또래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청년센터 등에서 청년들의 취미생활 등을 지원하는 동호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소통 공간, 예를 들어 영화, 독서 및 예체능 관련 모임 등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혼 남녀의 만남 프로그램은 대부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행사를 위한 인원을 동원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만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만 만일 수요가 있다면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은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근접한 몇몇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에서 현재 우리나라 결혼 시장의 인구구조가 긍정적이지 않고, 특히 지방의 상황은 서울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러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약 30년 지속되다가 2007년경부터 자연성비로 돌아온 점이다. 다만, 인구에는 모멘텀이 존재하므로 출생성비 불균형이 지속된 30여 년은 출생성비 불균형의 여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 재생산의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30여 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출생성비 불균형의 영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없어도 미혼화 및 비혼화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을 보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지표 측면에서 미혼 관련 지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은 부부가 주민센터 등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서의 초혼 연령에 불과하다. 즉, 결혼한 인구만이 초혼 연령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초혼 연령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절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잠재적인 초혼 연령은 그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초혼 연령 지표가 필요하다. 인구통계학에서는 평균 초혼 연령(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SMAM이라는 지표를 산출한다. 이 지표는 모든 인구가 미혼으로 있는 평균 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미혼인구는 물론 기혼인구까지 초혼 연령 산출에 포함된다. 물론 엄밀한 초혼 연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인구가 사망한 뒤에 결혼한 모든 인구의 초혼 연령을 계산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총인구의 미혼 상태를 고려하여 통계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산 연령대의 미혼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상기 지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생애 미혼율의 장래 추계 방법 자체가 과거의 경향으로부터 앞으로의 추세를 전망하는 Lee-Carter 모델을 이용하였으므로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출생성비 불균형이 30여 년 지속되었고 이후 정상성비로 회복되었지만, 이 추계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보다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의 현실이 이 분석에서의 추세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비와 결혼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17개 시도를 기본으로 분석하였으나, 결혼을 위한 만남이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 외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인

접 지역, 예를 들어 서울과 인천, 충청북도와 강원도 등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남녀의 지역 간 결혼에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지역을 통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또 한 가지를 언급하면, 이 연구에서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성인기의 성비 불균형으로 연결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출생성비 불균형이 미혼화 및 비혼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의 요인 분해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비 불균형 이외에도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경제적 및 주거적 요인도 미혼화 및 비혼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미혼화 및 비혼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출생성비 불균형이 미혼화 및 비혼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국사 25: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8). 한국사 31: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5).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11).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국사편찬위원회.
- 김상용. (2004). 戶主制는 우리민족의 傳統家族制度인가?, 법조 7(Vol. 574), 193-238.
- 김윤수, 최은선, 차경준. (2008). 남아선호사상에 기반한 출생 성비에 관한 확률론적 고찰, 한국수학사학회지 21(4), 79-86.
- 김일현. (1990). 우리나라의 출산성비 분석,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133-154.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 (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성·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 박재빈, 조남훈. (1984). 성선호로 인한 과잉출생수의 추정, 인구보건논집 4(1), 3-19.
- 백좌흠. (2014). 인도의 지참금 죽음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법학연구 22(3), 142-159.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 서문희. (1995). 우리나라 출생성비 불균형의 지역차이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15(2), 143-173.
- 성낙일, 이해경, 조동혁. (2012). 우리나라 지역별 성비 불균형과 혼인율: 실증분석, 응용경제 14(1). 187-220.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2011).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이성용. (2003). 남아 선호와 출산력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26(1), 31-57.
- 이수진.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은주. (2007). 인도의 사라지지 않는 지참금 제도, Chindia Journal 5, 44-45.
- 이정선 (2011).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家制度'의 정착 과정 - '戶主·家族'과 '戶主相續'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5, pp.253-283.
- 양현아 (1999). 한국의 호주제도: 식민지 유산 속에 숨쉬는 가족제도, 여성과 사회 10, 214-237.
- _____ (2010). 식민지 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와 '관습' 문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289-317.
- 전효숙, 서흥관. (2003).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醫史學 12(2), 129-143.
- 정채성. (2009). 지참금 관습을 통해서 본 힌두 여성의 경제적 지위: 재산권을 중심으로. 인도연구 14(1), 23-53.
- 제나. (2017). 중국 사회 결혼스퀴지(marriage squeeze) 현상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사회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지은숙. (2017). 비혼여성의 딸노릇과 비혼됨 (singlehood) 의 변화: 일본의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0(2), 189-235.
- 조남훈, 서문희. (1994). 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준 카르본, 나오미 칸. (2016)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회학 결혼 시장, 김하현 옮김. 서울: 시대의 창.
- 진필수. (2013). 일본 신도시의 고령화 문제와 이에(家)제도의 해체 양상 - 오사카 센리(千里)뉴타운 사례 -, 비교민속학 50, pp.225-262.
- 최재석. (1980). 조선시대의 양자제와 친족조직(下), 역사학부 87, 74-95.
- 하루키 이쿠미. (2010). 근대 일본과 조선의 良妻賢母主義,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319-354.

통계청. (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1970~2021년(조사연도) 원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3)「人口統計資料集」

Akers, D. (1967). On Measuring the Marriage Squeeze, *Demography* 4(2), 907-924.

Angrist, J. (2002). How Do Sex Ratios Affect Marriage and Labor Markets? Evidence from America's Second Gener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3), 997-1038.

Arnold, F., and Z. X. Liu. (1986) Sex Preference,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 (2):221-46.

Becker, G. S., & Lewis, H. 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S279-S288.

Bhalotra, S., & Chakravarty, A., Gulesci, S. (2020). The Price of Gold: Dowry and Death in Indi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43, 1-17.

Burgess, R., & Zhuang, J. (2002). Modernization and Son Preferenc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n Development Bank.

Cai, Y., & Cheng, Y. (2015). Pension reform in Chin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hina's Economy: A Collection of Surveys*, 45-62.

Cao, W. (2015). Exploring 'Glorious Motherhood' in Chinese Abortion Law and Policy. *Feminist Legal Studies* 23, 295-318.

Chen, R. (2015). Weaving Individualism into Collectivism: Chinese Adults' Evolving Relationship and Family Valu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 46(2), 167-179.

- Chen, J., & Jordan, L. P. (2018).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One-and multi-child Families in China: Does Child Gender Still Matter?. *Research on Aging* 40(2), 180-204.
- Chiplunkar, G., & Weaver, J., *Marriage Markets and the Rise of Dowry in India* (April 24, 2023).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590730>.
- Das Gupta, M, Ebenstein, A., and Sharygin, E.. (2010). *China's Marriage Market and Upcoming Challenges for Elderly Me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 5351. World Bank.
- Das Gupta, M., Li, (1999). Gender Bias in China, South Korea and India 1920-1990: Effects of War, Famine and Fertility Decline, *Development and Change* 30, 619-652.
- Ding, Q. J., & Hesketh, T. (2006). *Family Size, Fertility Preferences, and Sex Ratio in China in the Era of the One Child Family Policy: Results from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Survey*. *BMJ*. 2006 Aug 19;333(7564):371-3. doi: 10.1136/bmj.38775.672662.80. Epub 2006 May 11. PMID: 16690642; PMCID: PMC1550484.
- Du, F., Li, H., & Liang, J. (2015). *Revising Village Rules and Regulations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Liu Hongyang and Tang Mengjun Eds.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Addressing Sex Imbalances: Experiences from Three Counties in China*. Beijing: China Population Publishing House.
- Ebenstein, A., & Leung, S. (2010). Son preference and Access to Social Insurance: Evidence from China's Rural Pension Progra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1), 47-70.
- Eklund, L., & Purewal, N. (2017). The Bio-politics of Population Control and Sex-selective Abortion in China and India. *Feminism &*

- Psychology*, 27(1), 34-55. <https://doi.org/10.1177/0959353516682262>
- Guttentag, M., & Secord, P. (1983). *Too Many Women? The Sex Ratio Question*. Beverly Hills, Calif.: Sage.
- Gu, B. & Roy K. (1995). Sex Ratio at Birth in China, with Reference to Other Areas in East Asia: What We Know,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10(3), 17-42.
- Guilmoto, C. Z. (2009). The Sex Ratio Transition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3), 519-549.
- Guilmoto, C. Z. (2013). *Sex Imbalances at Birth in Armenia: Demographic Evidence and Analysis*. Report Prepared for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Yerevan: UNFPA.
- Greenhalgh, S. (1992). *The Changing Value of Children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the View from Three Chinese Villages* (No. 43). Population Council.
- Heer, D. M., & Grossbard-Shechtman, A.(1981). The Impact of the Female Marriage Squeeze and the Contraceptive Revolution on Sex Roles and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1960 to 1975.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1), 49-65.
- Hu, Z., & Peng, X. (2015). Household Changes in Contemporary China: An Analysis Based on the Four Recent Censuses. *The Journal of Chinese Sociology*, 2, 1-20.
- Kaur, R. (2013). Mapping the Adverse Consequences of Sex Selection and Gender Imbalance in India and China", *Economic & Political Weekly*, 18(35): 37-44.
- Kaur, R., Surjit B., Manoj A, & Prasanthi R. (2016). *Sex Ratio Imbalances and Marriage Squeeze in India: 2000-2050*.

- Technical report prepared for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IPDS (2014).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of Xi'an Jiaotong University of Policy Measures Addressing Sex Ratio at Birth for the 13th Five-Year Plan*. A Policy Paper Supporting the Formulation of the 13th Five-Year Pla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ssues Supported by the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and UNFPA China.
- Ji, Y. (2017). Mosaic Temporality: New Dynamics of the Gender and Marriage System in Contemporary Urban China. *Temporalités*, 26, 1-16.
- Jia, J., Wang, F., Wei, C., Zhou, A., Jia, X., Li, F., ... & Dong, X. (2014).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Urban and Rural Areas of China. *Alzheimer's & dementia*, 10(1), 1-9.
- Jiang, N., Lou, V. W., & Lu, N. (2018). Does Social Capital Influence Preferences for Aging in Place? Evidence from Urban China. *Aging & Mental Health*, 22(3), 405-411.
- Kim, Jinsoo.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atio and Marital Behavior, *보건사회연구* 17(1). 99-120.
- Lei, L. (2013). Sons,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China. *Chinese Sociological Review*, 45(3), 26-52.
- Li, H. (2015). *Son Preference and Patriarchy*, in Liu Hongyang and Tang Mengjun Eds.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Addressing Sex Imbalances: Experiences from Three Counties in China*. Beijing: China Population Publishing House.
- Li, S. (2007). Imbalanced Sex Ratio at Birth and Comprehensive Intervention in China.
- Li, S., Shang, Z., Feldman, M.. (2013). *Social Management of Gender*

- Imbalance in China: A Holistic Governance Framework," *Economic & Political Weekly* 8(35), 79-86.
- Li, L. W., Long, Y., Essex, E. L., Sui, Y., & Gao, L. (2012). Elderly Chinese and Their Family Caregivers' Perceptions of Good Care: a Qualitative Study in Shandong, China.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5(7), 609-625.
- Lin, Z., & Chen, F. (2018). Evolving Parent-adult Child Relations: Location of Multiple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Adults in China. *Public Health*, 158, 117-123.
- Lu, N., Jiang, N., Lou, V. W., Zeng, Y., & Liu, M. (2018). Does Gender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Evidence from Urban China. *Research on Aging*, 40(8), 740-761.
- Matthews, S. H., & Rosner, T. T. (1988). Shared Filial Responsibility: The Family as the Primary Caregiv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185-195.
- Matthews, S. H. (1995). Gender and the Division of Filial Responsibility between Lone Sisters and Their Brother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0(5), 312-320.
- Matthews, S. H. (2002). *Sisters and Brothers/Daughters and Sons: Meeting the Needs of Old Parents*. Unlimited Publishing LLC.
- Ministry of Health (China). (2013).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is Formed by Ministry of Health and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China Population Today, 6 August 2013; 3.
- Muhsam. H. (1974). The Marriage Squeeze, *Demography* 11(2), 291-299.

- Park, C. B. (1983). Preference for Sons, Family Size, and Sex Ratio: An Empirical Study in Korea, *Demography* 20(3), 333-352.
- Guilmoto, C. (2009). The Sex Ratio Transition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3). 519-549.
- _____ (2013). *Sex Imbalances at Birth in Armenia: Demographic Evidence and Analysis*. UNFPA Armenia Country Office.
- Pedersen, F. (1991). Secular Trends in Human Sex Ratios: Their Influence On Individual And Family Behavior, *Human Nature*, 2(3), 271-291.
- Pollet, T. & Nettle, D. (2008). Driving a Hard Bargain: Sex Ratio and Male Marriage Success in a Historical US Population, *Biology Letters* 4, 31-33.
- Schacht, R. Kramer K.. (2016). *Patterns of Family Formation in Response to Sex Ratio Variation*. PLoS ONE 11(8): e0160320. doi:10.1371/journal.pone.0160320
- Schoen, R. (1983). Measuring the Tightness of a Marriage Squeeze, *Demography* 20(1), 61-78.
- South, S. & Trent K. (1988). Sex Ratios and Women's Roles: A Cross-Natio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5), 1096-1115.
- UNFPA. (2007). *Sex Ratio-Facts and Figures*. Beijing: UNFPA China.
- _____ (2012). *Sex Imbalances at Birth in Albania*. UNFPA.
- _____ (2014). *Mechanisms behind the Skewed Sex Ratio at Birth in Azerbaija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UNFP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 _____ (2016). *Population Situation Analysis*. Beijing: UNFPA China.
- _____ (2018a). *Towards a Normal Sex Ratio at Birth in China*,

- UNFPA China Policy Brief Series.
- _____ (2018b). *The Imbalanced Sex Ratio at Birth in Viet Nam: New insigh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New Insigh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UNFPA Vietnam.
- UNFPA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Office (APRO). (2012). *Sex Imbalances at Birth: Current Trends, Consequences and Policy Implications*. Bangkok: UNFPA.
- Tong, Y. (2022). *India's Sex Ratio at Birth Begins To Normalize, Pew Research Center's Religion & Public Life Project*. United States of America. Retrieved from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2653244/indias-sex-ratio-at-birth-begins-to-normalize/3676134> / on 22 Nov 2023. CID: 20.500.12592/8hqv3f.
- Wang, W. (2005). Son Preference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Children in China 'I wish you were a boy!'. *Gender Issues*, 22(2), 3-30.
- Wang, W., Liu, X., Dong, Y., Bai, Y., Wang, S., & Zhang, L. (2020). Son Preference, Eldest Son Preference, and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Chinese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41(5), 636-666.
- Wicklin (2017). Fisher's Transformation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https://blogs.sas.com/content/iml/2017/09/20/fishers-transformation-correlation.html>.
- World Bank. (2023). Sex Ratio at Birth (Male Births per Female Births) - Chin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BRTH.MF?locations=CN&most_recent_value_desc=false. 최종접속: 2023.11.12.
- Xue, Q. X., Lei, M. W., Sun, L. L., Jia, Y., Fang, Y., & Liu, X. Z. (2017).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ontract

- Services of Community Family Doctor. *The Journal of Chinese Medical Ethics*, 30, 105-108.
- Zeng, Y., Tu, P., Gu, B., Xu, Y., Li, B., Li, Y. (1993). Causes and Implications of the Recent Increase in the Reported Sex Ratio at Birth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2), 283-302.
- Zhang, J., Yu, X., & Zhang, Y. (2021). Policy-Oriented Learning: A Case on Initiating Long-Term Care Insurance in China's Social Security Sector. *Sustainability*, 13(6): 3233.
- Zhang, J., & Lu, N. (2019). What Matters Most for Community Social Capital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Urban China: The Role of Health and Family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4), 558.
- Zhang, J., & Lu, N. (2020). Community-based Cognitive Social Capital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in Urban China: The Moderating Role of Family Social Capita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90(3), 297-316.
- Zhang, Y., & Jiang, J. (2019). Social Capital and Health in China: Evidence from the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2010,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2, 411-430.
- Zhang, Y., Zou, B., Zhang, H., & Zhang, J. (2022). Empirical Research on Male Preference in China: A Result of Gender Imbalance in the Seventh Population Censu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1), 6482.
- Zhao, Z. (1997). Deliberate Birth Control under a High-fertility Regime: Reproductive Behavior in China before 1970.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4), 729-767.
- Zheng, Z. (2012). *A Report on Mapping of Sex Ratio at Birth*

Programmes, Interventions and Actions in China. A Report Submitted to UNFPA, UNICEF, and UN WOMEN China.

Zuo, J. (2009). Rethinking Family Patriarchy and Women's Positions in Presocialist Chin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3), 542-557.





[부록 1] 기상 결합 후 미혼자 및 비율

〈부표 1〉 한국의 연령별 기상 결합 후 미혼자 및 비율: 1985~2020년

(단위: 명, %)

연령	1985	1990	1995	2005	2010	2015	2020
20	7,407	34,190	80,477	62,272	30,552	96,526	95,954
21	44,256	50,219	99,023	70,679	6,596	91,207	85,313
22	85,637	36,872	84,551	80,514	-1,102	37,825	61,794
23	58,822	-24,828	62,665	100,678	11,795	6,860	36,246
24	32,804	-28,670	42,639	93,131	25,996	-9,988	57,600
25	-4,663	-15,620	18,391	51,325	34,411	17,574	64,092
26	1,633	10,664	160	2,866	50,961	7,730	63,467
27	-14,925	35,830	-25,624	-37,800	73,322	14,285	51,650
28	-49,424	36,359	-38,151	-31,749	91,097	2,546	47,174
29	-69,336	43,600	-21,153	-10,848	92,673	24,337	21,860
30	-30,777	7,195	-6,284	26,199	52,244	41,904	7,231
31	-42,163	14,399	18,615	50,391	8,933	55,472	-13,121

연령	1985	1990	1995	2005	2010	2015	2020
32	-79,554	-23,238	43,543	58,970	-46,028	84,031	-3,006
33	-52,627	-35,459	49,446	61,786	-35,603	95,367	8,653
34	-70,565	-56,086	49,099	44,489	-11,442	90,917	25,167
35	-6,317	-12,232	19,332	24,220	30,140	67,214	38,113
36	-43,203	-32,492	18,989	316	45,463	8,848	42,868
37	26,245	-75,804	-4,564	-23,249	70,701	-23,208	79,668
38	24,007	-51,836	-38,153	-37,760	53,613	-32,721	102,676
39	-4,005	-65,527	-55,161	-19,496	44,294	-9,629	92,785
40	-50,482	-13,728	-26,893	-13,443	21,211	45,394	62,687
41	-48,120	-38,721	-36,291	12,344	9,070	55,702	6,103
42	-22,124	20,201	-81,630	34,746	-3,069	78,201	-27,675
43	47,319	19,919	-50,734	31,080	-65,466	62,610	-34,568
44	27,000	-12,737	-71,462	36,094	-45,405	39,828	-16,266
45	2,671	-42,422	-10,508	5,086	-10,586	31,042	39,367
46	-17,018	-40,446	-43,378	6,961	-8,541	27,685	62,044
47	-18,212	-9,604	26,715	-18,194	27,337	-7,740	71,410
48	-7,105	43,983	16,080	-55,075	13,946	-41,735	54,669
49	-25,484	22,507	-16,852	-69,987	51,066	-42,953	42,868
순 미혼자 총합(A)	-298,303	-203,512	102,887	536,546	618,179	915,131	1,226,823
20~49세 남성 미혼 인구 총합(B)	9,278,558	10,662,380	11,407,083	11,944,101	11,470,878	11,439,785	10,939,274
미혼자 비율(A/B)	-3.2	-1.9	0.9	4.5	5.4	8.0	11.2

〈부표 2〉 일본의 연령별 기상 결합 후 미혼자 및 비율: 1985~2020년

(단위: 명, %)

연령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	4,245	-15,573	120,877	82,719	76,102	18,391	16,926	18,142
21	137,475	-21,839	121,882	85,525	76,320	38,580	23,113	13,495
22	-54,675	-12,524	96,163	80,593	53,704	52,932	4,447	21,960
23	-24,096	4,395	27,950	83,381	27,682	54,995	16,052	18,051
24	-13,473	-178,467	-16,858	95,104	33,313	52,839	24,548	9,830
25	15,713	-10,605	-22,826	115,362	67,193	62,716	25,649	20,772
26	40,165	126,897	-18,423	122,756	78,017	72,364	42,674	27,962
27	13,292	-56,078	-6,191	96,987	80,765	51,781	56,285	9,279
28	-23,059	-24,931	8,689	32,018	84,208	29,445	58,800	18,974
29	35,752	-15,406	-173,240	-14,497	92,787	33,389	53,199	28,182
30	93,725	14,603	-4,716	-17,605	112,914	65,896	60,568	29,140
31	49,997	41,642	132,077	-15,425	120,892	76,554	71,513	44,221
32	73,762	13,302	-51,557	-7,414	93,713	78,707	53,537	56,950
33	123,526	-23,930	-20,628	7,227	27,679	82,368	30,425	61,773
34	128,245	35,468	-11,980	-175,095	-17,874	90,180	32,233	53,163
35	155,761	88,717	17,503	-5,152	-24,171	109,319	63,973	59,018
36	202,379	46,388	43,005	130,751	-20,650	120,114	76,093	72,139
37	119,123	70,967	12,710	-53,323	-10,179	95,028	75,790	53,582
38	-41,105	119,978	-22,861	-23,564	2,441	28,333	80,025	29,868

연령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39	-471,066	122,593	37,308	-15,446	-178,187	-18,509	88,669	30,122
40	-359,296	148,914	86,520	14,243	-6,875	-25,294	105,543	63,820
41	232,906	198,962	45,923	39,700	128,463	-18,547	118,034	75,783
42	141,488	114,571	72,061	9,800	-60,333	-11,391	92,155	73,308
43	-1,394	-47,052	119,625	-26,336	-31,474	-863	26,379	77,904
44	4,592	-470,224	122,160	31,864	-20,361	-181,361	-21,560	86,141
45	-104,759	-362,614	148,126	79,888	7,108	-15,375	-30,790	100,631
46	-193,715	223,853	199,724	40,240	32,226	121,364	-22,142	114,009
47	-60,724	134,597	109,024	64,016	838	-63,549	-14,468	90,574
48	75,819	-4,990	-52,699	110,033	-35,298	-34,402	-2,691	22,315
49	27,245	-4,439	-469,343	111,683	22,807	-28,057	-181,674	-28,391
순 미혼자 총합(A)	327,848	257,175	650,005	1,080,033	813,770	937,947	1,023,305	1,352,717
20~49세 남성 미혼 인구 총합(B)	26,535,757	26,567,476	27,045,021	25,805,095	24,756,399	23,911,173	22,781,777	21,333,018
미혼자 비율(A/B)	1.2	1.0	2.4	4.2	3.3	3.9	4.5	6.3